발 간 등 록 번 호
6441169-2020-000





COVID-19 REPORT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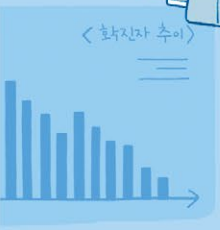


충청남도 위기극복 대응 및 선도사례

2019. 12. - 2020. 6.







충청남도



COVID-19 REPORT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위기극복 대응 및 선도사례

2019. 12. - 2020. 6.

충청남도

CONTENTS 목차

INTRO

목차 04
발간사 06
코로나19 대응 타임라인 08
충청남도 대응 주요 지표 12

01 총괄

1 코로나19 개요 28
코로나19 기본 정보 28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3

2 코로나19 국내 확산 및 정부의 대응 44
정부의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44
정부의 초기 대응 : 관심/주의 단계 49
정부의 경계 단계 대응 53
정부의 심각 단계 대응 56

3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체계 63
충남도의 대응조직 체계 63
충남도의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체계 67

02 충남도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도적 대응 및 방역대책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72
아산 임시생활시설 운영 타임라인 72
'배려와 나눔의 시민정신' 감동의 사례 80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결정과 주민 반발 88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합의 및 사회적 협력 101
충남도 총력 관리 및 대응 124
우한 귀국 교민 격리 해제 및 귀가 178
종합 평가 192

2 방역 대책 및 대응 활동 204
국내 환자 대응 204
해외 입국자 및 외국인 대응 219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관리 221
격리 대상자 관리 230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이송 239
진료 병상운영 및 관리 240
예방 및 방역 활동 245
방역물품 관리 266

3 재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정책 27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71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73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275
수출 위기극복협의회 운영 등 수출 지원 277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재정 지원 280

4 민간의 협력과 지원 282
자원봉사 282
기부 및 후원 286

03 장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충남도의 정책 건의

1 장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292
포스트-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 292
포스트-코로나9 대응 자문위원회 295

2 충남도의 정책 건의 306

| 현장 인터뷰 | 코로나19 대응 관계자 일문일답 312

| 부록 | 충남도내 확진자 현황 328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330

발간사

2019.12 - 2020.6
충청남도 위기극복 대응 및 선도사례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헌신, 그 믿음과 희망의 기록

코로나19(COVID-19)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우한시에서 발생한 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도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218개국에서 1,040만 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50만 8,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1만 2,800명, 사망자 수는 282명을 각각 기록하였고 충남도내에서도 1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공포와 위기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WHO가 감염병 경보 최고 위협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대유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혹한 경기 침체로 인한 삶의 고통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은 우리 사회, 국민 모두에게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유행이 거듭되면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묵묵히 담담하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예방과 방역,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각계 분야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헌신, 그 믿음과 희망의 기록입니다. 202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관심과 주의-경계-심각' 등 감염병 경보 단계별로 충청남도의 방역 대책 및 대응 활동, 재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정책, 민간의 협력과 지원, 장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충남도의 선도적 대응 사례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K-방역 성공의 토대'로 평가되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총력 대응과 시민의 포용과 배려의 정신을 생생한 스토리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 책은 중간 정리의 성격이고 각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와 지표 등이 각 시기에 정확히 일치할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간 충청남도의 대응과 방역대책을 공유하여 위기 극복의 참고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해준 의료진과 각 분야 관계자들, 성원과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남도지사 양 승 조

코로나19 타임라인

국내외 주요 상황 및 충청남도 대응

국외

12. 31.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

12. 30.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발생

12. 27.
중국 후베이성 의사 장지센,
중국 보건당국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보고

01. 09.
중국, 정체불명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잠정 판정

01. 11.
중국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

01. 15.
일본서 첫 확진자 확인

01. 23.
중국, 우한 긴급 봉쇄

01. 31.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선포.
중국내 확진자 1만 명 육박

02. 29.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02.11.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로 결정

03. 11.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03. 26.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2만 명 넘어

03. 27.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코로나19 확진

04. 02.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00만 명 넘어

04. 15.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00만 명 넘어

05. 20.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500만 명 넘어

06. 28.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000만 명 넘어

06. 30.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041만 2,421명
(09시 기준)

2019 2020 02. 01. 03. 01. 04. 01. 05. 01. 06. 01.

국내

01. 20.
중국인 입국자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01. 27.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01. 30.
국내 첫 2차 감염사례 발생

02. 18.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에서
1차 유행 시작

02. 20.
국내 최초 사망자,
청도 대남병원 발생

02. 23.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02. 26.
국내 누적 확진자
1,000명대 진입

03. 03.
국내 누적 확진자
5,000명대 진입

03. 07.
마스크 5부제 시행

03. 15.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03. 19.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

03. 22.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04. 01.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04. 03.
국내 누적 확진자
1만명대 진입

04. 06.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04. 30.
국내 확진자
최초 0명 기록

05. 0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05. 05.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종료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05. 06.
신규 환자 2명으로
78일 만에 최소 증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05. 09.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 전국 확산

05. 13
고교 3학년
단계별 등교 시작

05. 26.
버스·택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06. 01.
마스크 5부제 폐지

06. 28.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마련

2020 02. 01. 03. 01. 04. 01. 05. 01. 06. 01.

충남도

01. 17.
충남도 방역대책반 구성, 운영
- 선별진료소 32개소 설치, 운영 (보건소 16, 의료기관 16)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 단국대병원(천안)

01. 23.
충남도 선별진료소 18개소 지정

01. 24.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검진기관 지정

01. 29.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지정

01. 31.
우한 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1차 입소(194명). 아산에 도지사 집무실·현장대책본부·임시 숙소 설치.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운영. 선별진료소 32개소로 확대 설치

02. 01.
우한 교민 2차 입소(327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정 (단국대병원, 지방의료원 4개소)

02. 02.
우한 교민 3차 입소(7명)

02. 04.
충남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 개최

02. 05.
충남도 방역대책반 확대 운영(도-시·군 81개팀 517명)

02. 09.
문재인 대통령, 아산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및 지역주민 간담회

02. 12.
충남도 '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 전개

02. 13.
양승조 도지사, 중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 기자회견

02. 14.
충남도 수출위기극복 협의회 개최

02. 15.
충남도 역학조사반 확대 편성 (도 2팀 15명, 시·군 29팀 141명)

02. 16.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 1차 15일 193명,
- 2차 16일 334명 퇴소

02. 18.
충남도, 아산 도지사 현장집무실·현장대책본부·도지사 임시숙소 철수

02. 21.
충남 첫 확진자 계룡시에서 발생

02. 22.
충남도, 대구시에 의료 및 역학조사 인력 파견

02. 24.
충남도청사 방역 강화대책 추진

02. 27.
천안 피트니스센터 집단감염 발생

03. 02.
충남소방본부 16개 구급대(대원 144명) 전담구급대로 배치

03. 06.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 지정, 충남 확진환자 첫 완치

03. 09.
서산 한화토탈 집단감염 발생

03. 13.
충남도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운영

03. 15.
충남도 요양원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예방적 대응체계 강화

03. 22.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상록리조트 임시생활시설 지정, 사회복지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추진

03. 23.
충남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03. 24.
부여 성결교회 집단감염 발생

03. 25.
충남도내 집단감염 고위험종사자 1만 3,802명 진단검사

03. 26.
충남도 수출 고도화사업 추진

03. 29.
충남도-시군, 충남도내 개신교회 3,148개소 일요예배 합동 전수점검. 해외입국자 전수 진단검사

03. 30.
충남도, 식사지침 및 음식점 대응요령 배포

04. 02.
천안아산 KTX역 양압식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04. 04.
충남도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04. 07.
충남도 '음식점 식사지침' 발표

04. 09.
충남도 격리해제 (퇴원)자 전수검사

04. 16.
충남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유흥시설 현장점검

04. 20.
충남도 노인요양시설 103개소에 방역소독기 지원

04. 28.
충남도 농어민수당 1차 지급(14만 4000 가구, 가구당 45만 원)

04. 29.
충남도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1일 전 진단검사 시행

05. 06.
충남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05. 07.
충남도 '포스트-코로나19 대응추진단' 구성·운영

05. 11.
충남도 1,236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05. 20.
충남도 '포스트-코로나 19 대응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05. 30.
충남도 시외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06. 04.
충남도 농어민수당 가구당 지금액 80만 원으로 인상

06. 18.
충남도 다단계판매업·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876개소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06. 19.
충남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긴급 대책회의 개최

06. 26.
충남도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행사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06. 30.
충남도내 확진자 169명 발생

2020 02. 01. 03. 01. 04. 01. 05. 01. 06. 01.

충청남도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지표



① 대응조직 및 운영체계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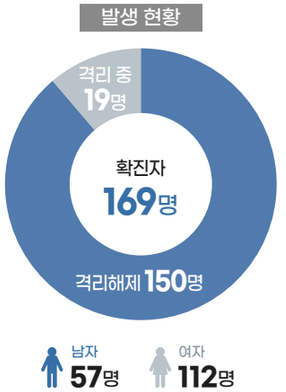


구 분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 장	○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실무반	보건의료분야	
	상황총괄반 (사회재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재난상황 관리 업무 총괄 ○ 상황판단회의, 지대본회의 등 개최, 대처계획 수립 보고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 처리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통계관리 총괄, 대외(의회 등) 대응 관리, 환자 상담 및 정보 제공
	역학조사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환자 발생 역학조사 ○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 환자사례조사 및 조치 ○ 보건소 사례조사 지도, 자문 ○ 민간역학조사반 운영, 시·군 역학조사 지원
	의료자원관리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진료병원 지정, 격리병상 관리 ○ 개인보호장비배부 및 관리 ○ 공공의료 지원 ○ 의약단체 협력, 의료기관 정보제공
	접촉자관리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접촉자 관리 ○ 격리자(능동감시·자가·시설·병원격리) 관리 및 지원 ○ 접촉자 등 통계관리
	진단관리반 (보건환경연구원)	○ 환자 검사 및 진단 ○ 실험실감시체계 운영 ○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관리
	행정지원분야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사회복지과)	○ 접촉자(자택격리자) 생활지원 ○ 유가족 지원 및 장례비 지원 ○ 피해보상 접수 및 지원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환경정비반 (환경안전관리과)	○ 의료폐기물 처리 지원체계 가동 ○ 격리자 폐기물 수거봉투 배급
	사회질서유지반 (자치행정과)	○ 시설격리 시 출입통제 대응인력 지원 ○ 콜센터 운영 ○ 의심환자 및 접촉자 소재파악 협조
	홍보반 (공보관)	○ 언론보도 총괄 ○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등 언론기관 대응
	협업지원반	○ 유관기관 협업추진(교육청, 경찰청, 32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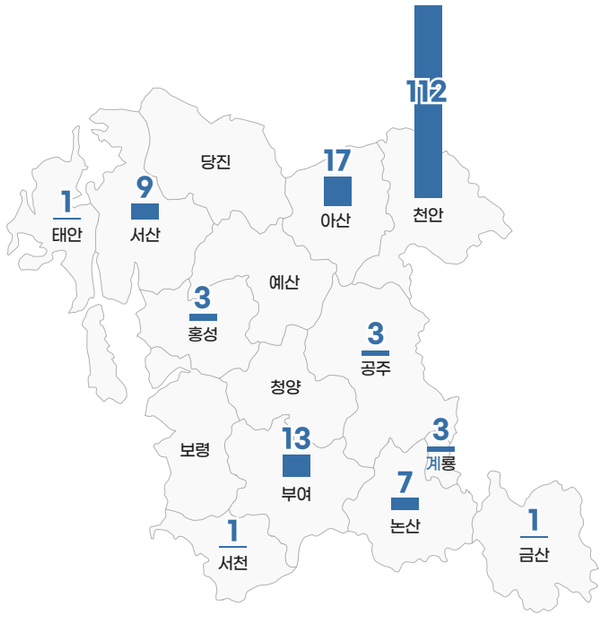
②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충남도 확진자 현황

2020. 06. 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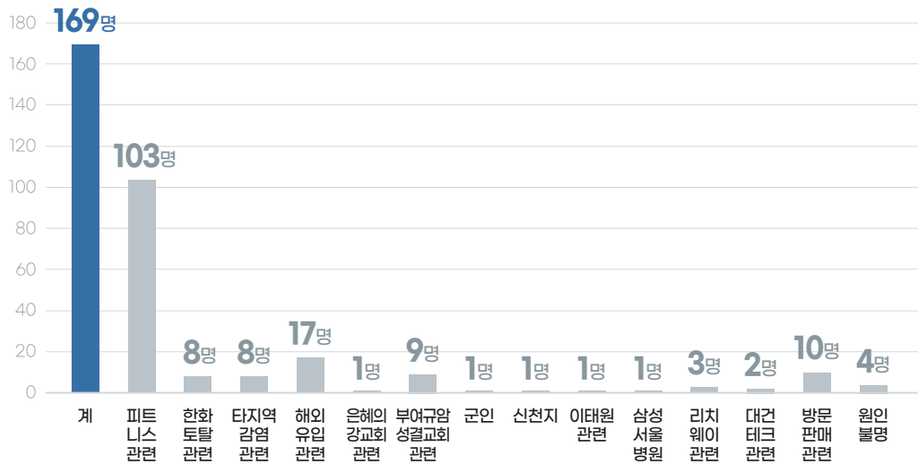


확진자 입원 현황(21명) : 도 19 + 검역 2



충남도 감염경로별 확진자 현황

2020. 06. 30. 기준



충남도 자가격리자 현황

2020. 06. 30. 기준

전일까지			당일 발생			당일 해제			현재 격리자수		
계	접촉자	해외	계	접촉자	해외	계	접촉자	해외	계	접촉자	해외
1,176명	211명	965명	84명	1명	83명	109명	13명	96명	1,151명	199명	952명

<자료 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충남도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조치 현황

03. 28. ~ 06. 30.

국 적
대한민국 31명, 베트남 3명
인도네시아 1명, 캄보디아 1명
중국 3명, 카자흐스탄 1명

격리장소
천안 13명, 논산 7명
공주 2명, 서산 5명
계룡 2명, 당진 6명, 태안 5명

조치결과
고발 39명
계도 1명

검사결과
음성 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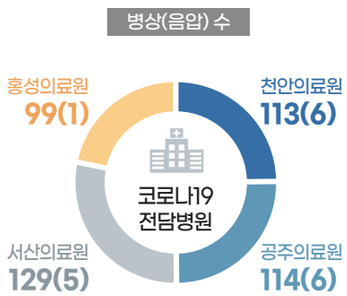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③ 방역대책 및 대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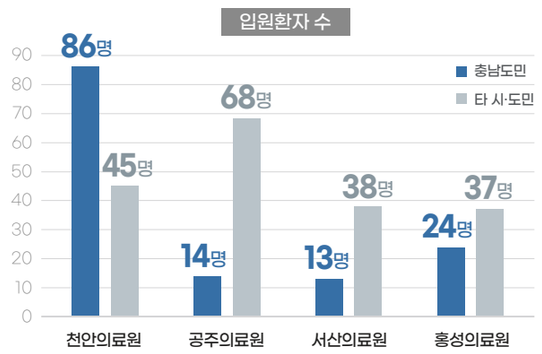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현황

2020. 06. 30. 기준

병상(음압) 수



입원환자 수



충남도내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현황

연번	운영개시일	운영종료일	진단검사 가능여부	검체채취 가능여부	시군구	기관명
369	2020.02.03.		X	O	계룡시	계룡시보건소
370	2020.01.27.		X	O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371	2020.01.30.		X	O	공주시	공주시 보건소
372	2020.02.03.		X	O	금산군	새금산병원
373	2020.01.29.		X	O	금산군	금산군보건소
374	2020.01.20.		X	O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375	2020.01.20.		X	O	논산시	논산시보건소
376	2020.01.29.		X	O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377	2020.01.29.		X	O	당진시	당진시보건소
378	2020.01.28.		X	O	보령시	보령시보건소
379	2020.01.28.		X	O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380	2020-02-01		X	O	부여군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381	2020-01-24		X	O	부여군	부여군보건소
382	2020-03-23		X	O	부여군	성요셉연합의원
383	2020.01.23.		X	O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384	2020.01.27.		X	O	서산시	서산시보건소
385	2020.01.28.		X	O	서천군	서해병원
386	2020.01.28.		X	O	서천군	서천군보건소
387	2020.01.20.		X	O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388	2020.01.29.		X	O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추가	2020.03.03.	2020.03.17.	X	O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389	2020.03.04.		X	O	아산시	현대병원
390	2020.02.13.		X	O	예산군	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391	2020.01.30.		X	O	예산군	예산군보건소
392	2020.01.30.		X	O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393	2020.02.13.	2020.03.01.	X	X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추가	2020.02.28.	2020.04.26.	X	X	천안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94	2020.01.27.		X	O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395	2020.01.29.		X	O	천안시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396	2020.01.21.		X	O	천안시	천안의료원
추가	2020.03.06.	2020.06.23	X	X	천안시	천안우리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97	2020.06.24.		X	O	천안시	천안우리병원
398	2020.01.19.		X	O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399	2020.01.28.		X	O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400	2020.01.28.		X	O	홍성군	홍성의료원
401	2020.01.28.		X	O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국격	2020.01.06.		O	O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단검사 절차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단계·상황별 진단체계 운영 현황

1차(2020년 2월 7일)
감염병 검사팀 비상진단체계 운영 (2인 1조, 2개조, 4명)

2차(2월 12일)
감염병검사팀 → 보건연구부 확대 대응 (2인 1조, 3개조, 6명)

3차(2월 24일)
진단검사체계 추가 확대·강화 운영(세부 기능 확대), 검사반(4개 조 8명), 접수반(3개 조, 6명), 지원반(2개 조, 4명) 등 확대 운영

4차(2월 28일)
진단검사체계 확대·강화 운영(신천지 관련 및 청사 오염도 조사), 검사반 (4개 조, 8명), 접수반 (4개 조, 8명), 지원반 (3개 조, 6명) 등 확대 운영

5차(3월 25일)
진단검사체계 보완 운영(고위험집단 시설 선제적 진단검사), 3개 조(1일 1조 운영) → 4개 조 (1일 2조 운영)

6차(4월 1일)
진단검사체계 효율적 운영(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강화), 4개 조(28명) 1일 2조 운영(식약품분석팀, 북부지원 인력보강)

(4월 3일)
진단검사체계 효율적 운영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강화)

7차(4월 26일)
비상 진단검사체계 운영(고위험집단 시설 검사완료에 따른 변경)

8차(6월 1일)
비상 진단검사체계 운영(효율적·장기적 진단체계 유지), 3개 조(1일 1조) 3교대 근무-총 16명(진단조 9명, 2명씩 교대근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비상진단검사 체계

2020. 06. 01. 개편

구분	역할	비고
총괄관 (1명)	보건환경연구원장 (비상진단체계 총괄)	
조정관 (1명)	보건연구부장 (비상진단체계 운영 및 관리)	
진단팀장 (1명)	감염병검사팀장 (진단검사 운영 및 관리)	
진단조 (9명, 3개 조)	코로나 19 진단검사, 역학진단 특수시책 진단	2인 1조 교대근무
접수 및 통계 (4명)	검체접수, 통계관리, 예산관리 등 행정지원	2인 이상 교대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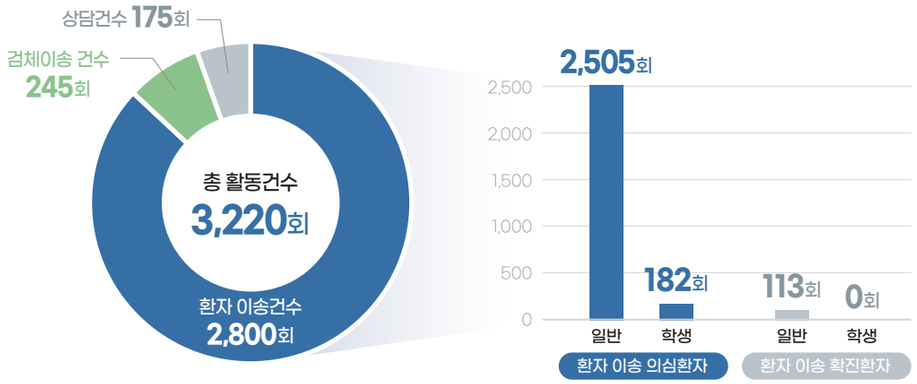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현황

2020. 06. 30. 21:00 기준

구분		실적	누계 실적
역학진단 (유증상자, 접촉자 등) ※해외입국자 포함(5월 11일부터)	처리 실적	120건	1만 7,415건
	결과	양성 1건 (금산)	양성 80건/미결정 16건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처리 실적	77건	3,138건
		음성	음성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 실적	0	1,483건
	결과	음성	음성
기타 (노숙인 등)	처리 실적	0	36건
	결과	음성	음성
고위험 집단시설	처리 실적	(완료)	1만 4,329건 (음성)
해외입국자	처리 실적	(종료)	3,756건 (양성 5건)
총 실적 (결과)		197건 (양성 1건)	4만 157건 (양성 86건)
양성내역 (86건)		천안 47(해외입국 4건, 격리해제 후 재진단 3 포함), 공주 3, 아산 7(해외 1), 서산 6, 논산 4, 계룡 2, 부여 9, 서천 1(해외입국), 홍성 2, 태안 1 ※타 시·도 3(격리해제 진단 2, 격리해제 후 재진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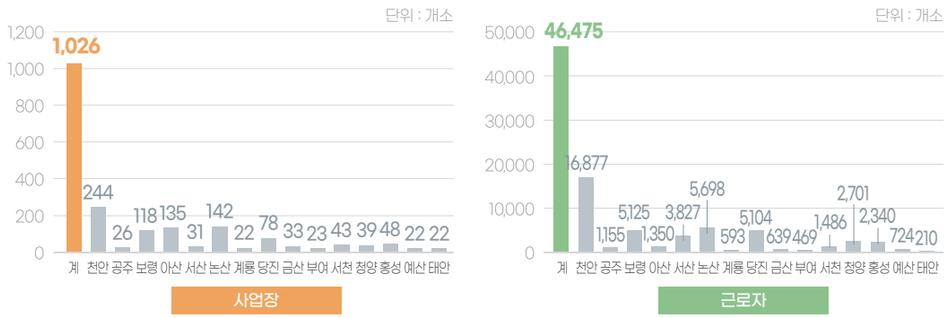
충남소방본부 의심 및 확진환자 이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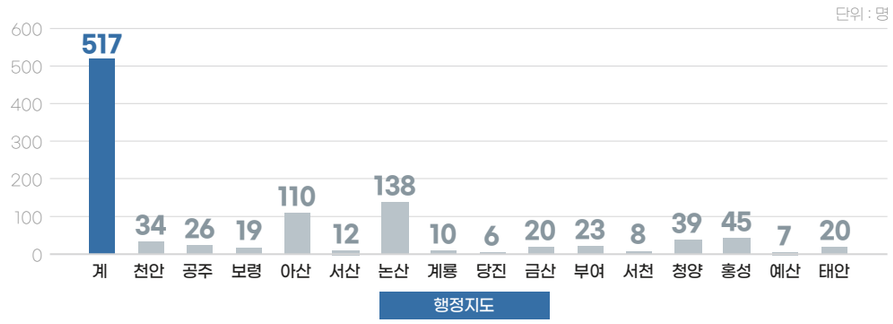
2020. 06. 30. 기준



충남도 사업장 점검실적 현황

2020. 06. 30. 기준





충남도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이행상황 점검

2020. 06. 30. 기준

운영현황		점검실적		행정지도(현장시정)	
시설 수	운영시설(%)	누계	6.30.	누계	6.30.
1,449	1,106 (76.3%)	6,315	67	18	-

충남도 집단감염 위험 유흥시설 현장점검

03. 23. ~ 06. 30.

점검 대상	점검실적			행정지도(현지시정)			행정처분(명령)		
	계	금일실적	전일누계	계	금일실적	전일누계	계	금일실적	전일누계
1,749	29,900	72	29,828	1,087	0	1,087	1,214	0	1,214

※ 점검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④ 재난 지원 및 경제활성화 대책

충남도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2020. 06. 30. 기준

지급수단 및 방법	대상가구 (a)	지급완료 (b)	집행액 (억 원)	대상가구 대비 지급률 (b/a×100)
합 계	973,071	936,756 (96.3%)	5,881	96.3%
▶ (현금지급 / 5.4~8.4)기초수급자 등 - 별도 신청 없이 계좌입금	151,308	151,180 (15.5%)	703	99.9%
▶ (신용체크 / 5.11~6.5)일반 도민 - 카드사 홈페이지,연계은행	821,763	616,870 (63.4%)	5,178	95.6%
▶ (선불·상품권 / 5.18~8.18)일반 도민 - 읍·면·동 신청접수		168,706 (17.3%)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13만 4,891명

소상공인 11만 2,974명, 실업자 등 2만 1,917명

지원규모

총 1,051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내역

2020. 06. 30. 기준

지원 내역

소상공인 **3만 1,003건** **9,095억 원**

중소기업 **573건** **1,899억 원**

융자 지원 한도

제조업	기술혁신형	운수업	소상공인
2억 원	**3억 원**	**3억 원**	**3,000만 원**

이자 보전 금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 **0.5%** (0.3% 인하)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및 예산액

지원대상

16만 5,000가구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지급금액

연 8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소요액

1,32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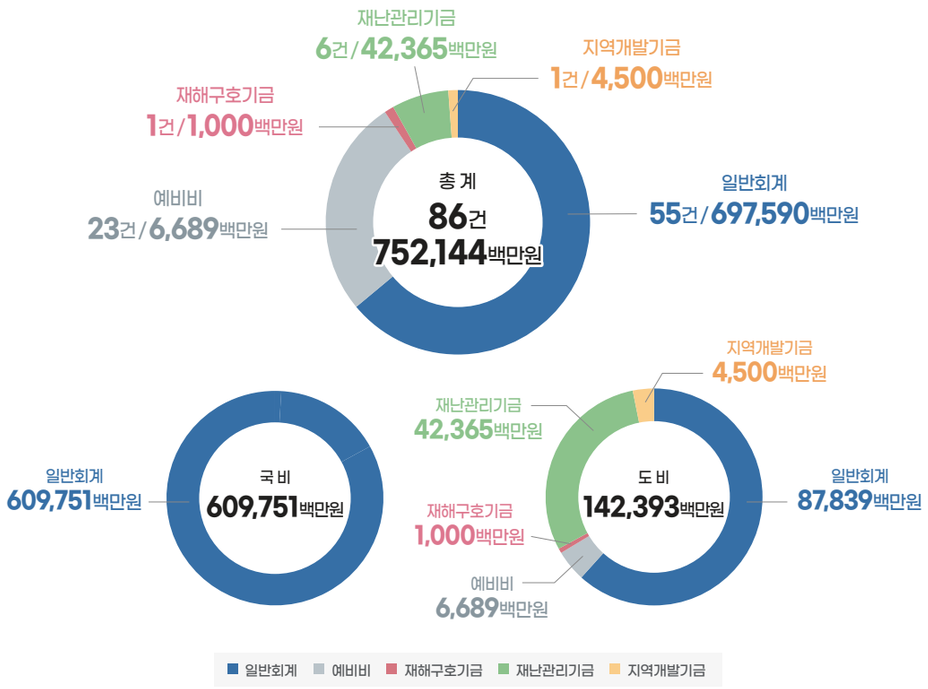
도 40%, 시·군 60%

2020년 충남도 수출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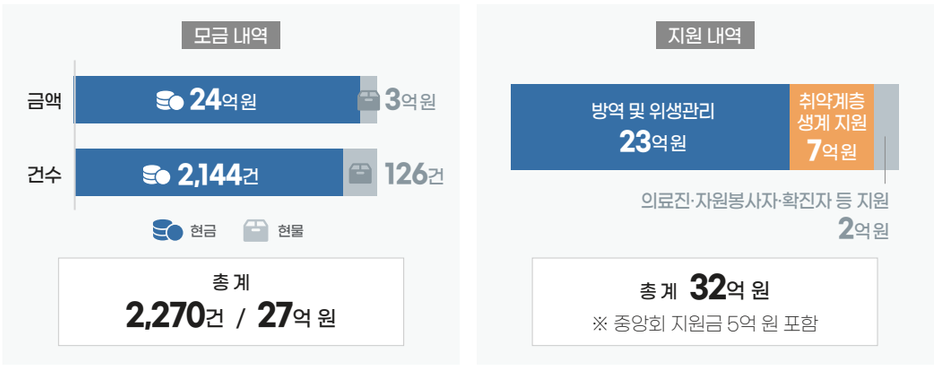
	사 업 명	지원규모 (개사)	추진(대행)기관
24개 사업		2,145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지원 (13개사업)	소 계	686	
	해외시장개척단(5회)	42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40	KOTRA지원단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단체, 10회)	58	중진공,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문화산업진흥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개별)	50	경제진흥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5회)	32	경제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
	해외지사화	25	경제진흥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20	경제진흥원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260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현지 수출상담회 (베트남 비즈니스파트너십)	27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상사 활용 수출대행 지원	2	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00	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 지원	20	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10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수출인프라 지원 (4개사업)	소 계	10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80	경제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15	한국무역협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5	경제진흥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	(2개대학)
수출기업 소통 및 홍보 강화 (7개사업)	소 계	1,354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100	경제진흥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34	경제진흥원
	무역의 날 기념식	60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CEO포럼	100	道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운영	-	道
	찾아가는 수출지원 종합상담실	60	道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	道

충남도 회계별 예산지원 현황

2020. 06. 30. 기준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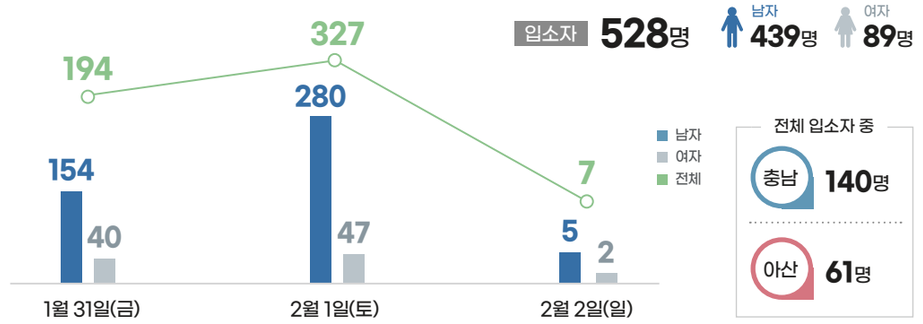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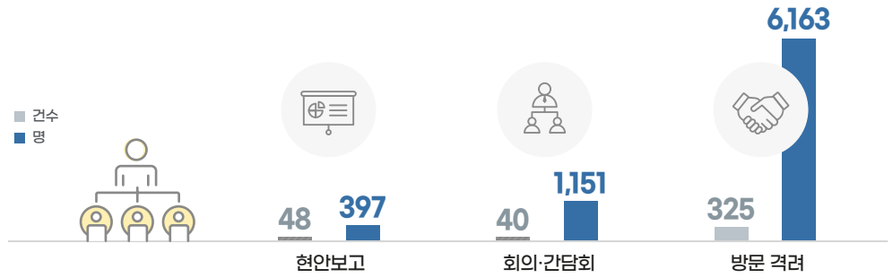
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우한 귀국 교민 입소 현황

2020. 02. 06. 기준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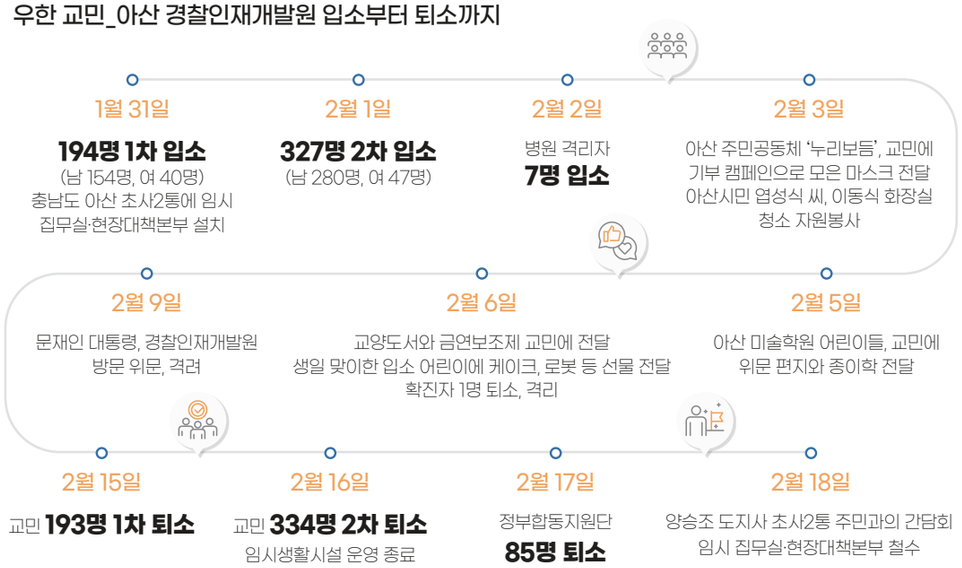


※ 도지사 전자결재 및 메모 보고 처리 : 247건

아산 임시생활시설 운영기간 후원 물품 및 성금 접수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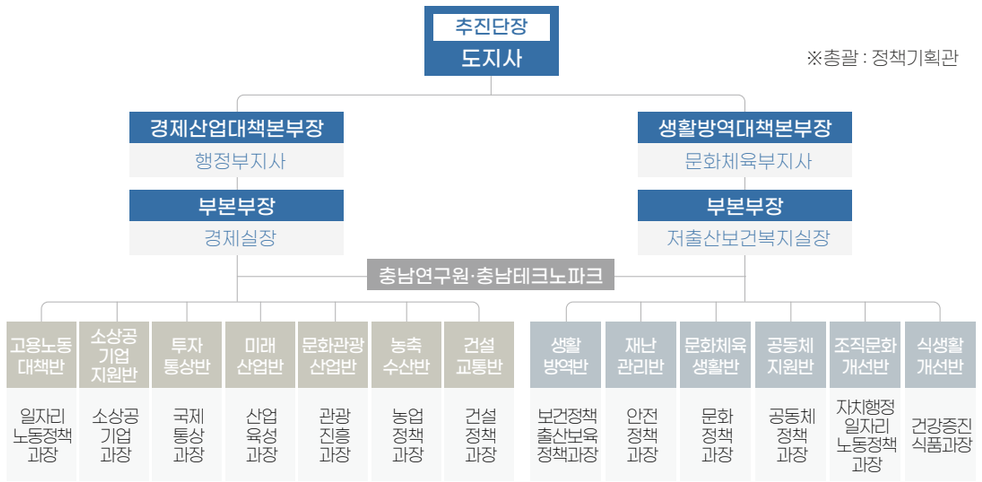
총계	성금	후원 물품	위문품
14억 3,664만 원	1억 1,900만 원	13억 676만 원	1,088만 원
143건	19건	94건	30건

우한 교민_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부터 퇴소까지



⑥ 장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포스트-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추진단 조직도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추진단 구성과 역할

구 분		반 장	역 할
경제산업 대책본부 (간사: 경제정책과장)	고용노동대책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및 생계 지원, 교육 훈련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실업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팬데믹 관련 AI, 바이오 등 산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발굴 추진
	소상공 기업지원반	소상공기업과장	도산위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 지원,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및 고정비 지원(임차료, 종사자 임금), 중소기업(하청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 추진
	투자통상반	국제통상과장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국내외 기업 유치, 중소기업 수출 지원(판로 다각화 등)
	미래산업반	산업육성과장	팬데믹 성장산업(신규 산업) 육성,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AI, 건강식품, 생활환경, 의약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식서비스산업 및 온라인 유통중심 벤처기업 육성, 보건·방역·인수 공통 감염병 대응 미래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반	관광진흥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관광자원 및 여행상품 발굴 운영, 관광산업별 피해와 영향조사를 통한 사업별 대응전략 마련, 자연경관 중심의 소규모 관광상품 개발
	농축수산반	농업정책과장	농수축산업 유통체계 개선, 농수축산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정비, 유통과 판매 방식 다양화(온라인 직거래, SNS 등)
	건설교통반	건설정책과장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발굴·추진, SOC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고 및 미래를 대비한 SOC사업 계획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저밀도 주거환경 모델 개발
생활방역 대책본부	생활방역반	출산보육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및 식생활 문화 등 인식개선 활동, 공기청정기, 의료폐기물 등 생활안전 장비 및 시설 구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 강구
	재난관리반	안전정책과장	생활현장에서의 방역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생활 속 거리 두기 캠페인 전개, 이행실태 점검 등)
	문화체육생활반	문화정책과장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 구축, 종교·예술·체육 등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안전망 구축
	공동체지원반	공동체정책과장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자, 지역공동체 갈등 조정 및 소통체계 재정립)
	조직문화개선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원격근무, 디지털결재, 전자상거래 등 근무 환경 개선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 물품 구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식생활개선반	건강증진식품과장	식생활 문화개선 대책 수립 및 캠페인 전개 (개인 식판 사용, 한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등 생활 속 정착)

제1장 총괄

COVID-19



Part 1 코로나19 개요

1 코로나19 기본 정보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Part 2 코로나19 국내 확산 및 정부의 대응

1 정부의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2 정부의 초기 대응 : 관심/주의 단계
3 정부의 경계 단계 대응
4 정부의 심각 단계 대응

Part 3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체계

1 충남도의 대응조직 체계
2 충남도의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체계

2019년 12월 1일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1월 8일 국내 첫 유증상자 발생에 이어 1월 20일에는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의 과제로 떠올랐다. 충청남도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와 연계하여 2020년 1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1월 31일에는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키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 코로나19 개요

❶ 코로나19 기본 정보

벨기에 맥주 브랜드로 익숙한 코로나(corona)가 어느 날 낯선 바이러스 이름으로 등장했다. 본래 코로나(corona)는 '왕관'이란 뜻의 라틴어이다. 천문학에서는 태양의 가장 바깥 대기층으로 뻗어 나오는 가스층을 코로나로 지칭하는데 그 형태가 왕관처럼 보인 것에서 유래되었다. 바이러스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게 된 배경 역시, 바이러스의 원형구조에 돌기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생김새가 왕관, 혹은 태양의 코로나와 비슷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명명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전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나, 2015년 국내에 발생했던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이다. 하지만 2020년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19는 코로나바이러스이되, 전혀 새로운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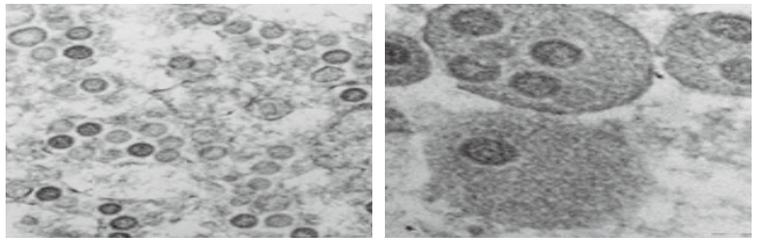


● 미국 국립보건원이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

발생 초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질환 명칭과 병원체의 명칭을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졌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폐렴 증상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권고안은 질병 명칭에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 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다.

2020년 2월 11일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새롭게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이름으로 '코비드-19(COVID-19)'를 제안했다. 'COVID-19'는 '코로나'(corona), '바이러스'(virus), '질환'(disease)의 앞 글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2019년에서 따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년'이라는 뜻을 지니며 발음이 쉽고 나중에 유사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뒤에 일련번호처럼 연도를 붙이도록 설계된 공식 이름은 빠르게 정착하였다.

각국이 WHO가 지은 '코비드-19'를 사용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영어 이름과 다른 '갈라파고스식' 병명을 채택하여 2020년 2월 12일 정부는 코비드-19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명명하고 '코로나19'를 약칭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 MERS-CoVKORKNIH002_05_2015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K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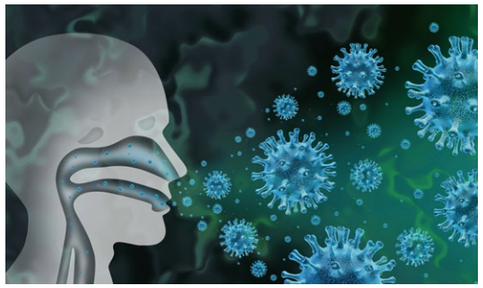
정의

코로나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법정 감염병(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U07.1)으로 분류된다. 병원체인 SARS-CoV-2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2020년 12월 12일 최초 보고에 따르면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하였다. 2020년 10월 6일, WHO는 무증상 감염자 같은 곳곳에 숨은 전파자를 감안하면, 실제 통계치보다 20배 이상 많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약 7억 8,000만 명)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전파 경로 주요 증상

전파 경로는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침방울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으로써 전염된다. 잠복기는 1~14일 (평균 4~7일)이다.

주요 증상으로 발열(37.5도 이상),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에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메슥거림, 근육통, 설사 등도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미각, 후각 상실 증상과 함께 드물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보고되었다. 2020년 2월 1일 WHO는 무증상 감염 사례를 재차 밝혔으며 2월 2일엔 보건복지부도 무증상, 경증환자에게서 감염증이 전파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치명률은 약 3.4%(국가·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로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지닌 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사 진단법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선별진료소 신고, 검체 채취, 검사를 거쳐 음성, 양성여부를 확진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검사 안내'에 따르면, 검체 채취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에 의해 상기도(코와 입, 기도 등) 및 하기도(폐)에서 이루어진다. 검체(가래)는 별도의 통에 담고, 상기도는 비강에 잘 휘어지는 긴 면봉을 삽입해 콧물 등 분비물을 코 뒤쪽 벽에서 채취한다. 사전에 의뢰인과 검사실 사이 협의가 된 경우, 혈청을 채취한다.

모든 검체는 채취 즉시 멸균 용기에 담겨 냉장상태 (2-8℃)에 보관한 상태로 검사실로 신속 수송, 검사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직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판코로나 검사법과 염기서열 분석 방법을 병용하였다. 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활용하던 검사법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판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진단되어도, 그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체를 확보해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로 보내고 여기서 염기서열을 해독하여 중국에서 발표한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교하는 식으로 어떤 종류인지 판단했다. 이렇다 보니 분석에 1-2일이 걸리는 데다 여러 검체의 분석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2020년 1월 13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이 공개한 바이러스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변별력 높은 특정 유전 부위를 증폭하는 검사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1월 31일부터 코로나19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 검사법, 'RT-PCR' 검사법이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됐다. RT-PCR은 기존의 판 코로나 검사와는 달리 코로나19만을 특정 진단할 수 있는 '시약 키트'를 도입한 것이 핵심으로 검사결과를 6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검사법은 2월 7일부터 민간병원에도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2020년 4월 20일 기준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 분류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진단 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2020년 6월 30일(오전 09시 기준) 기준, 전 세계의 전체 확진자 수는 1,041만 2,421명, 전체 사망자 수는 50만 8,228명에 달했다. 전 세계 치사율은 전일 09시 기준 4.98%에서 0.04% 감소하여 4.94%로 나타났다. 감염자 수로는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의 6배 이상이며 치명률로는 신종플루의 치명률(0.3%)보다 9배나 높은 위험한 수치이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달라졌다. 일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방위적 영향을 끼치며 인류를 위협하는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대유행까지 그 경과와 현황을 살펴본다.

6월 30일 코비드-19 누적 발생 18만 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표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미국	2,586,844	42,675	126,123	355	4.9	786.0
브라질	1,368,195	24,052	58,314	692	4.3	644.2
러시아	641,156	6,719	9,166	93	1.4	445.6
인도	548,318	19,459	16,475	380	3.0	40.1
영국	311,965	814	43,575	25	14.0	465.6
페루	282,365	2,946	9,504	187	3.4	858.3
칠레	275,999	4,017	5,575	66	2.0	1473.6
스페인	248,970	200	28,346	3	11.4	536.6
이탈리아	240,436	126	34,744	6	14.5	406.1
이란	225,205	2,536	10,670	162	4.7	272.0
멕시코	220,657	3,805	27,121	473	12.3	166.8
파키스탄	206,512	3,557	4,167	49	2.0	100.9
터키	198,613	1,374	5,115	18	2.6	239.3
독일	195,042	349	8,976	8	4.6	236.7
사우디아라비아	186,436	3,943	1,599	48	0.9	546.7
방글라데시	137,787	3,809	1,738	43	1.3	85.4
중국	83,531	19	4,634	0	5.5	5.9
인도네시아	54,010	1,198	2,754	34	5.1	20.0
싱가포르	43,661	202	26	0	0.1	740.0
필리핀	35,455	652	1,244	8	3.5	32.8
카자흐스탄	21,327	547	183	10	0.9	114.7
일본	18,593	117	972	0	5.2	14.7
말레이시아	8,634	18	121	0	1.4	26.6
태국	3,169	7	58	0	1.8	4.6
베트남	355	0	0	0	0.0	0.4
대한민국	12,800	43	282	0	2.2	24.7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중국서 최초 발생, 해외 전파 시작

2019년 말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와 폐 질환을 동반했다. 우한시 질병통제센터를 비롯한 중국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도 발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사람 간 전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환자가 속출하자 "사스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도축 야생동물로부터 나온 바이러스가 원인이다"라는 등 갖가지 소문이 분분한 가운데 중국 내에서의 불안감은 높아져갔다.

공식적으로 중국 첫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2019년 12월 1일이다. 발생 초기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화난수산시장 근로자에게서 12월 12일 최초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우한시 진인탄 병원 의료진 등이 포함된 연구팀은 2020년 1월 24일 영국 의료 학술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서 첫 감염자를 2019년 12월 1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2019년 12월 30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원인 미상의 폐렴 치료에 관한 긴급 공지'를 발표하였고 12월 31일, 27명의 원인 미상 폐렴 발병 사실이 WHO(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됐다. 대부분은 우한 수산물 시장의 상인들로 7명이 생명이 위중한 중태로 알려졌다. 폐렴 환자 발생이 계속되자 2020년 1월 2일 중국은 화난수산시장을 폐쇄했다. 1월 9일발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결론지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정부는 입국자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2020년 1월 10일,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1월 12일, 광둥성 선전에서도 중증 폐렴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MRC 연구팀은 이날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가 공식 발표보다 40배 정도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0년 1월 13일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푸단대학교를 통해 입수한 우한시 집단 폐렴 원인 병원체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병원체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병원체로 지목된 박쥐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약 89% 유사한 성질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명을 통해 "폐렴 발병이 화난수산시장 한 곳에 국한돼 있으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들의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사람 간 전염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WHO는 사이트 게재 성명에서 "중국에 이어 태국에서도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5일, 일본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우한시를 방문했던 가나가와현 거주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서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20년 1월 17일,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대학 그룹은 태국과 일본으로의 초기 확산 패턴에 근거해 1월 12일까지 초기

증상 발현을 포함하여 1,723건의 감염 사례(95% 신뢰 수준, 427-4,417)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하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20년 1월 22일, 오후 10시 기준 중국 후베이성의 감염자는 약 444명,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났으며, 중국 전역에서 감염자는 540명을 넘어섰다. 미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2020년 1월 23일, 각국 질병 연구기관이 확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650건으로, 중국 본토에서 633명, 태국 4명, 홍콩, 한국 4명, 마카오와 베트남이 각각 2명, 미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가 각각 1명이었다. 2020년 1월 20일, 하루 만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수가 100명을 넘겼다. 대한민국에서는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했다. 환자는 30대 중국 국적 여성으로 우한에서 감염되어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어 이날까지 중국에서 총 641명이 감염되고 이 중 17명이 사망하였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시 내의 모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며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선박, 지하철, 장거리 버스 운행 등도 잠정 중단하는 우한 봉쇄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으로 퍼진 상황이었고 해외 전염까지 다수 발생한 뒤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만 크게 유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 간 전염 증거가 없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고 대다수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가벼운 증상만을 유발한다며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 중국에선 총 910명이 감염되어 이 가운데 26명이 사망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외에 후베이성 다른 7곳의 도시에 추가로 여행금지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봉쇄했다.

2020년 1월 24일, 중국 춘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 2020년 1월 25일 우리 외교부는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적색경보)로 변경했고, 미국 정부는 약 230명 정원의 전세기를 동원해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에 파견된 외교관들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영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급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올렸다.

2020년 1월 28일, 일본에서 우한 체류 이력이 없고 단지 일본에 온 여행객을 두 차례 버스에 태운 관광버스 기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020년 1월 29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0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30일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완전히 퍼진 것이다. WHO는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2020년 2월 1일 중국 확진 환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2월 3일엔 하루 2,000명이 발병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2월 11일까지 중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4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2월 13일에는 중국 정부가 임상진단 환자까지 포함하면서 확진 환자가 전날 대비의 약 9배로 폭증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본, 대만, 마카오,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2월 말경부터 이란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3월 11일 기준, 전 세계 114개국에서 11만 8,000여 명의 확진 환자와 4,290여 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 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 3월 11일 WHO는 사상 3번째 팬데믹을 선포하게 된다.

코로나19 세계 확산 일지

2019.12

12월 27일 중국 후베이성 의사 장지셴, 중국 보건당국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보고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

2020.01

1월 9일 중국, 정체불명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잠정 판정

1월 11일 중국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

1월 15일 일본서 첫 확진자 확인

1월 20일 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

1월 22일 미국 첫 확진자 발생

1월 23일 중국, 우한 긴급 봉쇄

1월 31일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중국 내 확진자 1만 명 육박

2020.02

2월 11일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로 결정

2월 29일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2020.03

3월 11일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월 26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2만 명 넘어

3월 27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코로나19 확진

2020.04

4월 2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00만 명 넘어

4월 15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00만 명 넘어

2020.05

5월 20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500만 명 넘어

2020.06

6월 28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000만 명 넘어

6월 30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041만 2,421명 (09시 기준)

환자 최다 발생국 미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미국에서 첫 감염환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21일이다. 첫 감염환자는 1월 1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워싱턴주 시택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이었고 그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총 33명이 방역당국의 감시대상이 되었다. 사흘 뒤인 1월 2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미국 내 두 번째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1월 25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에 머물던 우한시 출신 관광객이 세 번째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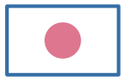
미국의 초기 확진 환자는 대부분 중국 우한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확진자 외에 감염 의심자에 대한 보고도 계속됐다. 한 해 중국 우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 수는 6만 명에서 6만 5,000명으로, 월별로는 1월 입국자 수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뉴욕시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중국 춘절 기간을 앞두고 입국 승객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을 검사하기로 했다. 미국 내 감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도 입국자 대상 모니터링을 개시했다.



2020년 2월 29일 미국 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워싱턴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2020년 3월 5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3월 21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5,010명이 늘어 1만 9,375명으로 집계되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최대 증가 폭이었다.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미국 신규 확진자가 중국의 최고 기록보다 많을 만큼 미국의 환자 증가세는 심각했다. 2020년 4월 27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5월 들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6월에는 미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다. 6월 15일에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11만 6,000명을 돌파해 제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6월 19일에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

올림픽 연기한 일본



2020년 1월 16일 일본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첫 환자로 확진된 이래 지바현, 교토부 등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한다. 2020년 2월 12일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검역을 했던 검역관 남성 1명의 감염이 확인되었고 이후 크루즈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이 집단으로 감염된 것이 확인된다. 2월 26일 선내 확진자는 총 705명에 이르렀다. 2월 19일~27일 승객의 하선이 이루어졌으며 3월 1일 탑승자 전원이 하선하여 선박 내에서의 상황은 마무리되었으나, 하선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타나며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2020년 2월 27일, 아베 총리는 긴급하게 4월까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학교의 휴업을 결정했다. 2월 13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어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검사 횟수가 지나치게 적어 일본 내에서도 실제 감염자는 10배가량 될 것이라고 추산됐다. 그러나 3월 초 일본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면 병원이 꽉 차서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가운데 위기감도 크게 낮아졌다.

2020년 3월 17일까지도 아베 신조 총리는 7월의 2020도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호언장담했으며 3월 21일부터 시작된 성화 봉송식, 3월 20일~22일 춘분 3일 연휴에도 많은 인파가 쏠렸다. 결국 3월 말경부터 도쿄를 비롯해 일본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71명으로 최다 확진자를 갱신한 이후 일본은 도쿄올림픽의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잠시 감소하기도 했으나 3월 27일 100명, 4월 3일 300명, 4월 8일에는 500명 이상으로까지 늘어났다. 2020년 4월 초 연일 사회 곳곳에서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으며 4월 6일부터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한달 간의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2020년 4월 19일 일본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 1만 1,145명과 237명으로 한국의 확진자 1만 661명, 사망자 234명을 뛰어넘었으며, 통계상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는 1.35배를 넘어섰다.

유럽



발생 초기 엄청난 확산세를 보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발생 초기 방역 걸림돌로 작용하며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높은 감염률을 이어갔다.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 2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초기에 강력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3월 초 롬바르디아 주가 의료 붕괴상태에 빠졌다. 2020년 3월 11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중국 다음으로 많은 발생자 수를 기록하였다. 3월 12일~14일 3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하루 2,000명씩 늘어나고 15일~18일에는 하루 3,000-4,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태 초기의 중국을 방불케 하는 빠른 확진세를 보였다.

이탈리아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 중국 후베이성처럼, 환자가 다수 발견된 북부 지역의 봉쇄령을 선포했다가 2020년 3월 9일부터는 국가 차원의 봉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대응에도 이탈리아는 하루 확진자가 6,000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 WHO는 2020년 3월 26일 일주일 내 이탈리아 내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뒤에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대로 4월 중순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2020년 3월 25일 9.86%를 기록한 이탈리아의 잠정 치사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4월 25일에는 잠정 치사율 13.46%를 기록했다. 이는 프랑스, 벨기에, 영국에 이은 전 세계 4위에 해당한다.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의 잠정 치사율은 이들 4개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4월 28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나마 5월 들어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대 이하로 떨어졌지만 8월 2차 대유행이 전망되었다.

유럽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어 코로나19 유행을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2020년 2월 21일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다수의 확진자가 발견된 것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3월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빨라지기 시작해, 3월 첫 주 동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차례로 확진자 1,000명을 돌파하고 유럽 확진자 수가 동남아시아를 추월하는 등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봉쇄령을 내린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 독일, 체코 등 대부분 국가가 휴교령과 행사 및 모임 제재를 동반한 긴급대응 체제에 들어갔으며 네덜란드, 헝가리, 스페인 등 일부는 아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확산 제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020년 3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 전 유럽 대륙에서 순식간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대대적인 통제에 나서면서 유럽 전체가 멈춰섰다. 유럽의 확진자 폭증은 셍겐 조약으로 국경이 개방되어 있어 한 국가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쉽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서로의 신체를 접촉하는 스킨십 문화, 평상시 마스크를 착용을 꺼리는 문화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전 세계적으로는 4월 2일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월 15일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어 5월 20일에는 500만 명을 넘어서며 불과 50일 만에 확진자 수가 5배 수준 급증했고 한 달여 만인 6월 28일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가 새로운 감염병의 공포에 휩싸였다.

세계보건기구(WTO) 코로나19 대응 일지

- 2019. 12. 31.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의 폐렴 사례 보고. 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인
- 2020. 1. 1. WHO 본부와 지역 사무국, 국가 차원에서 IMST(Incident Management Support Team) 출범. IMST 긴급상태 돌입
- 2020. 1. 4. WHO,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베이성 우한시의 폐렴 사례 발생 및 사망 사례 없다고 보도
- 2020. 1. 12. 중국, 코로나19 게놈 서열 공유
- 2020. 1. 30. 2019-nCoV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이는 2005년 IHR 발효 이후 WHO의 6번째 PHEIC 선포임
- 2020. 3. 11. WHO,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와 심각성, 대책이 없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대유행) 선언
- 2020. 3. 13. 코로나19 연대대응기금(Solidarity Response Fund) 출범, 개인과 회사, 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접수
- 2020. 3. 18. WHO 및 협력 파트너, 세계 각지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해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국제 임상시험 '연대 실험'(Solidarity Trial) 출범

2 코로나19 국내 확산 및 정부의 대응

❶ 정부의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코로나19 컨트롤 타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 대한민국의 성공 방역은 정부의 철통같은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가 있어 가능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확립은 2015년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시 컨트롤 타워 부재로 겪은 방역 혼란의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를 목표로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의 해소를 중점 운영목표로 두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대국민 소통을 책임질 위기소통담당관과 긴급상황센터를 신설했다. 그 아래 위기대응총괄과를 비롯해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자원관리과, 생물테러대응과를 두었다. 아울러 유사시에는 긴급상황센터가 야전을 지휘하고 기존의 감염병관리센터가 긴급상황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었다.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질병관리본부 내 기존 건물에 임시 긴급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동시에 국가 긴급상황실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19년 질병관리본부는 긴급상황실 구축 및 업무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기존 위기대응총괄과와 생물테러대응과를 각각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와 신종감염병대응과로 변경, 각각을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총괄부서,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전담부서로 기능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관리센터 산하에 있던 검역지원과를 긴급상황센터 소관으로 변경해, 메르스 등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했다.

2020년 9월 11일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질병관리청의 긴급상황실은 평시엔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 감염병 위험분석, 관계기관·지자체 정보 공유 및 상시 연락체계 유지, 지자체·의료기관 신종 감염병 초동 대응 상황 관리 지원, 감염병 위기상황 훈련 업무를 수행하다 위기 발생 시 확대 가동된다. 또한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 등의 신종 감염병 확진환자 발생시,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시, 원인불명 감염병이 발생하여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난·군중행사 대응 시, 국내 감염병 유행 확산 시 자체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자체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발령되며 단계별 위기 유형과 대응 활동은 다음과 같다.

관심(Blue)-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시 발령되며 주요 대응 활동은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필요 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이다.

주의(Yellow)-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시 발령되며 주요 대응 활동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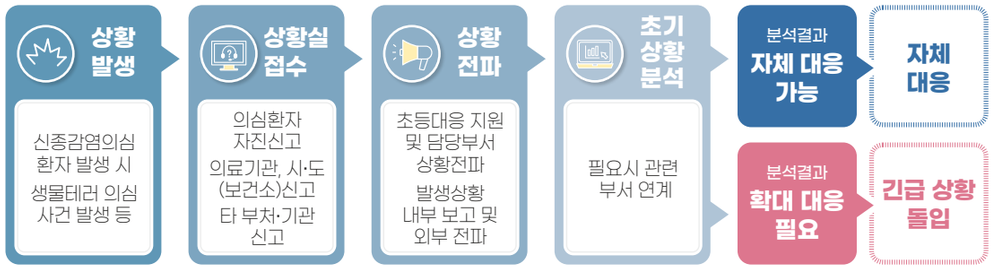
경계(Orange)-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시 발령되며 주요 대응 활동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복건복지부) 설치·운영,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이다.

심각(Red)-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시 발령되며 주요 대응 활동은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와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주요 대응 활동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 운영 ▶ 국외 환자 유입차단, 검역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지자체) 발생 및 인접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 방역대책반 운영**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 운영** ▶ 검역강화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지자체) 발생지역 시 도 및 관할 시 군 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 전국 모든 시 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긴급상황실의 신종 감염병 긴급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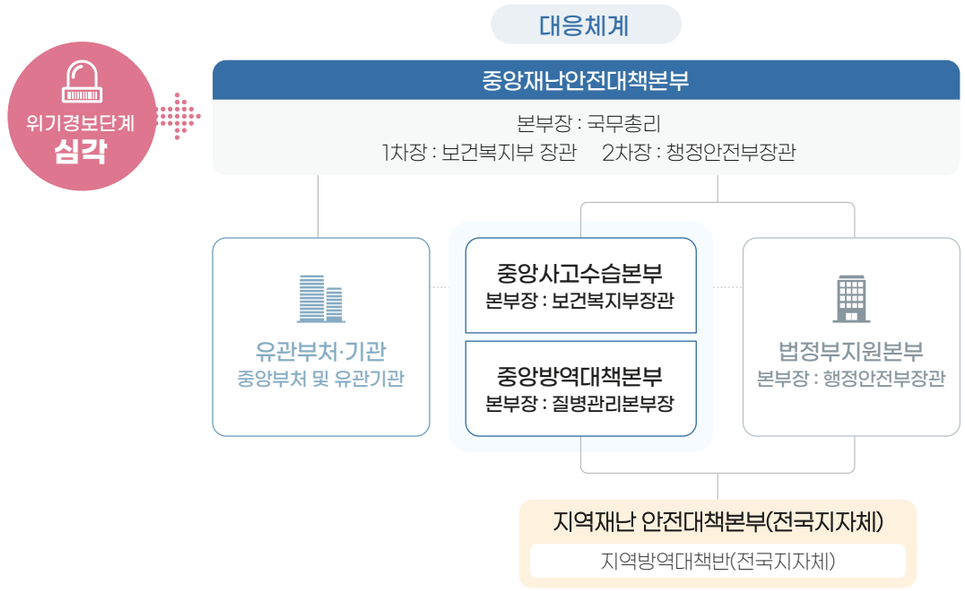


코로나19 심각단계 대응 체계 확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범정부적 코로나19 방역에 돌입했다.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체계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 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기관리체계 종합체계도



② 정부의 초기 대응 : 관심/주의 단계

2020년 1월 3일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7명의 원인 미상 폐렴 발병 사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직후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출입국자 관리를 강화했다. 우한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했으며 우한시 방문, 체류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격리조치 후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중국 보건당국 및 WHO와 협력체계를 가동해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하며 중국의 조사결과 및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2020년 1월 8일 국내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 36세 여성 1명이었다.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20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2020년 1월 7일 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었다. 화난수산시장 방문과 야생동물 접촉 이력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유증상자와 접촉한 29명을 역학조사하고 모니터링했다. 1월 11일 이 유증상자의 PCR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접촉자 모니터링도 종료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첫 유증상자가 나온 2020년 1월 8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 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로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 감시체계도 가동을 시작했다. 우한시 원인 불명 폐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전체 의사에게 중국 유행상황,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내원 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 환자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외 동향 및 국내 유증상자 발생, 진단 및 검역 등 대응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예방수칙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0년 1월 13일 질병관리본부는 WHO가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함에 따라,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초기 분석결과 박쥐 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스 바이러스와의 직접적 연관성 및 독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바이러스 분류, 감염력,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며 추가분석과 검사법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구축될 검사법은 의심환자에게 적용된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법과 달리 공개 유전자 염기서열을 사용, 편리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6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중국 외 태국, 일본에서 확진되고, WHO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춘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진 것도 간과할 수 없었다.

'우한 폐렴' 국내 감염환자 이동 경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확진 환자로 확정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구성해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 검사,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에 들어갔다.



의심환자 사례 정의를 강화하여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례분류와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설 연휴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가동하며,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하여 지역별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월 23일부터 확진자 발생 안내, 확진자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의심환자 대응방안, 개인위생수칙 및 지침 등을 전달하며 투명한 전염병 정보 공개, 소통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저감시키고 적극적 방역 협력을 이끌었다.

코로나19 관심/주의 단계 국내 대응 일지

- 2020. 1. 3.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구성
- 2020. 1. 8. 국내 첫 유증상자 발생. 1월 11일 유증상자 음성 판정
- 2020. 1. 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입수, 분석
- 2020. 1. 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해 지역사회 대응 강화
- 2020. 1. 20. 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
- 2020. 1. 27. 정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❸ 정부의 경계 단계 대응

2020년 1월 27일 국내에 4명의 확진 환자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1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코로나 대응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 조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배치(2020년 1월 28일)하고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했으며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중심병원으로 기능하여 역학조사 지원 및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방역 집중단계인 경계단계로 돌입하면서 국민 방역 물자인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을 통해 마스크 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진단검사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내 어느 곳에서든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중국 후베이성 발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하고, 중국 전역 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로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2020년 1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대규모 발생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모든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 설치를 요청했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2020년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을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및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았다.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해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 방문·점검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독려하였다.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의 경우 접수 단계,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은 접수·문진 단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는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한 3단계 중복 확인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에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준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더욱 강하게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코로나19 경계 단계 국내 대응 일지

- 2020. 1. 27.
  - 국내 확진 환자 4명 발생
  - 정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2020. 1. 28.
  - 선별진료소 288개 운영 및 명단 공개
  - 정부, 1월 13일~26일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 대상 전수조사 시작
- 2020. 2. 4.
  - 정부,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 중국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 2020. 2. 12.
  - 정부,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 명칭 결정(COVID-19)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명명

❸ 정부의 심각 단계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발생이 매일 1-2명 정도에 그치며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싶던 가운데 2020년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의 감염자 발생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이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2월 20일, 하루 새 확진자 53명이 더 발생했고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21일과 22일에는 하룻밤 새 각각 100명과 229명씩 추가로 발생했다.

2월 21일 대구·경북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 2월 23일,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17일 30명에 불과했던 확진자 수는 10배 이상인 556명으로 폭증했다. 사망자 수도 0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결국 2월 23일부터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단계(방역대응에 총력)로 격상되었고,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드라이스 스루·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마스크 5부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심환자의 진단 검사를 안전하고 신속히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와 같은 다양한 진단검사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의심환자가 확진 여부를 알기 위해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검진·검체 채취·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2020년 2월 23일 경북 칠곡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2020년 2월 26일 마스크 확보를 위한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코로나 확산에 마스크 품귀 대란이 빚어지자 전 국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 제한 조치와 함께 업체에 생산 증대를 독려하는 한편 2020년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1인당 2매씩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작됐다,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공급이 안정되면서 6월 1일 폐지됐다.



어린이집 휴원, 각급 학교 개학 연기



정부는 2020년 2월 24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무기한 휴원을 결정하였고, 초·중·고등학교는 3월 9일 개학 일정을 4월 6일로 연장 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였다. 5월 13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 등교가 시작됐다.

해외 입국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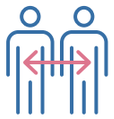
정부는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시켰다. 유럽지역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여파로 3월 15일부터는 유럽 5개국의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였고 3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2주간 자가격리도 의무화하였다. 이어 3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였고 4월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입국자를 통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외입국자만 탑승할 수 있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도입해 감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내 유입 인원과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였다.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운영



2020년 3월 2일 정부는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 지원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2020년 3월 2일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 처음 개설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20년 6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일'에 따르면 운영 100일 동안 총 29개 생활치료센터에 4,915명 환자가 입소했고, 이들 중 80.5%에 해당하는 3,955명이 완치 후 격리 해제됐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8,271명 가운데 40.9%인 3,391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과 국내에서의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이 지속되자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정부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들어갔다.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행동수칙으로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등이 권고됐다.

15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도 상황은 여전히 엄중했다. 2020년 4월 2일 하루 미국에서는 2만 7,107명의 확진자와 947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9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었다. 해외유입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 4월 6일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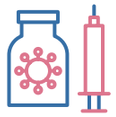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갔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일정 정도 진정되면서 정부는 4월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완화하는 대신 기간은 5월 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5월 5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다. 6월 28일에는 거리 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되, 코로나 19 유행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 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종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 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종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검사법, 치료제, 백신 개발



2020년 4월 9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여러 사람의 검체를 취합 한 번에 검사함으로써, 감염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취합검사법(Pooling) 프로토콜을 제작 완료하였다.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 검사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원자 등 감염 위험군에서 감염 선별에 유용하다.

2020년 4월 17일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했다. 실무추진단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상황 분석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0년 4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해 산·학·연·병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치료제·백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치료제 연구 20여 종 및 다양한 백신 후보물질 개발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국내 대응 일지

- 2020. 2. 18. 대구 신천지교회 감염자 발생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 시작
- 2020. 2. 21.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 2020. 2. 23. 정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 2020. 2. 24.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실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일주일 연기
- 2020. 2. 26. 국내 누적 확진자 1,146명으로 1,000명대 진입.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 시행
- 2020. 3. 3. 국내 누적 확진자 5,186명으로 5,000명대 진입
- 2020. 3. 9. 마스크 5부제 실시
- 2020. 3. 15.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2020. 3. 22.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작.
  유럽발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화,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2020. 3. 27.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2020. 4. 1.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2020. 4. 3. 국내 누적 확진자 1만 62명으로, 1만 명대 진입
- 2020. 4. 4.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발표
- 2020. 4. 13. 미국발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화
- 2020. 4. 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완화해 5월 5일까지 연장 발표
- 2020. 4. 24.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가동
- 2020. 4. 27.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 도입
- 2020. 5. 5.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종료(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 2020. 5. 13.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 등교 시작
- 2020. 5. 26. 버스·택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2020. 6. 1. 마스크 5부제 폐지
- 2020. 6. 10. 고위험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행
- 2020. 6. 28. 거리 두기 명칭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
  코로나19 유행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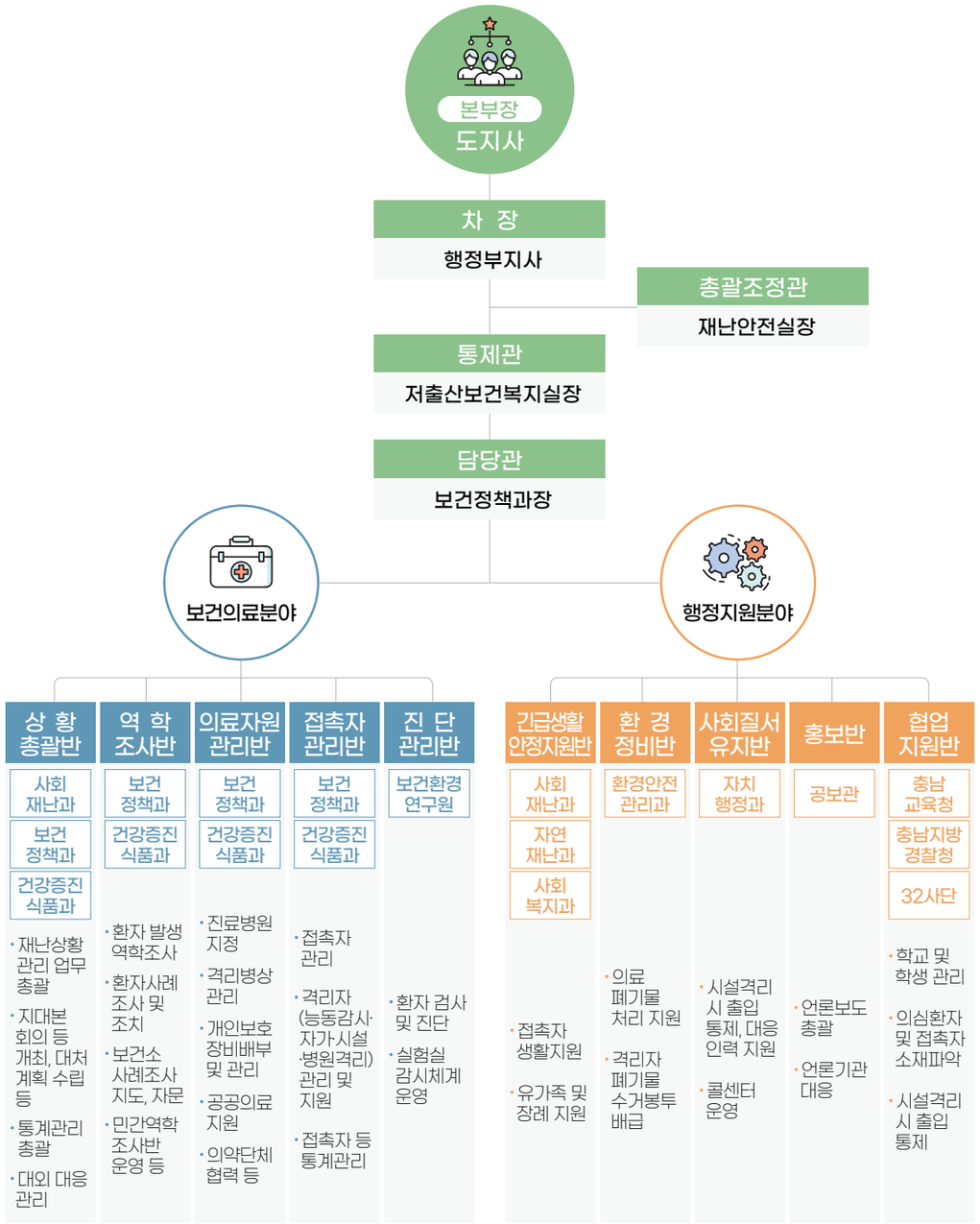
3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체계

❶ 충남도의 대응조직 체계

국내에서 발생하고 확진자가 6명에 이른 2020년 1월 27일 지역에서는 중국 우한 교민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 19의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시켰다. 충남도도 2020년 1월 31일 오전 9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충청남도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키고 본격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차장, 재난안전실장과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각각 맡았다. 보건정책과장이 담당관을 맡고 그 아래 보건의료 분야, 행정지원 분야별 10개 실무반을 두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월 31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10개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역학조사반, 의료자원관리반, 접촉자관리반, 진단관리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사회질서유지반, 홍보반, 협업지원반으로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및 임무



구 분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 장	○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실무반	보건의료분야	
	상황총괄반 (사회재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재난상황 관리 업무 총괄 ○ 상황판단회의, 지대본회의 등 개최, 대처계획 수립 보고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 처리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통계관리 총괄, 대외(의회 등) 대응 관리, 환자 상담 및 정보 제공
	역학조사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환자 발생 역학조사 ○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 환자사례조사 및 조치 ○ 보건소 사례조사 지도, 자문 ○ 민간역학조사반 운영, 시 군 역학조사 지원
	의료자원관리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진료병원 지정, 격리병상 관리 ○ 개인보호장비배부 및 관리 ○ 공공의료 지원 ○ 의약단체 협력, 의료기관 정보제공
	접촉자관리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접촉자 관리 ○ 격리자(능동감시·자가·시설·병원격리) 관리 및 지원 ○ 접촉자 등 통계관리
	진단관리반 (보건환경연구원)	○ 환자 검사 및 진단 ○ 실험실감시체계 운영 ○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관리
	행정지원분야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사회복지과)	○ 접촉자(자택격리자) 생활지원 ○ 유가족 지원 및 장례비 지원 ○ 피해보상 접수 및 지원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환경정비반 (환경안전관리과)	○ 의료폐기물 처리 지원체계 가동 ○ 격리자 폐기물 수거봉투 배급
	사회질서유지반 (자치행정과)	○ 시설격리 시 출입통제 대응인력 지원 ○ 콜센터 운영 ○ 의심환자 및 접촉자 소재파악 협조
	홍보반 (공보관)	○ 언론보도 총괄 ○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등 언론기관 대응
	협업지원반	○ 유관기관 협업추진(교육청, 경찰청, 32사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물 샐 틈 없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32사단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이루었다.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학생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 학교 소독과 손소독제 등 방역 용품을 비치 및 예방 수칙 안내를, 충남지방경찰청은 의심환자 및 접촉자의 소재 파악에 협조하며, 시설 격리시 출입통제 임무를, 32사단은 시설 격리 시 출입 통제와 함께 필요시 격리시설 주변지역의 제독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각 실, 국에도 실무반별 상황근무자 편성 운영 등을 협조 요청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무반별 상황근무자 편성	• 상황총괄반-보건정책과, 사회재난과, 건강증진식품과 • 역학조사반-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의료자원관리반-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접촉자관리반-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진단관리반-보건환경연구원 • 긴급생활안정지원반-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사회복지과 • 환경정비반-환경안전관리과 • 사회질서유지반-자치행정과 • 홍보반-공보관실
여성가족정책관	• 시·군 외국인 환자 발생시 통역 인력지원 • 중국방문 입국자 특별관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예방홍보 강화
기획조정실	• 방역 및 보호물품 구입 예비비 예산 지원 • 도내 대학 외국유학생 본국 방문 이력 확인 및 예방수칙 안내
경제실	• 외국인 근로자 및 근로자지원센터 중국 출입국 확인 및 예방수칙 안내
자치행정국	• 지역사회 확산시 대응인력 지원(임시생활시설 지정관련 현장 행정지원) • 상황실 근무자 복무 복지, 운영물품 지원
공동체지원국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필요시)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숙박업소, 관광안내소 예방 수칙 안내 및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농림축산국	• 농업종사 외국인 근로자 중국 출입국 확인 및 예방수칙 안내
건설교통국	• 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집합장소 예방활동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중국 출입국 확인 및 예방수칙 안내
해양수산국	• 여객 및 승무원 자체 체온측정으로 발열자 선내 격리조치 • 어업종사 외국인 근로자 중국 출입국 확인 및 예방수칙 안내 • 모든 선박에 예방행동 수칙 및 위기대응 필요사항 지속 전파
소방본부	• 지역사회 확산 시 보건소 환자 및 검체 이송 협조 • 보건소 구급차 부족 시 119 차량 투입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밖에 각 시·군과 공조, 실시간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경찰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근무하고 대책본부회의 개최를 통해 각 시·군의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협의를 통해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충남도의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체계

주의 → 관심 단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충남도도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2020년 1월 17일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대책반은 총괄팀, 역학조사팀, 의료자원관리팀, 진단관리팀, 접촉자관리팀 등 5개 팀, 27명으로 구성됐다.

총괄팀은 환자 관리와 지역별 대응책 마련과 환자 상담·홍보 등을 수행하고 역학조사팀은 역학조사, 발생 감시, 환자 사례조사 및 조치를 담당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효율적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 대책반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내려갈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외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에 대한 안내도 실시했다. 아울러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진료 시 해외여행 이력 알리기 등 예방 행동수칙을 적극 홍보하며 지역민들에게 철저한 준수를 당부, 지역민이 능동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경계 단계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1월 27일 확진 환자가 6명에 이르자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다. 충남도도 주의/관심 단계에서 구성 운영해오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을 1월 31일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키고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차장, 재난안전실장이 총괄조정관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통제관을 맡았으며 보건정책과장이 담당관을 맡고 그 아래 보건의료 분야에 상황총괄반·역학조사반·의료자원관리반·접촉자관리반·진단관리반, 행정지원 분야에 긴급생활안정지원반과·환경정비반·사회질서유지반·홍보반·협업지원반, 총 10개 실무반을 두었다. 10개 실무반은 상황 종료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상황 총괄하며 사고수습체계 구축, 도내 시·군 및 군·경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계 가동, 의료·자원 관리, 생활 안정 지원, 언론 대응 등을 수행하며 상황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연계해 15개 시·군, 81개 팀, 517명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했다. 충남도 역학조사반은 1월 6일부터 2개 팀, 15명으로 확대했으며 15개 시·군에도 29개 팀, 141명을 구성했다.



심각 단계



정부는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감염자 발생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이 시작된 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2월 21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월 23일에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

충남도는 이미 1월 31일부터 심각 단계에 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데 이어 단계별 대응조치 계획도 마련했다. 1단계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단국대병원 7병상을 활용하며, 2단계에는 도내 4개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을 함께 활용해 32실, 36병상을 확보하고, 109명의 의료진이 이에 대응하도록 했다. 3단계에는 4개 지방의료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대처하고, 대규모 접촉자 발생 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확보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11일 충남도내 곳곳으로 코로나19가 전파돼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도 비상방역대책반(74명), 15개 시·군 방역대책반 81개 팀(517명), 도 비상방역대책상황실 5개 팀(41명), 도 천안사무소 3개 팀(32명)이 지역 내 방역을 지원하는 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COVID-19

제2장 충남도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도적 대응 및 방역대책



Part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1 아산 임시생활시설 운영 타임라인(세부 일지)
2 '배려와 나눔의 시민정신' 감동의 사례
3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결정과 주민 반발
4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합의 및 사회적 협력
5 충남도 총력 관리 및 대응
6 우한 귀국 교민 격리 해제 및 귀가
7 종합 평가

Part 2 방역 대책 및 대응 활동

1 국내 환자 대응
2 해외 입국자 및 외국인 대응
3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관리
4 격리 대상자 관리
5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이송
6 진료 병상운영 및 관리
7 예방 방역활동
8 방역 물품 관리

Part 3 재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정책

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4 수출 위기극복협의회 운영 등 수출 지원
5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재정 지원

Part 4 민간의 협력과 지원

1 자원봉사
2 기부 및 후원

2020년 1월 19일. 중국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하는 교민의 아산 수용이 결정됐다. 코로나19 확산이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도지사는 계란 세례를 맞으면 주민들을 설득했고 아산의 어머니들은 'We are Asan' 캠페인으로 시민의식을 일깨웠다.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 기적처럼 하루 만에 '수용'이라는 주민 합의가 이뤄졌다.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은 위기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 건의 등 한발 앞서, 강력하게 그리고 촘촘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전 면에서 쉼 없이 나아가고 있다.

Part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1. 갈등과 위기를 협력과 상생으로 극복하다

아산 임시생활시설 운영 타임라인(세부 일지)













01. 29

- 임시수용시설 아산 결정 정부 발표
- 충남도 정부 방침 수용 및 아산 현장점검
- 아산주민 반발
  ('아산 격리수용 계획 철회' 청와대 청원 글 게시)
- 아산 초사 2통 주민 트랙터 등 동원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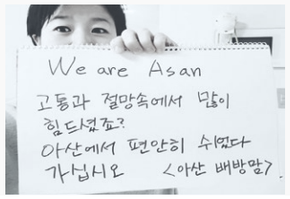




We are Asan

01. 30

- 양승조 충남도지사 - 아산 주민과의 간담회
- 아산시민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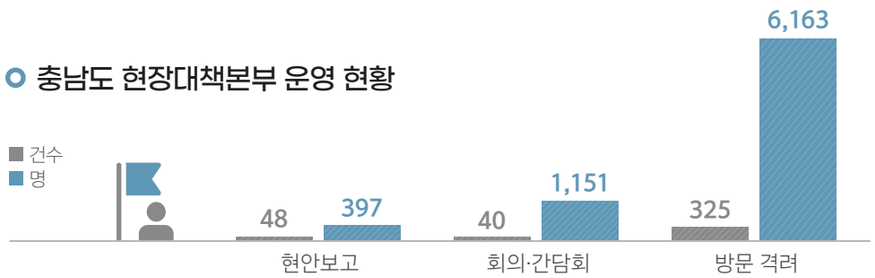


01. 31

- 도지사-아산 주민간담회 이후
  아산시민 정부 방침 수용
- 우한 교민 1차 입소(194명)
- 아산에 도지사 집무실·
  현장대책본부·임시 숙소 설치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현황



※ 도지사 전자결재 및 메모 보고 처리 : 247건

02. 01

- 우한 교민 2차 입소(327명)

02. 02

- 우한 교민 3차 입소(7명)
- 임시생활시설 확진자 1명 발생
- 각계 인사, 단체 등 아산 격려 방문 릴레이
- 도지사-아산시장 코로나 대응 협의



02. 03

- 민갑룡 경찰청장 임시 수용시설 방문 격려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우리가 아산이다' 플래카드 퍼포먼스
- 충남도 실국원장 회의(현장본부)







02. 04

- 충남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
- 충남경제상황점검회의(현장본부)







02. 05

- 아산 미술학원 원생들 손편지 100통과 종이학 등 격리 교민에 전달
- 코로나19 기관별 대응상황 관리회의
- 한국방역협회 충남지부 방역단 발대식 (현장본부)







02. 06

- 아산시 '함께해요 아산, 힘내세요 대한민국' 릴레이 캠페인 전개
- 대한치과의사협회·농협중앙회·대한적십자사 등 도지사 접견(집무실)

02. 07

- 현장대책본부 운영상황기자간담회
- 충남도 시·군 환경부서장회의(현장본부)



02. 08

- 도지사-천안푸른산악회와의 대화
- '서천 더위드' 봉사단 등 접견(집무실)





02. 09

- 문재인 대통령 임시생활시설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 간담회

02. 10

- 충남도 실국원장회의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제침체 대책회의(현장본부)
- 허태정 대전시장 접견(집무실)



02. 11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장간담회

02. 12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현장본부)

02. 13

- 도지사 중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 기자회견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정기총회(현장본부)





02. 14

- 도지사 임시생활시설 근무 경찰관 위문



02. 16

- 임시생활시설 2차 귀국민 퇴소(334명)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격려 방문













02. 15

- 임시생활시설 1차 귀국민 퇴소(1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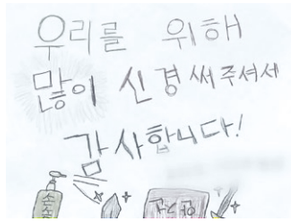






02. 17

- 경찰인재개발원 및 정부합동지원단 85명 퇴소
- 코로나19 예방 물품 전달식(마스크 1만개)





0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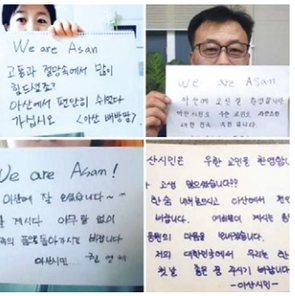
- 도지사-초사2통 마을주민 오찬 간담회
- 현장집무실·현장대책본부·임시숙소 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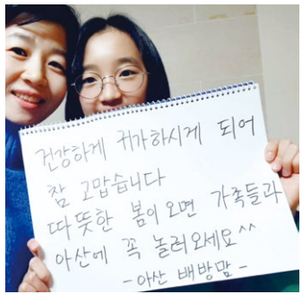


Part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배려와 나눔의 시민정신' 감동의 사례







2-1 아산 주민공동체 '누리보듬' 마스크 기부 캠페인

국민에 잔잔한 감동 선사한 손피켓 릴레이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SNS 손피켓 캠페인은 포용과 화합의 시민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2020년 1월 29일 정부가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지정하자, 임시수용시설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 가운데 아산시민들 사이에서 우한 귀국 교민을 따뜻하게 포용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아산 배방맘'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아산 배방맘'이라고 쓴 손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했다. 이 캠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산지역은 물론 타 지역으로까지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국민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달했다. "공포를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인 것 같네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지요" 등 수많은 응원 글들이 이어졌고 우한 귀국 교민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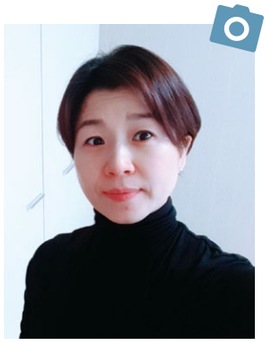
INTERVIEW

응원 글 올린 지 10분 만에 전국 각지로 퍼져

"우한 교민을 환영하는 아산시민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손피켓을 SNS에 올렸는데, 아산은 물론 전국 각지로 엄청나게 퍼져 나가면서 응원 글들이 쇄도해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는 이심전심의 마음이 아산시민과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피켓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엄미영(47·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씨는 우한 교민의 아산 수용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것은 아산 전체의 여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엄미영 씨는 "제 주변에는 우한 교민을 환영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한 교민 중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면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한 교민을 환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손피켓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과 공유를 해주어 감사할 뿐입니다."

손피켓 캠페인 처음 시작한
아산 배방맘
엄미영 씨



"아산이 국민의 성원을 받는 도시로 기억돼 기뻐"

엄미영 씨는 그러면서 "잠시 아산이 국민의 비난을 받았지만,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수용과 무사히 격리 생활을 마친 뒤에는 아산이 국민의 성원을 받는 도시로 각인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보드게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엄미영 씨는 2011년 아산으로 이주했고 아산을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우한 교민이 격리 생활 중간에 확진자로 판정되어 나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했다"는 엄미영 씨는 "입소자 전원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스스로 개인 방역을 잘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면서 모든 국민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 아산 주민공동체 '누리보듬' 마스크 기부 캠페인

'품귀 현상' 속 십시일반으로 마스크 기부 동참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마스크를 내어준 따뜻한 이웃들의 사례도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아산 음봉 포스코아파트단지의 주민공동체인 '누리보듬'(대표자 이지연)과 '포스코봉사단'(대표 이은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벌여 아산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마스크 637개를 우한 귀국 교민과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6월 말까지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고 모두 2,300여 개의 마스크를 기부받아 인근 초등학교와 아동센터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의 온정은 당시 마스크 가격이 1개당 수천 원까지 오르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사용해야 할 마스크를 하나둘씩 모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담겼다. 특히 누리보듬과 포스코봉사단의 회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 기부 사실을 알려오면 가가호호를 일일이 방문해 수거하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의 마스크 기부 캠페인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 간 이어지면서 마스크가 부족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INTERVIEW

동심원이 퍼져 나가듯이 시민들 기부 릴레이

"우한 귀국 교민의 수용 반대로 아산이 '님비(NIMBY)지역'으로 오해받는 것아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생각하던 중 마스크를 모아보자고 생각했는데 주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지연(41·아산시 음봉면) 씨는 "처음에는 잘 모여질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3일 만에 600여 개의 마스크를 기부받게 되어 많이 놀랐다"며 "마스크 기부 캠페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가듯이 이웃들의 참여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온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누리보듬의 마스크 기부 캠페인은 갈수록 확산됐다. "어떤 분은 마스크 1,000개를 구매해 기부해 오기도 했고 6월 말까지 모두 2,300여 개의 마스크를 기부받게 됐다"며 "덕분에 지역 아동센터나 초등학교에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공익 및 봉사활동으로 '우수공동체' 선정

누리보듬은 신천지 사태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라면 등 다량의 생필품을 기부받아 대구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우리 마을 쓰레기 줍기 캠페인, 헌혈 참여 캠페인,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공동구매 운동 등 다양한 공익 및 봉사활동을 벌여왔고 2020년에는 우수공동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지연 씨는 "우한 교민의 상황은 남의 상황이 아니라 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의 상황일 수 있다는 자각을 통해 마스크 기부 캠페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더욱 커져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기부 캠페인 '누리보듬' 대표 이지연 씨







2-3 아산 교민에 응원의 손편지 '감성아이세움 미술학원' 어린이들

고사리손으로 쓴 손편지 교민에 큰 위로

아산지역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응원의 손편지와 종이학은 우한 귀국 교민들에게 훈훈한 위로가 됐다. 아산시 배방읍 소재 감성아이새움 미술학원(원장 김혜경)의 원생들은 2월 5일 우한 교민을 응원하는 손편지 100여 통과 함께 종이학, 그림, 응원 현수막 등을 전달했다. 손편지에는 "아프지 말고 힘내세요", "방에 있는 동안 힘드시죠.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 드릴께요" 등 응원의 글과 "의사 선생님 힘내세요", "경찰관 아저씨도 감염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등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지원단 관계자들에 대한 응원의 글도 담겨 있었다. 대형 도화지를 이어서 만든 현수막에는 '우리는 강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글씨와 함께 어린이들의 다양한 그림으로 가득 채워졌다. 어린이들의 손편지와 종이학 등은 우한 교민들에게 점심 도시락과 함께 전달돼 큰 위로가 됐다.

INTERVIEW

환영과 위로의 마음이 가득 담긴 손편지

"아이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한 교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알고 고민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나가면서 우한 교민에 대해 온정의 마음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김혜경(42·아산시 배방읍) 씨는 우한 교민이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이후 어린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웠다고 한다. 일부 어린이는 우한 교민이 아산에서 격리 생활하는 것에 대해 '싫다'는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김혜정 씨는 고심 끝에 손편지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일부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어요. 우한 교민도 다 같은 국민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 손편지 글을 쓰게 됐는데 처음과는 달리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며 선입감도 바뀌어 갔어요." 어떤 어린이는 스스로 종이학을 만들기도 했고 그림을 더 그리기도 했다. 현수막을 만들 때는 모두가 참여해 그림을 빼곡하게 그려 넣었다.

손편지로 우한 교민 응원한
감성아이세움 미술학원
원장 김혜경 씨



손편지 쓰면서 우한 교민에 대한 선입감도 바껴

김혜경 씨는 어린이들이 쓴 손편지를 우한 교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단지 어린이들이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수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손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SNS에 올렸는데 언론사에 취재가 왔어요. 누군가에게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손편지가 우한 교민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 얼떨떨했습니다. 아이들도 교민들에게 손편지가 전달됐다고 하니까 모두 너무 기뻐했어요. 손편지가 교민들에게 전달되고 작은 위로의 계기가 되어 더없이 행복합니다."





2-4 이동식 화장실 청소 봉사 ‘이앤후레쉬(주)’ 대표 엽성식 씨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하루 4차례 화장실 청소

아산시의 한 시민은 경찰인재개발원 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의 청소 자원봉사를 해 훈훈한 감동을 줬다. 미담의 주인공은 이동식 주택 제작업체인 ‘이앤후레쉬(주)’의 대표 엽성식 씨(60). 엽성식 씨는 임시생활시설의 정부합동지원과 경찰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청소 봉사를 했다.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수용시설 출입이 제한되어 별도의 이동식 화장실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엽성식 씨는 아산시청의 요청으로 이동식 화장실 3동(변기 30개 분량)을 휴일인 2월 1일 긴급 설치한 뒤 정부합동지원단이 철수할 때까지 청소를 도맡아 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출입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엽성식 씨는 매일 하루 4차례 개발원을 찾아 휴지와 비누, 세정제 등 부족한 용품을 채웠고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INTERVIEW

“모두가 힘든 시기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우리 지역의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위기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만족합니다.” 이동식 주택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엽성식 씨(60·아산시 도고면)에게 아산시청에서 긴박하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우한 교민의 1차 입소가 이뤄진 1월 31일이었다. 경비를 맡는 경찰과 정부지원단이 사용할 이동식 화장실을 긴급하게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엽성식 씨는 1월 31일 1개 동을 설치한 데 이어 2월 1일까지 3개 동을 서둘러 설치했다.

문제는 화장실의 유지관리였다. 혹한의 날씨에 동파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고 휴지와 비누, 손소독제 등이 떨어지면 즉시 채워주어야 하는 데다 매일 청소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동식 화장실에 별도의 인력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반인들은 우한 교민이 격리 수용됐다는 사실 만으로 출입을 꺼리는 탓이었다.

자비로 인력 고용해 화장실 수시 관리

“관리한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했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쉽지 않았다. 하루 4차례 사무실과 경찰인재개발원을 오가며 화장실 청소를 했다.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때면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곤 했다. 변기 수가 30개에 달하다 보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며칠 후부터는 자비를 들여 관리인을 고용해 관리에 나섰다. 엽성식 씨 덕분에 정부지원단 관계자들은 늘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우한 교민과 정부지원단 관계자들이 퇴소할 때 저도 모르고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퇴소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국민이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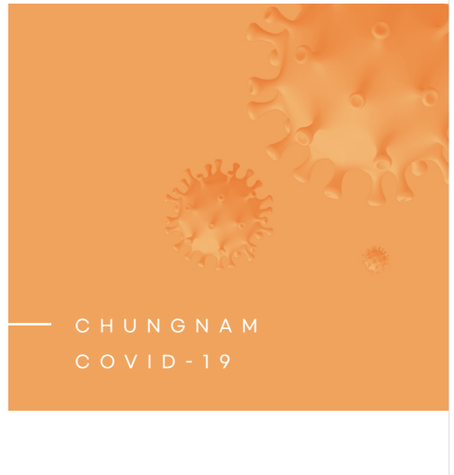
이동식 화장실 청소 봉사
‘이앤후레쉬(주)’
대표 엽성식 씨



Part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3.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결정과 주민 반발





CHUNGNAM
COVID-19

중국 당국의 우한 봉쇄 조치로 교민 및 유학생 고립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첫 발생한 이후 우한시에서의 코로나19 환자는 급속히 증가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집계한 1월 20일 기준, 누적환자는 291명으로 이날을 기점으로 연일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중국 최대 명절 춘제(24~30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점이었다. 춘제 전후 40일간의 특별 수송 기간에 중국 내에서만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하게 되어 춘제를 전후한 대이동 기간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국 보건당국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다급해진 중국 당국은 결국 2020년 1월 23일 우한 봉쇄 조치를 취했다.

우한이 봉쇄되자 한국 교민이나 유학생이 개별적으로 우한을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당시 우한에는 기업 주재원과 개인 사업자, 학생 등 한국 교민 1,000여 명이 머물고 있었고 도시가 봉쇄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일부 교민은 미리 빠져나갔지만 수백 명의 교민이 고립됐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2019

12월 1일 첫 확진 환자 발생

2020

1월 20일 누적 확진 환자 **291**명

1월 20일 누적 확진 환자 **571**명

1월 20일 누적 확진 환자 **830**명, 우한시 봉쇄 조치로 교민·유학생 고립

1월 20일 누적 확진 환자 **7,711**명



정부, 우한 교민 전세기 투입해 국내 이송 방안 추진

정부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을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 4편을 투입해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우한에 거주하면서 기침이나 발열 등 유증상자도 비행기를 분리해 태우는 방법으로 국내로 이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전세 항공기 편에 탑승하는 우한 귀국 교민에 대해 우선 출국 검역을 통해 유무증상자를 가려내고 귀국 직후엔 검역장에서 입국 검역을 하기로 했다. 국내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은 공무원 교육시설 중 2곳을 선정해 무증상자 교민들이 2주간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생활하지만 유증상자는 입국 직후 격리병동으로 이송된다.

정부가 우한 교민을 2주간 격리 수용하기로 한 것은 귀국한 교민이 바로 귀가하게 되면 방역대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일정 시설에서 공동 생활하게 하여 혹시 모르는 추가 감염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정부가 우한 귀국 교민을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국의 어느 지역의 교육시설로 수용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우한 귀국 교민이 특정 지역에 수용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전국의 공무원 교육시설 대상으로 선정작업 착수

정부는 전국의 공무원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임시생활시설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 소속 공무원 교육원·연수원 등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임시생활시설 선정에 앞서 수용 가능성, 의료시설 위치, 주민 이격성, 공항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등 총 7개 항의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큰 문제는 1월 28일 기준 722명에 달하는 우한 귀국 교민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인 1실 생활의 방역 원칙상 귀국 교민 722명 및 시설별 운영인력 40명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면서 교민들이 이용 가능한 식당,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야 했다. 특히 유증상자 발생 및 확진 환자 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접근, 치료가 가능해야 했기에, 주변반경 1시간 이내 종합병원이 위치한 시설이어야 했다. 공항 접근성도 고려되어야 했다. 김포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내 도착 가능한 시설이 필요했다.

가장 큰 고려사항은 주민 이격성이었다. 임시생활시설이 주민 밀집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된 곳을 선정해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했다. 이와 함께 700여 명의 우한 귀국 교민을 수용할 수 있는 단일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2개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해야 했고 이 경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2개의 지역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한 귀국 교민 수용시설 선정기준

수용 가능성

1인1실 생활의 방역 원칙상 귀국 교민 722명 및 시설별 운영인력 40명 등이 생활 할 수 있는 시설 필요(질병관리본부)

* 외교부 당초 협의시 귀국 교민 600여명(1.26.) → 694명(1.27.) → 722명(1.28.)

운영주체

신속한 지정 운영,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 소속 공무원 교육원 연수원 지정 필요

의료시설 위치

유증상자 발생 및 확진 환자 발생 유사시 신속한 접근 및 치료가 가능한 주변반경 1시간 이내 종합병원 위치

주민 이격성

주민 밀집시설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곳

공항 접근성

김포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시설

* 공항탑승객과 분리, 검역 신속성, 주변 유증상자 이송 가능 병원, 대형비행기 활주로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김포공항 이용

생활 편의시설

교민들이 이용 가능한 식당, 편의시설 등 구비

지역 안배

1개 시설 수용이 불가능하여 2개 시설 운영시 지역 형평성을 고려

정부는 이러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우정공무원교육원(충남 천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충남 공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충북 진천), 강화경찰수련원(인천 강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경기 과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 경찰인재개발원(충남 아산),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 등 전국의 8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벌였다.

천안 교육시설 2곳 선정 언론 보도로 천안지역 반발

정부의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소동이 발생했다. 정부가 우한 귀국 교민의 격리수용 장소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1월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우정공무원교육원과 목천읍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곳이 격리수용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천안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격리수용 장소로 보도된 천안 유량동과 목천읍 주민들은 상권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성1동 통장협의회 등 주민들은 우한 교민들 격리시설 사용에 반발하며 30일 오후 2시부터 한달간 우정공무원교육원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28일 천안동남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목천읍 주민들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진입 차단 방안을 논의하며 28일 천안동남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제출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천안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우한 귀국 교민의 천안지역 격리수용 반대를 표명했다.

정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2곳 지정 공식 발표



이처럼 천안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월 29일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2곳을 우한 귀국 교민이 격리 수용될 임시생활시설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우한 귀국 교민 수용시설 선정기준 및 평가 순위

번호	명 칭	국가시설	수용 가능성	의료적 측면	공항 접근성	주민 이격성	생활편의 시설	순위
1	**우정공무원교육원** (충남 천안)	충족	보통 (400실)	우수 (7개)	우수 (112km,1:45분)	우수 (500m)	우수	2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충남 공주)	충족	보통 (225실)	우수 (5개)	우수 (153km,2:15분)	우수 (900m)	우수	2
3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충북 진천)	충족	보통 (212실)	우수 (6개)	우수 (134km,2시간)	우수 (500m)	우수	2
4	**강화경찰수련원** (인천 강화)	충족	부적합 (34실)	우수 (9개)	우수 (36km,45분)	미흡 (66m)	우수	
5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경기 과천)	충족	부적합 (37실)	우수 (12개)	우수 (38km,55분)	우수 (532m)	우수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완주)	충족	보통 (207실)	우수 (7개)	보통 (238km,2:45분)	보통 (283m)	우수	5
7	**경찰인재개발원** (충남 아산)	충족	우수 (638실)	우수 (7개)	우수 (126km,1:40분)	우수 (560m)	우수	1
8	**해양경찰교육원** (전남 여수)	충족	보통 (375실)	우수 (6개)	미흡 (384km,4:25분)	우수 (1.2㎞)	우수	6
	기준	충족 여부	우수 500실이상 보통 499~200실 미흡 199~100실	우수 5곳이상 보통 3곳이상 미흡 없음	우수 2시간이내 보통 2~3시간 미흡 3시간초과	우수 300m초과 보통 300~100m 미흡 100m미만	우수 식당, 체육 시설 등 구비 미흡 1개만 구비	

우한 귀국 교민 수용시설 선정결과

1순위 수용적 측면과 의료시설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찰인재개발원**

2순위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3개소가 비교적 우수하나, 경찰인재개발원이 지정되면 지역 안배성을 고려할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부는 운영 주체, 수용 가능성, 의료시설 위치, 주민 이격성, 공항 접근성, 지역 안배 등의 선정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수용 가능성은 1인 1실 생활 방역 원칙상 귀국 희망 교민 720명과 시설별로 상주할 의료진 등 운영인력 40명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을 고려했다. 1개 시설에서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없어 2개 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2개 지역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증상자 및 확진 환자 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변반경 1시간 이내 종합병원이 위치한 곳을 우선 대상지로 고려했다. 특히 주민 밀집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된 곳이 대상이 됐으며 김포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시설이 우선 검토됐다.

그 결과 수용적 측면과 의료시설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1순위로 꼽혔다.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3개소도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찰인재개발원이 1순위가 되면서 지역 안배를 고려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2순위로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장소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가 관리 측면 등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가 모여 결정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처음에 검토됐던 시설이 2인실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4인실, 8인실로 된 경우가 있고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며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하고 추가적인 시설을 올려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인재개발원(아산) 시설 개요

생활관	638개소	수용규모	1,276명
강당	1개소	수용규모	-
체력단련실	1개소	수용규모	-
구내식당	1개소	수용규모	1,300명
실내체육관	1개소	수용규모	-
도서관	1개소	수용규모	-

수용인원 계획
- 귀국인원 : 549명
  -30일 1차(173명)
  2차(180명)
  -31일 1차(196명)
- 행정지원 : 65명
- 총 계 : 614명

* 2인 638개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생활관	212개소	수용규모	519명
강당	2개소	수용규모	736명
체력단련실	38개소	수용규모	760명
구내식당	4개소	수용규모	404명
실내체육관	1개소	수용규모	-
도서관	1개소	수용규모	-

수용인원 계획
- 귀국인원 : 173명
  -31일 2차(173명)
- 행정지원 : 40명
- 총 계 : 213명

* 1인실 10개소(장애인 3개소), 2인 102개소(장애인 6개소), 3인 95개소, 4인실 5개소

충남도 “임시생활시설 안전관리 혼신의 노력” 강조

정부가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경찰인재개발원 지정하자 충남도는 즉각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월 29일 양승조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으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결정됐다”며 “우리 도는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임시생활



● 양승조 도지사 ‘우한 교민 수용 결정’ 기자회견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가로서 내려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 앞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는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 충남도의 생각"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염려가 크시겠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더 큰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임시생활시설 지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는 지난 20일 지역방역대책반을 구성했고, 현재 이 대책반을 6개 팀 51명으로 확대·개편했다"며 "대한민국은 충청남도가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과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도지사_'우한 교민 수용 결정' 기자회견 (전문)

2020년 1월 29일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제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 700여 명은 1월 30일과 1월 31일 이틀에 걸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임시생활시설을 우리 도의 아산시 소재 국가기관 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도 소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에 이르기까지의 결정 과정과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결정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가로서 내려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이 머물 임시생활시설을 우리 충청남도에 마련하게 된 것, 역시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한 여러 요건을 설정하고 그 후보지에 대한 물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보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가시설 중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고 1인 1실로 생활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지역, 또 지역주민과 격리된 시설로서 공항에서 이동 거리가 너무 멀지 않으며 인접에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우리 지역 공공시설이 합당하다는 결론 아래 임시생활시설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 앞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만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도지사인 저와 우리 충남도정의 마땅한 의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우리 충청남도의 생각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의 조치는 분명합니다.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가게 될 국민들은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1차로 의료진의 검진을 통해 37.5도 이상의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자는 전세기에 별도로 탑승하며, 귀국 후 2차 검진을 통해 유증상자는 곧바로 음압병실이

있는 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지역에 수용된 국민들은 완전 격리되어 외출, 면회가 일체 불허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파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염려가 크시겠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우리는 더 큰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이러한 국가적 감염병을 앞장서서 훌륭하게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충남은 감염병 차단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중심을 잡고 중앙정부와 시·군과 함께 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추고 지역전파와 확산을 막아내며 감염병 관리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선두에 서면 대한민국이 안전할 것입니다. 충남도정을 믿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활시설 결정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통제나 관리 또한 중앙정부의 철저한 대응 속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충청남도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최초로 지역방역대책반을 구성했고, 1월 27일 현재 이 대책반을 총 6개 팀 51명으로 확대·개편했습니다. 도에서는 이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임시생활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국가적 질병과 감염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일사분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과잉대응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충청남도가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충청남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과 차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도는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감염 등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지역 주민 도로 점검, 밤샘 농성 등 강력 반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이제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지역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언론을 통해 천안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보도된 탓에 아산과 진천 지역 주민들은 천안지역의 반발로 인해 격리 수용시설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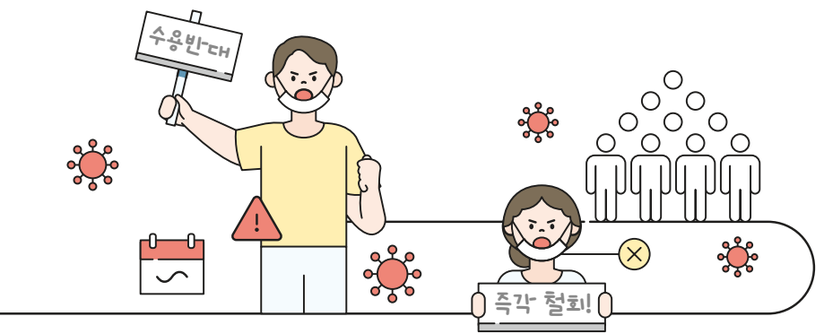


●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도로에 누워 '우한 교민 수용 반대' 시위를 벌이는 주민들 <사진=아시아경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초사 2통 주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해 도로를 막으며 시위를 벌였고 주민 30여 명은 밤샘 농성을 벌이며 "우한 교민 수용 반대"를 외쳤다. 아산시의회 의원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반대 성명이 발표되는 등 파장은 아산지역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아산 격리수용 계획 철회' 청와대 청원 글이 게시되고 1만 6,929명이 찬성에 서명하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천안 확정 아니다" 적극 해명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30일 한 반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능후 장관은 "큰 오해다. (처음부터) 천안도 확정은 아니었다.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총영사관에 이송을 공지했을 때 150여 명이었던 전세기 신청자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났고,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선정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박능후 장관은 "1인 1실 원칙과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응급처치 가능한 의료시설의 위치까지 고려하며 격리시설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4~5가지 기준 조건으로 봤을 때 천안보다는 아산과 진천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Part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4.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합의 및 사회적 협력



4-1 '임시 도지사 집무실 설치' 제시하며 주민 설득

우한 교민의 귀국을 하루 앞둔 1월 30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은 "처음에 천안으로 정했다가 그쪽에서 반발하니 아산으로 바꾼 거냐"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아산시민을 버린 행정,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산'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내보였다. 아산시의회도 "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된 것은 힘의 논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날 주민 30여 명이 밤샘 농성을 펼치며 반발한 데 이어 이날에도 주민들은 경찰인재개발원 진입 도로에서 팔짱을 끼고 누워 농성을 이어가며 거칠게 저항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했다.

상황이 격렬한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31일로 예정된 아산 귀국 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소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져만 갔다.

진영 장관과 양승조 도지사에 달걀 세례



● 주민들은 진영 장관과 양승조 도지사에게 달걀을 던지며 거칠게 반발했다. 도로에 떨어져 있는 달걀.

특단의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날 3시 40분께 현장을 찾았다. 진영 장관은 양승조 도지사와 함께 경찰인재개발원을 둘러본 후 주민과 길거리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의 저항은 거셌다. 대기하고 있던 주민들은 진영 장관이 모습을 보이자마자 달걀을 던지며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이어진 뒤 진영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한 어조로 설득에 나섰다. 진영 장관은 "우한 교민 중에는 충남 아산 분들도 3분이 있다"며 "모셔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두 건강한 분이고 혹시 몰라 14일간만 머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천안이 임시생활시설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진영 장관은 "천안으로 결정했다 번복한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놓고 검토하다 경찰인재개발원이 방이 제일 많은 곳이라 선정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주민은 "경찰이 도로를 점거했다고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시골 주민들을 폭력 세력으로 몰아세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경찰이 진영 장관과 양승조 도지사 일행의 접근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검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려다 20여 분 동안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인 데 대한 항의였다. 진영 장관은 "경찰은 주민들을 보호하러 온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순간 주민들이 다시 달걀을 던지기 시작했고 진영 장관은 왼쪽 다리에 달걀을 맞기도 했다.

'임시 집무실 설치' 약속하며 주민 설득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서 양승조 도지사가 주민 설득에 나섰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으로 오는 우한 교민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들로 안심해도 된다는 점을 목숨 걸고 장담한다"며 "제가 경찰인재개발원과 가까운 곳에 임시 도지사 집무실을 꾸리고 교민들이 떠날 때까지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의 이러한 결단은 우한 귀국 교민의 수용 시간 내내 임시생활시설 인근에 머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 주민과의 거리 대화를 통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조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협의해 아산지역 경제가 위축에 대한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이 철저한 대책 추진을 약속하고 양승조 도지사가 ‘임시 도지사 집무실 설치’라는 고강도 방안까지도 제시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주민대표와 비공개간담회 통해 지속 설득

진영 장관과 양승조 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은 주민과의 거리 대화에 이어 주민대표들과 비공개간담회 이어가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인근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30여 분간 비공개 대화가 진행된 뒤 진영 장관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양승조 도지사는 진영 장관이 자리를 비운 후에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어 양승조 도지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주민들에게 비공개간담회 내용을 설명했다.

양승조 도지사 “초사리에서 주민과 함께 생활하겠다”

양승조 도지사는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안전성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안전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인재개발원 입구인 초사리에 임시 도지사 집무실을 설치하고 실국회의는 물론 도청 과장들로부터 보고도 여기서 받으며 함께 생활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산지역의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다면 아산시와 함께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양승조 도지사는 ‘임시 집무실 설치’를 약속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대표들도 주민들에게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우한 교민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주민대표들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설명했고,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역주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다 필요 없다, 애초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주민들은 양승조 도지사가 자리를 뜬 후에도 1시간 이상 주민대표들과 난상 토론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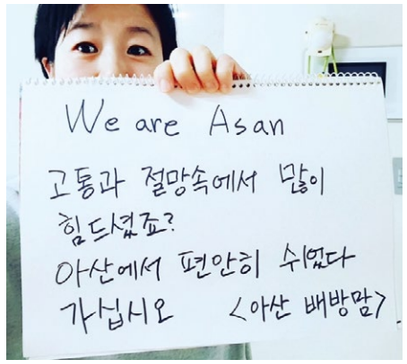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손피켓 캠페인 전개

아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민들 사이에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포용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아산 배방맘’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아산 배방맘'이라고 쓴 손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손피켓 캠페인이 이어졌다.



● '우린 다 같이 국민입니다'라는 현수막을 통해 우한 교민 수용을 응원하는 아산 주민들



●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손피켓 캠페인을 시작한 '아산 배방맘' <사진=페이스북 캡처>

아산이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포용하자는 취지의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캠페인은 아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동참과 응원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 캠페인은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의 반발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4-2 주민과의 대화 하루 만에 주민들 '수용' 결정

주민들의 반발 분위기는 하루 만인 31일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이날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오전 6시께 우한 공항을 이륙했다. 이날 오전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1시간 넘게 회의한 끝에 우한 귀국 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수용을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진입 도로에 설치했던 '수용 반대' 현수막도 자진 철거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전날 진영 장관이 정부 차원의 대책 이행을 약속한 데 이어 양승조 도지사가 비공개간담회를 이어가며 '임시 집무실 설치'와 '현장대책본부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한 귀국 교민 수용 반대부터 수용 결정까지 긴박했던 상황

1월 29일

- 정부, 우한 귀국 교민 아산, 진천 수용 결정 발표
-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 농기계 동원 반대 시위 및 밤샘 농성
- '아산 격리수용 계획 철회' 청와대 청원 글 게시(1만 6,929명 찬성 서명)

1월 30일

- 주민들, 경찰인재개발원 진입 도로 점거 농성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달걀 세례)
- 진영 장관·양승조 도지사 주민과의 거리 대화 및 비공개간담회
  (양승조 도지사 '임시 집무실 및 현장대책본부 설치'약속)

1월 31일

- 주민들, 우한 귀국 교민 수용 결정 및 대정부 건의사항 전달
- 우한 귀국 교민 1차 입국 및 임시생활시설 입소

한편으로는 교민이 이날 귀국한 상황에서 더는 수용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캠페인 등 교민을 막아서기보다는 따뜻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은 "우한 교민을 무작정 막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천안이 안 되니 아산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에 화가 났던 것"이라고 속내를 내보이면서 "당초 천안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정부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한 귀국 교민에 대한 온정의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부 주민은 "교민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다 가길 바란다"는 주문도 있었다.

주민들 철저한 방역대책 요구 및 건의사항 전달

주민들은 정부와 충남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내 건의사항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수도시설 설치, 도시가스시설 설치, 마을사거리 회전교차로 변경, 경찰대학병원 유치(설치), 신인농공단지 입구~경찰인재개발원 입구(주유소) 도로 4차선 확장 등으로 전날 양승조 도지사와 주민대표와의 비공개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우한 귀국 교민의 '극렬 반대'에서 '수용 결정'으로 급반전되면서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들은 순조롭게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우한 귀국 교민 수용 관련 주민 요구사항

- 상수도시설 설치
- 경찰대학병원 유치(설치)
- 도시가스시설 설치
- 마을 사거리 회전교차로 변경
- 신인농공단지 입구~경찰인재개발원 입구(주유소) 도로 4차선 확장

참석자: 김재호 초사2통장, 강연식 온양5동 행복키움단장, 이면구 온양5동 바르게살기위원장, 이영해 전 아산시의회 의원, 신옥희 5동 자원봉사단장 외 주민 10여 명

4-3 우한 귀국 교민 528명 경찰인재개발원 입소

우한 교민 1차 전세기로 입국

이날 우한 교민이 1차 귀국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 368명을 태운 정부 전세기가 오전 8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우한 톈허(天河)공항을 이륙한 지 약 2시간 만이다. 이들은 전세기 탑승에 앞서 공항 건물 외부에서 중국 당국의 1차 체온 측정을 거친 뒤 공항 내부로 들어와 발권, 중국 측 2차 체온 측정, 보안 검색, 한국 측 검역을 거쳤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 별도의 게이트에서 추가 검역을 받았다.

일반 시민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 항공센터에서 수속과 검역 등이 진행됐다. 국내 검역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나뉘어 수용된다.



●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모습

검역 결과, 전세기 탑승객 중 총 18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이 중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4명은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은 탑승객 350명 중 194명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머지 156명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각각 이동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50분께 경찰 버스와 소형 버스·승합차 등 차량 36대에 나눠 타고 임시 숙소로 향했다.

지역주민과 충돌 없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

김포공항을 출발한 지 1시간 50여 분 만인 낮 12시 50분께 우한 교민을 태운 경찰버스는 경찰인재개발원에 줄지어 도착했다. 교민들을 태운 경찰버스와 미니버스 등 18대는 순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바로 인재개발원 내부로 들어갔다. 탑승객들은 두 좌석에 한 명씩 떨어져 앉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긴장감 탓에 얼굴은 굳은 표정이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재개발원 진입로 양 방향에 차벽을 세우고 경력 1,100명을 동원해 경계 태세에 나섰지만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일부 주민은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적은 손피켓을 들고 교민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했다.



●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한 우한 교민 <사진=경북일보>

1차 입소자 남성 154명, 여성 40명 등 194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1차로 귀국한 368명의 교민 중 남성 154명과 여성 40명 등 194명이 입소했다. 이들은 31일 낮 12시 50분께 입소 절차를 마치고 고독한 열나흘의 첫날을 시작했다. 이들은 각자 배정된 숙소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며 외부인 면회, 교민 간 만남, 외식 등은 제한된다. 식사는 도시락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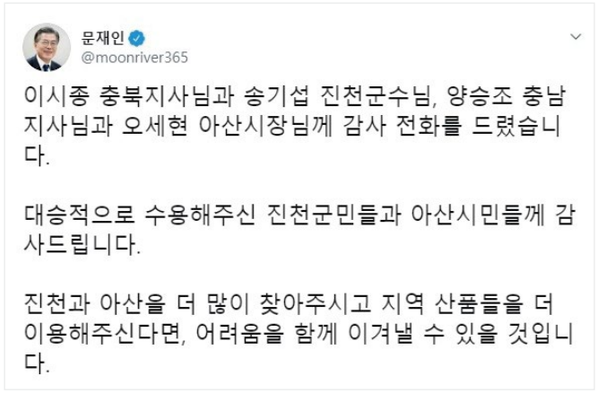


임시생활시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 군의관·간호장교 등이 교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방역원칙에 따라 12세 이상은 1인 1실을 사용하고,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12세 미만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방을 쓸 수 있다.

임시생활시설의 각 방에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어 14일간 방 안에서만 생활이 가능하다. 방 밖으로 나오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N95 마스크를 쓰고 이동해야 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교민 편의를 위해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며 책·신문·TV를 비치하고, 어린이를 위한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격리 기간인 14일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귀가할 수 있다. 하지만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가까운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문재인 대통령 아산, 진천 주민에 감사 메시지



●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교민이 1차 귀국한 이날 오후 교민들의 수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진천군민들과 아산시민께 감사하다”며 “국민께서도 진천군민과 아산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천과 아산을 더 많이 찾아주시고 지역 산품들을 더 이용해주신다면 백지장도 맞들듯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 송기섭 진천군수와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각각 감사 전화를 했다고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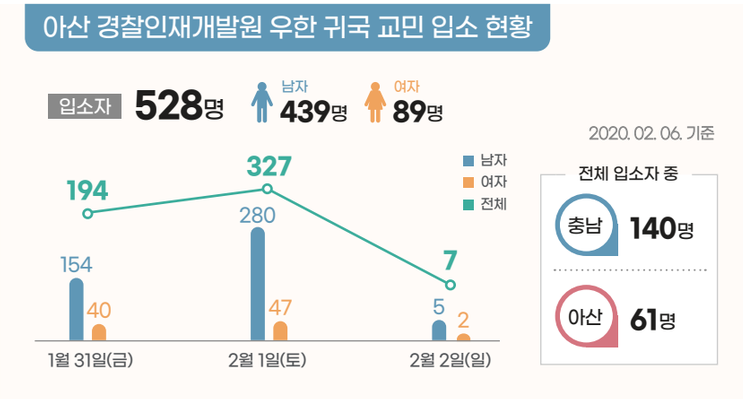
2차 귀국 우한 교민 327명 순조롭게 입소

2월 1일 2차로 귀국한 우한 교민 327명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이 중 남성은 280명, 여성 47명이다. 우한에서 대한항공 KE9884편 보잉747 여객기를 타고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대형 버스와 중형 버스 33대에 나눠 타고 오전 11시 25분께 경찰인재개발원에 차례로 도착했다. 이날도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500여 명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버스 행렬이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 2차 입국한 우한 귀국 교민을 태운 버스가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SBS뉴스>

당초 334명이 이날 입소할 예정이었지만 7명(남 5명, 여 2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다음 날인 2일 입소했다.



4-4 우한 귀국 교민에 대한 후원 및 격려 방문 물결

우한 귀국 교민들이 14일간의 고독한 격리 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온정이 이어지면서 큰 힘이 되었다. 아산시민들은 경찰인재개발원 진입 도로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교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특히 아산을 비롯한 충남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물품과 성금의 기부 및 후원이 연일 이어졌고 우한 교민과 임시생활시설 인근 마을주민들을 응원하는 방문 행렬도 이어졌다.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아산지역의 소비시장 활성화를 기원하는 '함께해요 아산, 힘내세요 대한민국!' 캠페인도 전개됐다. 이와 함께 우한 교문에 대한 마스크 기부, 어린이들의 응원 손편지 전달 등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다양한 응원이 이어졌다.

우한 교민 위한 '마스크 기부 캠페인'

우한 귀국 교민에 대한 다양한 응원은 위기극복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준 사례였다. 2월 3일 아산지역 주민들이 마스크 기부 캠페인으로 모은 마스크를 우한 귀국 교민들에게 전달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충남 아산시 음봉면 포스코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 '누리보듬(대표 이지연)'과 '포스코봉사단(대표 이은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마스크 기부 캠페인으로 모은 637여 개의 마스크를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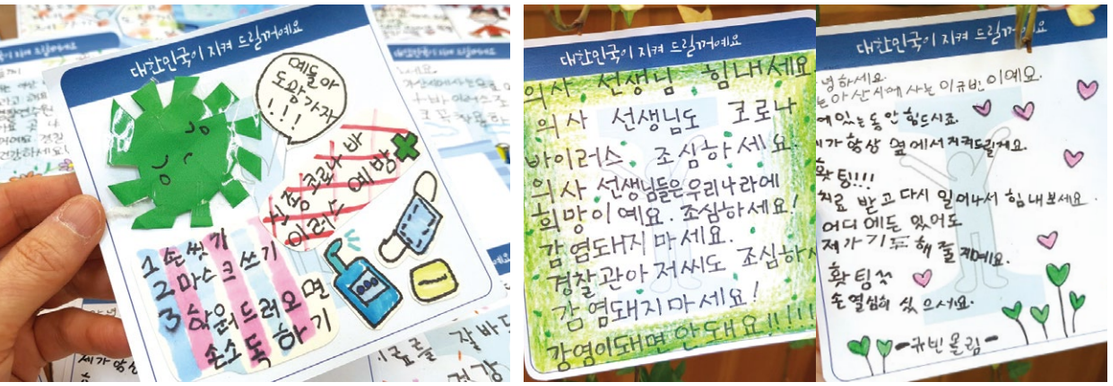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을 주도한 누리보듬 이지연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산에 우한 교민들이 수용돼 처음엔 놀랐지만,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포스코봉사단 이은영 대표는 "가족들이 쓸 마스크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한 교민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쓴 응원편지와 종이학 전달

아산지역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응원의 손편지와 종이학이 우한 귀국 교민들에게 전달돼 훈훈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산시 배방읍 소재 감성아이새움 미술학원(원장 김혜경)의 원생들이 5일 우한 교민에게 전달한 손편지 상자에는 손편지와 그림, 격려 포스트 등 100통과 종이학 등이 담겨 있었다. 손편지뿐 아니라 '우리는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교민들에게 전달됐다. 2월 6일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가 생일을 맞이하자 정부합동지원단 직원들이 케이크, 로봇 등의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기도 했다.



● 아산의 한 미술학원 원생들이 쓴 손편지

매일 4차례 경찰인재개발원 내 이동식 화장실 청소 자원봉사

아산시의 한 시민은 경찰인재개발원 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의 청소 자원봉사를 해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미담의 주인공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엽성식 씨(60)로 하루 네 차례 개발원을 찾아 경찰 250여 명과 임시현장 상황실 상주 인력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의 청소를 도맡았다. 이 화장실도 엽성식 씨가 자비를 들여 무상으로 설치한 것이다.

2월 6일 아산시립도서관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인 우한 교민들을 위해 교양도서를 지급했다. 지급된 도서는 일반 도서 542권, 아동도서 29권 등 572권이다. 아산시보건소에는 바깥 출입의 제한으로 흡연이 여의치 않은 우한 교민을 위해 금연보조제(에스덤30 1박스, 아로마파이프 1박스)를 지급했다.

'함께해요 아산, 힘내세요 대한민국!' 캠페인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이후 아산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해요 아산, 힘내세요 대한민국!' 캠페인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캠페인은 아산시청 공무원들이 얼어붙은 아산지역 경기에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시민들도 동참하면서 범시민 캠페인으로 확산됐다. 캠페인은 지역 상가를 이용하거나, 관광지를 방문해 '함께해요 아산, 힘내세요 대한민국!' 손피켓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아산시 페이스북 등 SNS에는 응원 댓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불안해하지 않고 지역에서 쇼핑도 하고 밥 먹겠다", "아산시민의 하나 된 마음을 보여주자" 등 아산시민들의 동참 글들이 이어졌다. 아산시민들의 이러한 캠페인을 지켜본 국민들도 "아산 시민들 힘내세요", "아산 감사합니다", "아산으로 놀러 가겠다" 등 응원과 격려가 쇄도했다.

● 아산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함께해요 아산, 힘내세요 대한민국!' 캠페인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우리가 아산이다 퍼포먼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퍼포먼스

앞서 2월 3일에는 충남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들도 아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날 오후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충남현장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차단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뒤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우한 교민과 아산시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17일간 143건, 14억 원 후원 접수

우한 교민이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첫날부터 교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시작된 데 이어 교민들이 퇴소할 때까지 아산과 충남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기부와 후원이 쇄도했다.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17일간 접수된 후원 건수는 143건에 후원 금액은 14억 3,664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성금은 19건에 1억 1,900만 원, 후원 물품은 94건에 13억 676만 원. 위문품은 30건에 1,088만 원이었다.

후원물품 및 성금 접수 배부 내역

2020. 02. 18. 기준

후원물품 및 성금 접수 현황						배 부		
연번	일자	후원처	후원품목	수량	금액	일자	배부처	전달
1	2.1.(토)	㈜찬양ENG ㈜뉴젠스	소독 스프레이	1,500개 8,300개	2,000만원	2.1.(토)	온양5동,염치, 온양1동 등	보건소
2		중앙고아산총동문회	컵라면, 커피, 종이컵	220개	440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3	2.2.(일)	아산시개인택시지부	귤, 천혜향	10상자, 각 1상자	20만원	2.2.(일)	초사 2통 마을회	재난본부
4		농협은행 아산시지부	마스크	30상자, 3상자	70만원		초사 2통 마을회	재난본부
5	2.3.(월)	음봉포스코 1,2,3차 입주민 일동	오미자	487개	100만원	2.3.(월)	경찰교육원 교직원아파트 주민배부	온양5동
6		오미원	스틱차	1,400상자	1,680만원		우한교민, 경찰	경찰인재개발원
7		보성군청	차 음료	71상자	2,400만원		우한교민	경찰인재개발원
8	2.4.(화)	서울우유 아산온천 고객센터	멸균우유	150상자 (3,600개)	300만원	2.4.(화)	우한교민, 경찰	경찰인재개발원
9		CJ푸드빌 (서울소재)	빵	1,500개	225만원		경찰인재개발원 근무경찰(의경)	경찰인재개발원
10		전국재해구호협회	마스크	10,000장	2,000만원		신창면, 온양6동	보건소
11		농협충남지역본부	마스크	500장	75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2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	마스크	1,000장	150만원		지역주민	안전총괄과
13	2.5.(수)	㈜휴온스네이처	홍삼김 홍삼단	700봉 300상자	1,250만원	2.5.(수)	읍면동 저소득층	사회복지과
14		대동고려삼(주)	모닝 홍삼정 등	3,000개	760만원		읍면동 저소득층	사회복지과
15		전국시군구 공무원노조	쌀(10kg)	65포	200만원		온양5동 경로당	재난본부
16		원마트	라면 생수	1,500개 1,000개	125만원	2.6.(목)	저소득층배분 온양6동	사회복지과
17		유한킴벌리	마스크	20,000장	3,000만원	2.5.(수)	읍면동 의료취약계층	사회복지과
18		㈜푸드나무 피키다이어트	어린이용 마스크	10,000장	3억원		읍면동 취약계층	보건소
19		㈜나노텍스	마스크	1,000장	150만원	2.6.(목)	의료취약계층	안전총괄과
20		모다아울렛	마스크	10,000장	2,000만원		재래시장 등	안전총괄과
21		좋은기업영화	슬리퍼 (2상자)	100개	50만원	2.7.(금)	온양정애원	사회복지과
22	2.5.(수)	충청남도	마스크	20,000장	4,000만원	2.6.(목)	보훈회관 염치,온양2동	안전총괄과 보건소
23		익명(개인후원)	성금	-	200만원	2.5.(수)	아산시	충남공동모금회

후원물품 및 성금 접수 현황						배 부		
연번	일자	후원처	후원품목	수량	금액	일자	배부처	전달
24	2.5.(수)	전국재해구호협회	마스크	2,000장	300만원	2.6.(목)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25	2.6.(목)	계룡시청	손소독제(20개입)	3상자	2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26		천안시청	마스크, 손세정제	10,000장 500개	1,75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27		세종시장 운영지원과	재난관리기금	-	500만원		-	재해구호협회
28		보령농협	귤,떡,김	6상자,5상자 15상자	120만원		무료급식소 5개소	사회복지과
29		백제금산인삼농협	홍삼스틱	30상자	200만원		법인택시기사	사회복지과
30		오가닉버튼(주)	여성위생용품	37상자	1,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여중생학교 5개소	사회복지과
31		모다아울렛	여성위생용품	20,000장	3,696만원		생활시설11개소	사회복지과
32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서울명성교회	떡	2상자	45만원		무료급식소 5개소	사회복지과
33		아모레퍼시픽 아산지역 카운셀러	홍삼, 비누	3상자 30상자	200만원		버스기사협회 전통시장상인회	사회복지과
34		아산시 산림조합	사과,배, 쌍화탕(2상자)	20상자 10상자 200개	100만원		예향원 5개복지관	사회복지과
35		세종시 운영지원과	비타500(병)	500개	20만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
36		한국생활개선 아산시 연합회	비누	70개	10만원		온주복지관	사회복지과
37		남양유업	두유, 음료	180상자 104상자	1,0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경찰현장근무자 무료급식소5개소	사회복지과
38		오난코리아	가습기	600개	1,800만원		송악,신창,온양 2동,4동,5동, 6동(저소득층)	사회복지과
39		하동군청	홍차, 녹차	85상자 15상자	270만원		우한교민	행안부
40		전국재해구호협회	어린이마스크(10장) + 손소독제세트	900세트	1,200만원		아산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과
41	2.7.(금)	주식회사 더채움	견과류세트	700개	210만원	2.7.(금)	우한교민600개 아산사회복지관	행안부 사회복지과
42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배즙(30개입)	100상자	250만원		노인복지시설 10개소	사회복지과
43		아산시행복키움추진단 협의회	컵라면	11상자	20만원		척수장애인협회	사회복지과
44		에이제이(주)	물티슈	1,600개	240만원		신인동엘크루 아파트주민	사회복지과

후원물품 및 성금 접수 현황						배 부		
연번	일자	후원처	후원품목	수량	금액	일자	배부처	전달
45	2.7.(금)	여성농업인협회	사발면(30개입)	2상자	10만원	2.7.(금)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사회복지과
46		보령시	머드비누, 일회용샴프린스	53상자, 2상자	1,080만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
47		한국교회총연합회	성금	-	500만원		아산시	충남공동모금회
48		서울영락교회	마스크	5,000장	750만원		소상공인	안전총괄과
49		하나은행	마스크	10,000장	1,50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50		아산화학	마스크	900장	135만원		온양5동(신인2통)	안전총괄과
51	2.10.(월)	논산시청	딸기	1,000상자	2,500만원	2.10.(월)	우한교민,경찰 등 현장근무자,독거노인, 10개복지시설	사회복지과
52		여성단체협의회	손세정제	90개	5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53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성금	-	500만원		아산시	충남공동모금회
54		대한적십자사	귤(5kg)	100상자	100만원		초사2통주민	온양5동
55		레드엔젤응원단(김보성)	마스크	5,000장	1,00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56		레드엔젤응원단(김보성)	홍삼음료(30캔)	40상자	150만원		버스협회	사회복지과
57		아산테크노그린에너지	마스크	2,000장	50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58		충남경제진흥원	홍삼절편, 연잎차	600봉 300봉	390만원		우체국 집배원	사회복지과
59		서울명성교회 아산기독교연합회	마스크	10,000장	1,50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60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성금	-	300만원		아산시민	충남모금회
61	2.11.(화)	대한양계협회 아산 육계지부, 동우팜투테이블	삼계탕	600개	480만원	2.11.(화)	복지시설6개소	행안부
62		㈜씨엘로홀딩스	김치분말	1,200포	480만원		우한교민	사회복지과
63		서울우유	오트밀크	3,600개(300상자)	650만원		택시협회	사회복지과
65		선문대학교총동문회(배선길)	마스크팩	480개(6상자)	500만원		초사2통 주민	사회복지과
66		한국생활개선아산연합회	천연수제비누	500개	150만원		교육지원청(초중고)	재해구호협회
6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성금	-	500만원		아산시	전국재해구호협회
68		한국사회복지 행정연구회	성금	-	100만원		아산시	충남모금회
69		충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성금	-	100만원		아산시	충남모금회
70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성금	-	100만원		아산시	충남모금회
71		㈜티르티르	손소독제	20,000개	10,000만원	2.12.(수)	교육지원청, 아산시	사회복지과

후원물품 및 성금 접수 현황						배 부		
연번	일자	후원처	후원품목	수량	금액	일자	배부처	전달
72	2.11.(화)	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	마스크	5,000장	1,000만원	2.11.(화)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 연합회
73		중소벤처기업부	손소독제	200개	120만원		전통시장상인회	중소벤처 기업부
74		전국재해구호협회	방역물품세트 (마스크,손세정제)	500개	30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보건소
75		한국중부발전(주)	마스크	2,200장	50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보건소
76	2.12.(수)	환경문화시민연대	건 대추	600개	500만원	2.12.(수)	우한교민	행안부
77		아산가톨,정형외과, 아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컵라면,콜라, 사이다, 손세정제	1,200개 각600개 90개	250만원		우한교민, 아산시민 (손세정제)	행안부 안전총괄과
78		오토 & 헬스케어	생수	10,000개	200만원		아산경찰서	재난본부
79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김	200상자	600만원		아산시기초 푸드뱅크통한 저소득층후원	재난본부 (후원처 지정건)
80		아산시새마을회	라면(20개입)	50상자	65만원		초사동마을주민	재난본부
81	2.12.(수)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홍삼스틱	60상자	200만원		집배원	재난본부
82		주식회사 프라임테크	자외선살균기	3개	51만원		위생과,시청민원실	사회복지과
83		선문대학교	마스크, 손소독제	335개 110개	20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보건소
84	2.13.(목)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아산사랑 상품권	1만원건 300매	300만원	2.13.(목)	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30가구)	사회복지과
85		서천군수,기업인협의회	김, 모시떡	150상자 150상자	300만원		환경미화원, 무료급식소 초사2통 경로당	사회복지과
86		아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우리밀 쿠키	300세트	150만원		공동생활가정 8개소(아동), 현장근무자(도의원,시의원, 경찰등)	사회복지과
87		충남새농민회	쌀국수	20상자 (9개입)	40만원		초사2통 경로당 현장근무자(도의원, 시의원,경찰등)	재난본부
88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손세정제	412개	249만원		초사동인근 음식점 46개소	아산지사 지정직접 배분
89		㈜두현이엔씨	마스크	5,000장	1,00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보건소
90		한국중소상인자 영업자총연합회	마스크	2,500장	550만원		아산시민	안전총괄과 보건소
91		공주시	밤빵					
92		당진시	해나루쌀(3kg)					
93		부여군	방울					

위문품 접수 및 배부 내역

위문품 접수 현황						배 부		
연번	일자	후원처	후원품목	수량	금액	일자	배부처	전달
1	2.2.(일)	두정동 극동아파트 관리소장	한과	5상자	50만원	2.4.(화)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2	2.3.(월)	천안시의회	호두과자	16상자	16만원	2.3.(월)	경찰 및 재난본부, 근무자	재난본부
3		농협도지부	귤 5kg	5상자	7만원		경찰 및 재난본부, 근무자	재난본부
4		서산시장	한과,조미김	8상자	30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5		부여군의회	손소독제	2상자	20만원		이동진료소	보건소
6		서밋디자인	온궁이빼빼로	20상자	12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7	2.4.(화)	온양농협	물, 귤, 컵라면	2,240개 15상자, 50상자	200만원	2.4.(화)	초사 2통 마을회	재난본부
8	2.5.(수)	아산힐스동호회	컵라면, 핫팩	20상자, 2상자	50만원	2.5.(수)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9		충청남도의회	홍삼원골드 물티슈	1상자 2상자	5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0		사랑의쌀나눔운영본부 중앙회	빵,음료 종이컵	6상자,1상자 1상자	10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1		㈜푸드나무	음료, 마스크	10상자, 2상자	10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2		온양장로교회	떡	100개	30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3		아산시어린이집연합회	비타500	6상자	5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4		아산축협	우유	600개	50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5	2.6.(목)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핫팩	1상자	10만원	2.6.(목)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6		여성협동조합노둣돌	김밥	20줄	3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7		계룡시청	땅콩말이엿	5상자	20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8		내수면양식연합회	떡(절편)	4판	20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19	2.7.(금)	송악농업협동조합	떡	2상자	10만원	2.7.(금)	아산종합복지관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20		충남도의회	떡	5상자	25만원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21	2.8.(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귤(5kg)	15상자	30만원	2.8.(토)	선별진료소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22	2.10.(월)	논산시 농협조합	딸기(1kg)	50상자	75만원	2.10.(월)	본부 등 근무자	재난본부
23	2.11.(화)	바르게살기아산협의회	생수	600개	30만원	2.11.(화)	현장근무자 (도의원, 시의원, 경찰등)	재난본부
24		금산군관내 농협조합장	홍삼, 음료수	500병	50만원			재난본부
25		부여축협	떡, 음료수	2상자, 1상자	30만원			재난본부
26	2.12.(수)	농협중앙회 세종본부	딸기(3kg)	10상자	25만원	2.12.(수)		재난본부
27		천안시	호두과자, 빵, 음료	50상자 150개,100개	85만원			재난본부
28		부어치킨 프렌차이즈	치킨	30마리	65만원			재난본부
29	2.13.(목)	서산, 예산, 서천농협지부	쌀국수, 방울토마토, 송편·식혜	20상자 15상자 각10상자	90만원	2.13.(목)	초사2통 경로당, 현장근무자(도의원, 시의원, 경찰 등)	사회복지과

Part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5. 충남도 총력 관리 및 대응



CHUNGNAM
COVID-19

5-1 문재인 대통령_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합 점검회의 주재

우한 교민의 귀국을 하루 앞둔 1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다.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한 교민의 국내 이송과 임시생활시설 운영방안, 지역사회 감염 예방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의가 진행됐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빈틈없는 관리” 강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수용과 관해 정부 차원의 빈틈없는 관리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는 귀국 교민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어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

C O V I D - 1 9





오늘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시·도지사님들도 화상 연결로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시작됩니다. 실제 도착은 내일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해주신 항공사와 승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됩니다. 귀국 교민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또한, 중국에 남게 되는 교민들에 대하여도 중국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자진하여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체계 점검, 확산에 대비한 지역별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확보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입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를 대비해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수출·투자·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숙박 등 서비스 업종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업종별 파급효과를 세밀히 살펴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기관과 현지 기업, 경제단체 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자체와 함께 정부의 일을 철저히 하고, 국민 개개인은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 충남도·아산시 현장대책본부 설치 및 가동

우한 교민이 1차 귀국한 1월 31일, 충남도는 우한 귀국 교민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 수용에 대비해 전방위 대책 추진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1차 귀국한 우한 교민 250명 중 194명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이날 오후 양승조 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초사2통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제시한 임시 도지사 집무실 설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우한 교민의 임시 격리 기간이 끝나는 14일 동안 초사2동 마을회관에 임시 집무실을 꾸리고 업무를 보는 것은 물론 초사2통 마을에 숙소를 마련하고 이곳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 양승조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 도지사 집무실 설치 등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또 "우한 교민의 임시 수용으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아산시민들로 아산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도민과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일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충남도와 아산시, 시민단체가 함께 도정회의 개최, 지역 방문하기, 음식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금융적 지원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도지사_'아산 현장집무실 설치' 기자회견 (전문)

2020년 1월 31일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아산시 온양 5동 초사 2통 마을입니다. 오늘(1월 31일) 우한에서 입국하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14일 동안 머무르게 될 임시생활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이 여기서 100여m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제 임시 집무시설을 꾸렸습니다. 숙소도 이곳 마을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한에서 온 우리 국민들이 이곳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게 댁으로 귀가하실 때까지 제 모든 집무와 회의,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곳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20만 충남도민이 뽑아준 충청남도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도민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모든 불안에 함께 대처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곳 현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철저하게 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산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염려에 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임시생활시설 결정으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아산시민분 들입니다. 아산시민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아산지역의 공공시설을 임시생활시설로 결정한 것은 천안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한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시생활시설을 선정하고자 관계부처 비상회의를 통해

총 8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가시설, 수용 가능성, 의료적 측면, 공항 접근성, 주민 이격성, 생활편의시설 등 총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순위가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치적 사안을 고려해서 번복된 결정이었다면 충남도지사로서 제가 먼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 정부와 검역 당국의 조치는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한 것입니다. 우한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은 귀국부터 시설로 이송까지 철저하게 격리된 채 진행될 것입니다.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관리 속에서 임시생활에서 정해진 규칙에 맞게 생활하게 됩니다. 마을에 대해서는 1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는 방문 진료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 실내 살균 소독제 등 개인 보호 물품을 등은 이미 배부를 마쳤고 다중 이용 시설 내에는 감염 예방 물품을 비치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로부터 지역전파 가능성은 없습니다.

넷째, 생활시설 유치에 따른 이 지역의 경제 위축에 대해 중앙정부와 아산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근 지역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도와 아산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도정회의 개최, 지역 방문하기, 음식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산시 전역의 피해 우려에 대해 업체당 5,000만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0.5% 인하하고 소상공인 이자 보전금을 1% 확대하며, 총 융자금 1,400억 원 규모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해 주시고, 불안을 함께 나누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지역주민들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 오셔서 관광지도 방문해 주시고, 지역 식당도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믿음은 더할수록 커집니다.

충남도지사로서 저는 이제 이곳에 제 집무실과 임시 숙소를 꾸리고 현장의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함께한 오세현 아산시장은 “초사2통 주민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한 교민들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소 반대를 철회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이동 시장실을 설치하고 방역대책본부를 꾸려서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가 각종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도지사 집무실·현장본부 상황실 설치 완료

양승조 도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충남도는 즉시 임시 도지사 집무실과 현장본부 상황실 등 현장대책본부 설치에 들어갔다. 현장대책본부는 아산시 초사동 254번지(무궁화안길 22)에, 임시 도지사 집무실은 초사2통 마을회관에 각각 설치했다. 또 도지사 임시 관사도 인근 마을 주민의 집을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현장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우한 귀국 교민이 퇴소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며 비서팀, 현장운영팀, 상황관리팀 등 3개 팀에 13명이 배치됐다. 현장대책본부의 역할은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우한 교민 임시 수용과 관련된 상황관리,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역 등의 대책회의 개최, 초사2통 등 주민안정을 위한 방안 추진 등이다.

아산시 현장 시장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아산시도 이날부터 초사동 현장 시장실과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아산시보건소에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의 초사2통 마을회관 근처로 이동설치 했다. 2월 1일, 2차 귀국한 우한 교민 327명이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당초 334명이 이날 입소할 예정이었지만 7명(남 5명, 여 2명)이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여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다음 날인 2일 입소했다.

5-3 양승조 충남도지사_아산 현장대책본부 운영

2월 1일(토)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본격 가동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일 당일	건수 **10**건 명 **110**명	건수 2건 인원 13명	횟수 1회 인원 4명	단체 7개 인원 83명



● 양승조 도지사가 현장 집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상황 및 대책 논의

2월 1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설치한 현장집무실에서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날 오후 아산 현장집무실에서 도 간부공무원들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임시생활시설 옆에 집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귀가할 때까지 집무와 회의, 일상생활 등을 아산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민들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난국에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예방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대응 강화를 주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AI 등 동물 감염병까지 발생한다면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축산분야 방역 수위를 높여줄 것도 당부했다.

2월 2일(일) 각계 인사 응원 방문 릴레이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2일 당일	건수 **11**건 인원 **137**명	건수 1건 인원 3명	횟수 3회 인원 72명	단체 7개 인원 62명
누계	건수 **21**건 인원 **247**명	건수 3건 인원 16명	횟수 4회 인원 86명	단체 14개 인원 145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집무실 설치 운영 관련 언론인 인터뷰,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재난평가 계획보고, 코로나19 대책 및 정책 현안협의, 황선봉 예산군수 상황근무자 격려 및 위문품 전달
현장 대책본부	충남연구원 확대간부회의, 상황근무자 격려 및 지역 현안회의, 충청남도 정책특보단 방문 격려, 충청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방안 회의, 지역 인사와의 대화
방문인사	강훈식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 한영신 안장헌 김명선 여운영 충남도의원,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마을 방역 강화

아산에 마련된 양승조 도지사의 현장 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에는 이날부터 각계각층의 응원 방문이 이어졌다. 2월 2일에는 강훈식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 한영신·안장헌·김명선·여운영 충남도의원,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 등이 방문해 양승조 도지사와 접견하고 우한 교민 수용에 대한 충남도의 결단과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양승조 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책회의에 이어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인재개발원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해 방역차량을 투입해 매일 마을 곳곳을 소독하고 마스크 6,500개와 실내 살균소독제 200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2월 3일(월) 현장대책본부 첫 실·국·원장회의 개최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3일 당일	건수 27건 인원 355명	건수 1건 인원 2명	횟수 8회 인원 242명	단체 18개 인원 111명
누계	건수 48건 인원 602명	건수 4건 인원 18명	횟수 12회 인원 328명	단체 32개 인원 256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및 정책 현안협의, 충남도공무원노조 농협·충남지역본부장 근무자 격려 및 위문품 전달, 서산시장 근무자 격려 및 위문품 전달
현장 대책본부	충남경제진흥원 주간 간부회의, 충남인삼산업발전위 상황근무자 격려, 천안시의회 상황근무자 격려 및 간담회, 제75차 충청남도 실국원장 회의, 충남도의회 안건해소 위원회 아산시민 격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우한 교민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현수막 퍼포먼스, 제13회 지방정부회의
방문인사	충남 15개 시장·군수, 전익현·지정근·조승만·양금봉·이계양 충남도의원,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 및 의원 11명

2월 3일 현장대책본부에서 첫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과 도정 주요 업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승조 도지사와 실·국·원장, 충남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열린 회의에서는 실·국·원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선별진료소 장비 및 방역용품 구입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지속 건의, 긴급 방역활동을 위한 예비비 신속 지원, 격리 의료폐기물 상황 관리 및 특별 점검을 위한 상황실 운영, 민방위 교육 탄력 운영, 경제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제 상황 점검 및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대중국 수출 위기극복협의회 구성·운영, 영세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장대책본부에서 처음 열린 충남도 실·국·원장회의





● 제1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도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2020년 충청남도 도정 운영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 및 대응, 충남형 주민자치(참여) 모델 육성, 1회용품 사용 근절 및 풍선 날리기 행사 금지 등 총 4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차단·대응 대책을 공유하고, 충남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도 맺었다. 경계지역 축사 입지에 따른 갈등을 예방코자 마련한 이번 협약은 시·군별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오늘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방안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도와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자"고 주문했다

2월 4일(화) 지역경제 상황 점검 및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4일 당일	건수 **21**건 인원 **215**명	건수 1건 인원 32명	횟수 3회 인원 118명	단체 17개 인원 65명
누계	건수 **69**건 인원 **848**명	건수 5건 인원 50명	횟수 15회 인원 446명	단체 49개 인원 352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남지회 위문품 전달, 충남법인분과 어린이집원장단 위문품 전달, 충남버스운송조합 이준일 이사장 등 위문품 전달, 충남농협본부(길정섭 본부장 등) 및 이명수 국회의원 등 근무자 격려, 원경 마곡사 주지 위문금 전달
현장 대책본부	2020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 충남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보고,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코로나19 확산 관련 충남경제상황점검 및 현장간담회
방문인사	이명수 국회의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등 의원 17명,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원경 마곡사 주지

지역경제 활력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운영

2월 4일, 양승조 도지사는 현장대책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관련, 충남 경제 상황점검 및 현장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상대국에 관광목적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관광객 감소로 관광, 여행 산업 피해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시나리오 예측결과,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경제는 19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에 따른 충남경제 파급효과는 사태가 단기간(2개월) 내 진정될 경우 생산액 감소는 1,760억 원, 부가가치액 감소 570억 원, 고용인구 감소 1,214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사태가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피해액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국인 국내 여행 감소가 10% 정도일 경우 충남지역 피해는 생산액 감소 1,570억 원에 달하고 부가가치액 감소도 530억 원, 고용인구 감소는 1,39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및 내국인 여행 감소에 따른 충남경제 파급효과

사태 2개월내 진정시

생산액 감소	부가가치액 감소	고용 인구 감소
1,760억 원	570억 원	1,214명

사태 7개월간 지속시

생산액 감소	부가가치액 감소	고용 인구 감소
5,280억 원	1,710억 원	3,642명

내국인 국내 여행 10% 감소시

생산액 감소	부가가치액 감소	고용 인구 감소
1,570억 원	530억 원	1,398명

양승조 도지사는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사례를 볼 때,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판매, 지역관광, 음식 숙박업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출 통상, 소상공인, 일자리 등 분야별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충남경제 상황점검 및 현장간담회

지방재정 상반기내 3조 8020억 원 신속 진행

이날 현장대책본에서는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내 3조 802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를 개최됐다. 이번 상반기 집행 목표는 정부의 재정 집행 목표인 65%보다 3.5% 높은 68.5%로, 목표액은 3조 80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조 5181억 원 대비 2839억 원 증가한 역대 최고액이다.

우선 충남도는 1분기에 인건비, 물건비, 도서 구입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소비·투자 예산 1조 1745억 원 중 303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목표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진한 대규모 사업은 실시간으로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문재인 대통령에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공식 건의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시생활시설을 수용한 아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4일 코로나19 범부처 대응책 논의를 위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의 차단 방역 추진상황을 설명한 뒤 긴급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충남도의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규모는 총 69억 5000만 원으로, 선별진료소 장비 및 방역물품, 음압구급차, 119구급대 방역물품 구입 비용 등이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 강구도 요청했다. 아산지역 관광호텔의 경우, 지난달 28일 이후 예약 취소 객실 수가 450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객실 예약은 주중 63%, 주말은 67% 감소했으며, 온천사우나는 주중 42%, 주말에는 62%가 줄었다. 현충사 등 아산지역 8개 관광지는 주중 45%, 주말 75% 정도 감소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차량은 1월 19일 1551대에서 지난 1일 1058대로 32% 감소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임시생활시설이 설치된 아산 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며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승조 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아산과 진천을 방문해 줄 것도 건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산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책 건의

이어 양승조 도지사는 "감염증 등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재난 전문 의료·격리시설이 전무하다"며 평상시에는 일반 병원으로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국가 재난 의료·생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을 경찰연수원 부지 내에 건립한다면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양승조 도지사_아산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책 건의 내용

특별교부세 지원
총 **69억 5000만 원**
- 선별진료소 장비 및 방역물품, 음압구급차, 119구급대 방역물품 등 구입 비용

경제 활성화 지원
우한 교민 임시 수용 이후 침체된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재난 전문 의료·격리시설
재난 전문 의료·격리시설의 경찰연수원 부지내 건립
- 평상시에는 일반 병원으로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국가 재난 의료·생활 시설로 활용

2월 5일(수) 임시생활시설 관리 및 아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논의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5일 당일	건수 25건 인원 303명	건수 3건 인원 24명	횟수 2회 인원 62명	단체 20개 인원 217명
누계	건수 93건 인원 1,151명	건수 8건 인원 74명	횟수 17회 인원 508명	단체 68개 인원 569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방문, 한국방역협회 충남지부 방역단 발대식, 인삼약초기업인협의회 위문품 전달, 정기업 충청향우회장 격려 및 충남학사 개원 시 총재단 초청 건의
현장 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충남경제상황점검 및 현장간담회, 충남도의회 행자위 이공휘 위원장 등 10명 위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상황관리 회의
방문인사	강훈식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공휘 충남도의회 행장위원장, 박정현 부여군수, 정기업 충청향우회장

코로나19 분야별 방역대책 집중 점검

2월 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현장대책상황실에서 충남도와 아산시, 아산경찰서가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방역대책과 임시생활시설 경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상황을 전달하고, 예비비·국비 사용 추진 및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을 설명했다.



● 충남 경제상황 점검 및 현장간담회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으로 추진 중인 충청남도 방역대책반 확대, 선별진료소 32개소 설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단계적 확보, 진단검사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역학조사관 확대, 방역물품 지원 등 조치사항의 현황을 공유했다. 또 의사환자 및 접촉자, 우한시 방문자, 사각지대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아산지역 숙박·연회 예약 최소 등 경제침체 대책 논의

아산시는 시에서 운영 중인 방역대책반과 24시 상담센터, 선별진료소 2개소의 추진 상황과 경찰인재개발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아산지역 내 숙박 및 연회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산지역 경제 위축 현황

객실 예약 급감
평소대비 **63%** 감소 ↓

관광호텔 예약 취소
1월 28일 이후
연회장 **21**실, 객실 **450**실 ↓

관광객 급감

온천사우나
주중 **42%** 감소, 주말 **62%** 감소 ↓

주요 관광지
주중 **45%** 감소, 주말 **75%** 감소 ↓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객 감소
1월 19일 1,551대 → 2월 1일 **1,058**대 (**32%** 감소) ↓

이어 진행된 충남경제상황점검 및 현장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양극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 지역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 유치 등의 계획을 점검하고 도와 시·군은 지역경제 위축에 대비해 시·군별 지역경제상황의 점검과 대응에 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월 6일(목)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금 기부 릴레이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6일 당일	건수 13건 인원 365명	건수 0건 인원 0명	횟수 5회 인원 156명	단체 8개 인원 209명
누계	건수 106건 인원 1,516명	건수 8건 인원 74명	횟수 22회 인원 664명	단체 75개 인원 778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위문품 전달, 충남약사회 임원진 위문품 전달, 대한치과협회 임원진 위문금 전달, 김덕호 충남체육회장과 내수면양식업연합회 임원진, 가정성폭력피해자 지역활동가 등 근무자 격려

현장 대책본부
충남도지사 도청 공무원 임용장 수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농사랑 관련 회의,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 현장 상황점검 및 오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근무자 격려, 2020년 제1회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2020년 제2차 충남도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방문인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덕호 충남체육회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농협중앙회 아산사랑 상품권 3,000만 원 기탁

코로나19 예방과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기부가 이어졌다. 2월 6일, 농협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아산시치과의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아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기부했다. 농협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아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사랑 상품권 3,000만 원을 기탁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지원금 500만 원을, 아산시치과의사회에서는 200만 원을 각각 후원했다. 충남도는 이번 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등 아산시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 농협중앙회 아산사랑 상품권 3,000만 원 기탁



● 대한치과의사협회 코로나 예방 지원금 500만원 후원

앞서 2월 5일에는 충청향우회 중앙회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엽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는 아산 현장집무실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접견한 뒤 초사2통 임시마을회관을 방문, 주민들과 만나 격려하고 김재호 초사2통장에게 성금 30만 원을 기부했다.

2월 7일(금)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손피켓 캠페인 시민과의 대화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7일 당일	건수 33건 인원 389명	건수 9건 인원 38명	횟수 4회 인원 102명	단체 20개 인원 249명
누계	건수 138건 인원 1,905명	건수 17건 인원 112명	횟수 26회 인원 766명	단체 95개 인원 1,027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김동일 보령시장 위문품 전달, 논산·계룡·서산·보령·청양·태안 시·군의회 의장 등 근무자 격려, 애경산업 위문품 전달,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활동 대표자 간담회
현장 대책본부	충남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5명 방문, 충남대책본부 현장운영 기자간담회,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 간담회
방문인사	김동일 보령시장, 김득응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We are Asan은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의 모델 제시"

2월 7일 양승조 도지사는 이날 아산 현장 집무실에서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손피켓 릴레이의 주역으로, 이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엄미영 씨와 이를 이어간 임대혁·황희민·권영채 씨 등 4명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운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국가적 위기 사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엄미영 씨는 우한 교민이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30일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과 함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아산 배방맘〉'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했다. 또 "우한에서 오는 우리 교민들을 환영하는 아산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손피켓 릴레이를 시작한다. 공포 속에서 떨었을 우리 교민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줍시다"라는 글도 게시했다.

엄미영 씨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요청



● 양승조 도지사,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손피켓 릴레이 시민과 면담

이 자리에서 엄미영 씨는 "손피켓만 들었을 뿐이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우한 교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했구나,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양승조 도지사에게 "전국이 경제적으로 모두 어렵다. 특히 아산과 진천이 타격이 크다. 대통령께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도지사로서 아산에 임시생활시설이 온다고 했을 때 마음이 좋았겠나. 기왕이면 아산이, 충남이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냐"라며 "그러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충남에 오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거부하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뭐가 되고, 우한 교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용 결정에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피켓 릴레이에 대해서는 "아산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드러냈으며, 위대한 일의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며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산지역 방문 릴레이 캠페인’ 동참 요청

양승조 도지사는 손피켓 릴레이를 넘어 많은 이들이 아산을 찾을 수 있도록, ‘방문 릴레이’에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아산지역 호텔 예약 취소와 온천 이용객 급감 등 지역경제 문제를 언급하며 “도에서는 손피켓 릴레이와 마찬가지로 방문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아산을 방문해 각종 회의뿐만 아니라 점심·저녁도 드시고, 차 한 잔 드시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을 찾고 식당에 가서 식사한 뒤, 이를 SNS에 올려 동참을 권유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충남연구원은 현장본부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지역사회 기반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 CNI 정책협력 현장세미나를 개최했다.

2월 8일(토) 아산 방문 릴레이 캠페인 동참 요청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8일 당일	건수 22건 인원 217명	건수 6건 인원 25명	횟수 2회 인원 26명	단체 14개 인원 166명
누계	건수 160건 인원 2,122명	건수 23건 인원 137명	횟수 28회 인원 792명	단체 109개 인원 1,193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위문 방문, 충남도의회 의원 및 ‘서천 더위드’ 봉사단 위문 방문
현장 대책본부	천안 양계농협 위문품 전달, 동천안·천안 농협조합장 위문 방문, 천안 푸른산악회 회원들과의 대화
방문인사	조철기·전익현·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 황천수 천안시의회 의원, 박창원 충남도립대 교수, 박영희 충남청소년진흥원장, 이필우 충남 한의사회장, 김정숙 도민참여예산위원장

아산 푸른산악회와 등반 후 현장대책본부 인근 식당서 오찬

2월 8일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 현장대책본부를 방문한 각계 인사 및 단체와의 대화에서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수용 이후 침체되고 있는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아산시민 힘내세요!’ 등의 SNS 홍보와 함께 아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도지사는 천안 푸른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의 시간을 가진 뒤 현장대책본부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천안 푸른산악회가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양승조 도지사는 서천 ‘더워드 봉사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2월 9일(일) 문재인 대통령, 아산 방문해 주민과의 간담회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9일 당일	건수 6건 인원 76명	건수 1건 인원 14명	횟수 -회 인원 -명	단체 5개 인원 62명
누계	건수 166건 인원 2,198명	건수 24건 인원 151명	횟수 28회 인원 792명	단체 114개 인원 1,255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문재인 대통령, 임시생활시설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주민 격려 및 위로,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농업인학습단체 위문품 전달,
지정근·김영권 충남도의회 의원 위문 방문

문재인 대통령, 수용 생활 교민에 손 흔들어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9일 중국 우한 교민들을 포용한 충남 아산을 전격 방문했다. 2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양승조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산과 충북 진천을 찾아 줄 것을 건의한 후 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천을 방문한 데 이어 아산을 찾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격려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각별한 지원 요청

이 자리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산 방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충남의 생각이고 신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생활시설 옆 마을에 현장집무실과 숙소를 설치한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뒤 “대한민국은 충청남도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도지사와 도민이 앞장서 나아가겠다”라며 “중앙정부,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예방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온양온천전통시장 방문

양승조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건의했다. “지역경제 피해와 위축에 대비하고,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아산과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승조 도지사와 함께 온양온천전통시장으로 이동, 시장을 돌아보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지원

충남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자금별 금액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소상공인자금 2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 관련 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원 규모 **300억 원**	지원 규모 **200억 원**
지원 대상 충남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 관련 기업**	지원 대상 충남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며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당 지원 규모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3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업체당 지원 규모 **5,000만 원**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3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소상공인 자금 5,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충남도에서 지원한다. 아산시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상권의 피해 우려에 대해 이자 보전금 1%를 추가, 3%로 확대 지원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3%로, 0.5%포인트 낮췄다.

2월 10일(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0일 당일	건수 **14**건 인원 **134**명	건수 1건 인원 22명	횟수 2회 인원 29명	단체 11개 인원 83명
누계	건수 **180**건 인원 **2,332**명	건수 25건 인원 173명	횟수 30회 인원 821명	단체 125개 인원 1,338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허태정 대전시장·황명선 논산시장 위문품 전달, 어기구 국회의원 근무자 격려
현장 대책본부	충남도 실·국·원장 회의, 2020년 도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예산연구회 합동회의, 이건휘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 위문 방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긴급임시회, 양계농협 위문품 전달
방문인사	어기구 국회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이건휘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

15개 시·군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 추진

2월 10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논산시의회 의장)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종식과 위축된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의회는 이날 아산 현장대책본부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 불안이 심화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임시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충남 15개 시·군 지역화폐 추가 발행, 충남 농민수당과 아기수당의 조기 집행 및 지역화폐 50% 대체 발행, 관공서 구내식당 주 2회 이상 휴무, 충남 15개 시·군 전통시장 장보기 및 지역 특산품 구매하기, 전국 지자체 각종연수 충남지역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승조 도지사-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19 대응 협력 논의

이날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 현장대책본부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집무실을 둬 아산시민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먼 길까지 와주어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허 시장은 “아산시를 포함해 현재 국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니 경제, 관광 등 우려했던 부분에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며 “신뢰감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월 11일(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아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1일 당일	건수 52건 인원 1,323명	건수 6건 인원 63명	횟수 1회 인원 30명	단체 45개 인원 1,230명
누계	건수 305건 인원 4,767명	건수 31건 인원 236명	횟수 31회 인원 851명	단체 243개 인원 3,680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장간담회,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위문금 전달, 황선조 선문대 총장 위문품 전달, 박병용 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오승환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근무자 격려, 박의열 농업회의소 회장·임춘숙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근무자 격려, 충남의약단체협의회 위문금 전달, 대한한의사협회 위문금 전달
현장 대책본부	보육체계개편 관련 전문 소통관 간담회
방문인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황선조 선문대 총장, 박병용 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오승환 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의열 농업회의소 회장, 임춘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아산지역에 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공감’

2월 1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영안전을 우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온양온천시장 시민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은호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 및 아산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과 양승조 도지사 등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지역경제 상황 및 현황을 점검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000억 원과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

아산지역은 관광호텔의 경우 지난 1월 28일 이후 600건(객실 574, 연회 26)의 예약이 취소됐다. 온천사우나는 코로나19 발생 전의 주말 기준 4,490여명이 방문했으나 발생 후에는 1710명으로 약 62%가 급감했다.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등 주요 관광지 역시 주말 기준 65.7%의 관광객이 줄었다. 이 자리에서 아산지역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등은 오일장 폐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주차장 사업비 및 저신용자 자금 지원, 아산사랑상품권 할인, 개인 위생용품 지원, 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박영선 장관에 건의했다.



● 박영선 장관·양승조 도지사, 아산지역 시장상인·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박영선 장관은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 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금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마케팅, 위생용품 지원 등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인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영선 장관, 마스크 5,000개와 손소독제 200개 상인 대표에게 전달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위해 특별한 배려 필요”

양승조 도지사는 “현재 각종 축제와 행사, 문화예술 공연 등의 취소로 지역 경제의 시름이 깊다”며 “관광과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아산지역 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충남도 역시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마스크 5,000개와 손 소독제 200개를 온양온천시장 오은호 상인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상담창구 직원을 격려하고, 상담 중인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박영선 장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에게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실사 생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량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보증 공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_아산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참석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은호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 및 아산지역 소상공인

박영선 장관 지원방안 요지

-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 융자, 특례 보증 등 실시
  *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한도 7,000만원, 대출기간 5년
  * (특례보증 : 1,000억원) 100% 보증, 보증료율 0.8%
-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마케팅, 위생용품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아산 상인 건의사항

- 오일장 폐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 주차장 사업비 및 저신용자 자금 지원
- 아산사랑상품권 할인
- 개인 위생용품 지원
- 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충남도, '지역경제 상황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

충남도는 2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대응 및 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역경제 상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충남도 경제실장이 팀장이 되어 총괄반, 고용노동반, 소상공·기업지원반, 투자대응반, 수출통산반, 산업대책반, 관광산업대책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될 경우 충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로 전환돼 운영된다.

TF는 정부 및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대중국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소비위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현장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충남연구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등 도내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 및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2월 12일(수)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한 다각적인 경영 지원 추진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2일 당일	건수 **28**건 인원 **850**명	건수 6건 인원 53명	횟수 2회 인원 27명	단체 20개 인원 770명
누계	건수 **333**건 인원 **5,617**명	건수 37건 인원 289명	횟수 33회 인원 878명	단체 263개 인원 4,572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최대규 자유총연맹회장 위문품 전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위문금 전달, 세종농협 및 대전농협본부장 근무자 격려, 취약계층 아동 호흡기 건강키트 전달식

현장 대책본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아산시 새마을협의회장 등 위문 방문,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 등 위문 방문, 설미경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장 등 위문 방문, 천안 더위드 봉사단과 간담회,
이주홍 천안시 행정지원과장 위문품 전달

방문인사

최대규 자유총연맹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 설미경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장

취득세 기한 연장 등 납세자에 지방세 지원

2월 12일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각종 지방세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의 추진에 나섰다.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확진자·격리자 등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지원된다.

'인력 감원 없는 휴업에 지원금 지급' 경영위기 지원 컨설팅

충남도와 아산시는 영업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도 추진했다. 이날 충남도는 아산 신정호 상인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조정과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 대해 안내하는 '경영위기 지원 컨설팅'을 진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에도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남도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및 휴업 등의 조치에 대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도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위기 지원 컨설팅

2월 13일(목)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3일 당일	건수 23건 인원 604명	건수 2건 인원 28명	횟수 4회 인원 168명	단체 17개 인원 408명
누계	건수 356건 인원 6,221명	건수 39건 인원 317명	횟수 37회 인원 1,046명	단체 280개 인원 4,858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노박래 서천군수 근무자 격려, 한영신·황영란 충남도의원 근무자 격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장 등 위문품 전달,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새농민회 위문품 전달, 조춘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회장 등 근무자 격려
현장 대책본부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정기총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기자브리핑, 충청남도 소비자단체 불공정거래중단 공동성명 발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운영위원회
방문인사	노박래 서천군수, 한영신·황영란 충남도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장, 조춘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회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70억 원 상반기 내 집중 투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도 크게 위축되면서 2월 13일 충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이날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 현장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과 수출기업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이를 위해 2020년에 지원되는 6,624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중 3,57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이 중 1,039억 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편성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2020년에 지원할 5,500억 원 중 3,570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고 추가로 430억 원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과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지역 봉쇄 피해 중소기업에 2,105억 원 상반기 내 지원

중국지역 봉쇄에 따른 대금 결제 및 물품 인도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지원규모 3,100억 원 중 2,015억 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고, 추가 조성한 609억 원을 업체당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2월 10일부터 소상공인 200억 원, 중소기업 300억 원 등 총 500억 원을 긴급 지원해 왔다.



● 양승조 도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소상공인의 안정 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2019년 122억 원에서 올해에는 410억 원으로 규모를 크게 늘렸다. 충남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473억 원에서 2020년 1,556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모바일 지역화폐는 2019년 2개 시·군에서만 발행됐지만 2020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발행하기로 했다.

수출 통상국 다각화로 대중 수출의존도 하향화 추진

코로나19 근원지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수출 위축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위기극복협의회 구성·운영, 수출기업 피해 사례조사 접수창구 운영, 충남도내 수출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피해를 파악해 사례별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도나 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통상국 다각화로 수출액의 30%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충남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위축에 대응해서도 기업애로 접수창구 설치·운영, 충남도-충남테크노파크 간 대응 대책반 TF 가동, R&D과제 수행 지원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모델을 발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부품 분야의 기술 역량 강화, 부품기업 거래선 다각화를 위한 세계화 지원사업 추진, 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 공모사업 등 맞춤형 세부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충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 상황대응 TF' 운영)

지방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내 **3조 8020**억 원

코로나19 피해 세제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납부금 분납, 지방세 감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	2020년 상반기	2020년 연간
소상공인/영세상인	**3,570**억 원	**6,624**억 원
	430억 원 (저금리 대출/특례보증)	
중국 봉쇄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2,015**억 원	**3,100**억 원
	609억 원 (업체당 2억~10억 원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 1억 5,000만 원
- 사회보험료 지원 : 2019년 **122**억 원 → 2020년 **410**억 원
- 지역화폐 발행 : 2019년 **122**억 원 → 2020년 **1,556**억 원
  -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전 시·군으로 확대 (2019년 2개 시·군)

수출기업 지원

- 수출위기극복협의회 구성·운영
- 수출기업 피해 사례 조사 접수 창구 운영
- 수출기업 현장방문 통해 피해 파악
  → 사례별 지원방안 수립, 추진
- 인도, 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통상국 다각화
  → 대중국 무역 의존도 하향화

주력산업 지원 (자동차·디스플레이)

- 기업애로 접수창구 설치·운영
- 충남도도-충남테크노파크 간 대응 대책반 TF 가동
- R&D과제 수행 지원창구 운영
  → 맞춤형 지원모델 발굴 시행
-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부품 분야 기술역량 강화
- 부품기업 거래선 다각화를 위한 세계화 지원사업 추진
- 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

일자리 대책

- 단기 일자리 사업 확대
  -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추가 발굴
-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
- 취업박람회 등 현장 맞춤형 구인·구직사업 확대
- 고용 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추진

도 예산 3조 8,020억 원 상반기 내 투입으로 경제활력 뒷받침

재정 조기 집행과 세제 지원도 확대, 강화했다. 2020년 상반기 내 3조 8,020억 원의 충남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납부금 분납,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가 발굴 등 단기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취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 취업박람회 등 현장 맞춤형 구인·구직 사업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위축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대인 접촉에 대한 공포로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대중 행사와 사교모임, 각종 여행 등이 취소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쇼핑과 관광 등 민간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어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큰 가운데, 중소 수출기업과 소재·장비·부품 기업 등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우리 도는 감염증 위기로부터 시작된 지역경제 위축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아가겠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제 지원 정책, 지역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14일(금)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근무 경찰관 위문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4일 당일	건수 28건	건수 6건	횟수 1회	단체 21개
	인원 490명	인원 51명	인원 22명	인원 417명
누계	건수 384건	건수 45건	횟수 38회	단체 301개
	인원 6,711명	인원 368명	인원 1,068명	인원 5,275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김정섭 공주시장·맹정호 서산시장·김홍장 당진시장·김돈곤 청양군수·박정현 부여군수·가세로 태안군수 등 근무자 격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위문금 전달, 한국의학연구소 위문품 전달, 리코플랜트 위문품 전달, 여성경제인연합회·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 등 근무자 격려
현장 대책본부	충남공공노동조합 2020년 단체교섭 및 상견례
방문인사	김정섭 공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2일 14일 양승조 도지사는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찾아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등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우한 교민 입소 이후 아산시민과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그동안 임시생활시설 운영이 무사히 이뤄지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며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2월 14일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및 전국에서 지원 나온 경찰관 500여 명이 24시간 경비에 나서고 있다.



● 양승조 도지사, 경찰인재개발원 근무 경찰관 위문

2월 15일(토) 우한 귀국 교민 193명 1차 퇴소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5일 당일	건수 **14**건 인원 **134**명	건수 3건 인원 10명	횟수 0회 인원 0명	단체 11개 인원 127명
누계	건수 **398**건 인원 **6,848**명	건수 45건 인원 368명	횟수 38회 인원 1,068명	단체 312개 인원 5,402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권처언 대한적십자사 충남협의회장 등 근무자 격려

“더 힘찬 일상 살아가시길 응원하겠다”

2월 15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수용됐던 우한 귀국 교민 193명이 1차로 퇴소했다. 이날 퇴소행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양승조 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정부합동지원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영 장관의 환송 인사, 버스에 탑승한 교민 배웅, 경찰인재개발원 정문 환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승조 도지사는 환송 인사를 통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임시생활시설 지척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해 함께 생활하고 일 해온 지역 책임자로서 기쁘고 감동스럽다”고 소회를 밝히고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삶과 주변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을 것”이라며 “이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힘찬 일상을 살아가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월 16일(일) 우한 귀국 교민 334명 2차 퇴소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6일 당일	건수 **11**건 인원 **417**명	건수 2건 인원 13명	횟수 0회 인원 0명	단체 9개 인원 404명
누계	건수 **406**건 인원 **7,255**명	건수 47건 인원 381명	횟수 38회 인원 1,068명	단체 321개 인원 5,806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이규희·이명수 국회의원 격려 방문,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 위문금 전달, 6.25 참전용사 충남지회 및 충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격려 방문, 전국 자율방범대연합회 임원진 격려 방문
현장 대책본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격려 방문 및 현장대책본부 운영상황 보고 청취
방문인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규희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2월 16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해온 우한 교민 334명이 퇴소하면서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이 종료됐다. 2월 15월 193명 퇴소에 이어 우한에서 귀국해 입소한 교민 527명이 격리 생활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날 2차 퇴소 행사에 참석해 귀가하는 교민들을 격려하고 귀가를 축하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교들을 환송하기 위해 나온 아산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아산을 비롯한 충남의 자긍심을 드높인 아산시민들의 지혜롭고 따뜻한 행동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환송 행사 후에 양승조 도지사는 진영 장관과 경찰인재개발원 옆 마을인 초사 2통 주민들을 만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 2차 퇴소하는 교민 환송

2월 17일(월) 실·국·원장회의 갖고 현장대책본부 운영 결산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7일 당일	건수 3건 인원 195명	건수 0건 인원 0명	횟수 1회 인원 33명	단체 2개 인원 162명
누계	건수 409건 인원 7,428명	건수 47건 인원 381명	횟수 39회 인원 1,101명	단체 323개 인원 5,946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여운영 충남도의원 격려 방문, 코로나19 예방 물품 전달식
현장 대책본부	충남도 실·국·원장 회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 등 행정력 집중

2월 17일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 현장대책본부에서 실·국·원장회의를 갖고 아산 현장집무실과 숙소 등을 18일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하던 우한 교민 527명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며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소회와 활동을 정리하고 소상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는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 수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해온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과 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 실·국·원장회의 후 기념 촬영



2월 18일(화) 임시 집무실·현장대책본부 등 철수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운영 상황

	합계	현안보고	회의·간담회	방문 격려
2월 18일 당일	건수 **5**건 인원 **283**명	건수 1건 인원 16명	횟수 1회 인원 50명	단체 3개 인원 217명
누계	건수 **414**건 인원 **7,711**명	건수 48건 인원 397명	횟수 40회 인원 1,151명	단체 325개 인원 6,163명

주요 활동 및 방문 인사

도지사 집무실 초사2통 마을주민 오찬 간담회 및 현장 라운딩, 김원천 노인복지협회장·국제로타리 3620지구 등 격려 방문

현장 대책본부 현장집무실 철수 및 후속 조치 브리핑

회의·간담회와 위문 방문 등 414회에 총 7,711명 방문

2월 18일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시 초사2통 마을회관에 설치한 현장집무실을 철수하고 도청으로 복귀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날 아산 현장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현장집무실 철수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지사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난 19일간 근무하고 생활했던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 임시 숙소를 철수한다"고 밝히고 "충남도지사가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은 도정 역사에서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임시 집무실 및 현장대책본부 철수 기자회견

이날까지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에서는 회의 및 간담회 40회, 방문·접견 325회, 현안보고 48회 등 총 414차례에 걸쳐 7,711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승조 도지사의 전자결재와 메모 보고 처리 건수도 247건에 달했다. 그동안 접수된 후원 건수는 143건에 후원 금액(물품 포함) 14억 3,664만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힘과 지혜를 모으자" 강조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더 챙기고 보듬어야 하는 부분을 더 확실히 살피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는 "도정이 아산에 머무는 동안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 숙소 운영 등으로 인해 혼잡스럽고 번잡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초사2통 주민을 비롯한 아산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차단과 예방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고, 우리 정부를 믿고 적극 협조해주셨다"라며 "언제가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우한 교민 임시 수용 및 아산 현장대책본부 운영 주요 일지

01. 29.
임시수용시설 아산 결정 정부 발표, 충남도 정부 방침 수용
및 아산 현장점검. 아산주민 반발('아산 격리수용 계획 철회'
청와대 청원 글 게시), 아산 초사 2통 주민 트랙터 등 동원 시위

01. 30.
양승조 충남도지사-아산 주민과의 간담회
아산시민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캠페인

01. 31.
도지사-아산 주민간담회 이후 아산시민 정부 방침 수용
우한 교민 1차 입소(194명)
아산에 도지사 집무실·현장대책본부·임시 숙소 설치

02. 01.
우한 교민 2차 입소(327명)

02. 02.
우한 교민 3차 입소(7명), 임시생활시설 확진자 1명 발생
각계 인사, 단체 등 아산 격려 방문 릴레이
도지사-아산시장 코로나 대응 협의

02. 03.
민갑룡 경찰청장 임시 수용시설 방문 격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우리가 아산이다' 플래카드 퍼포먼스
충남도 실국원장 회의(현장본부)

02. 04.
충남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
충남경제상황점검회의(현장본부)

02. 05.
아산 미술학원 원생들 손편지 100통과 종이학 등 격리
교민에 전달, 코로나19 기관별 대응상황 관리회의
한국방역협회 충남지부 방역단 발대식(현장본부)

02. 06.
아산시 '함께해요 아산, 힘내세요 대한민국' 릴레이
캠페인 전개, 대한치과의사협회·농협중앙회 등 도지사 접견















19일간의 기록

02. 07.
현장대책본부 운영상황 기자간담회
충남도 시·군 환경부서장 회의(현장본부)

02. 08.
도지사-천안 푸른산악회와의 대화
'서천 더위드' 봉사단 등 접견(집무실)

02. 09.
문재인 대통령 임시생활시설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 간담회

02. 10.
충남도 실국원장회의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제
침체 대책회의(현장본부), 허태정 대전시장 접견(집무실)

02. 1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장간담회

02. 12.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현장본부)

02. 13.
도지사 중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 기자회견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정기총회(현장본부)

02. 14.
도지사 임시생활시설 근무 경찰관 위문

02. 15.
임시생활시설 1차 귀국민 퇴소(193명)

02. 16.
임시생활시설 2차 귀국민 퇴소(334명)
진영 행안부장관 격려 방문

02. 17.
경찰인재개발원 및 정부합동지원단 85명 퇴소
코로나19 예방 물품 전달식(마스크 1만개)

02. 18.
도지사-초사2통 마을주민 오찬 간담회
현장집무실·현장대책본부·임시숙소 철수

Part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6. 우한 귀국 교민 격리 해제 및 귀가



CHUNGNAM
COVID-19

6-1 "아산과 충남에 감사합니다" 교민 527명 전원 퇴소

최종 검사 음성 판정으로 1차 193명 무사 귀가

2월 15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해왔던 우한 귀국 교민 중 1차로 193명이 퇴소했다. 지난 1월 31일 임시생활시설에 1차 입소한 지 15일 만이다. 이들 교민은 2월 13일 최종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아 퇴소가 확정됐다. 앞서 2월 14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1차 우한 귀국 교민들에 대한 최종 퇴소 전 전수진단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서 내일 차질 없이 퇴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고독한 격리 생활을 끝내고 감격의 귀갓길에 오르는 교민들을 위해 퇴소 행사가 마련됐다. 행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양승조 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정부합동지원단 직원 등이 참석했다. 진영 장관은 오전 9시 25분쯤 임시생활시설 내부의 관리실 스피커를 통해 교민들에게 환송 인사를 했다. 진영 장관은 "좁은 공간에서 2주 동안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부 방침에 잘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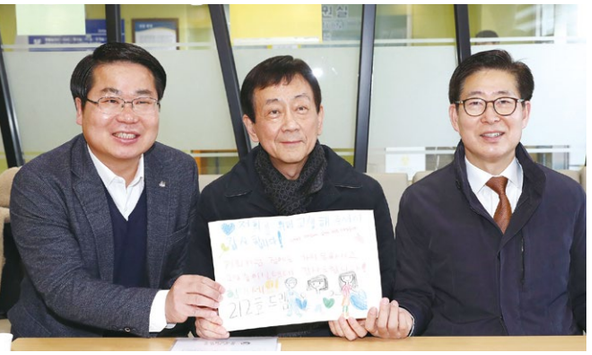
우한 교민_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부터 퇴소까지

- 1월 31일 **194명 1차 입소** (남 154명, 여 40명)
  충남도 아산 초사2통에 임시 집무실·현장대책본부 설치
- 2월 1일 **327명 2차 입소** (남 280명, 여 47명)
- 2월 2일 병원 격리자 **7명 입소**
- 2월 3일 아산 주민공동체 '누리보듬', 교민에 기부 캠페인으로 모은 마스크 전달
  아산시민 엽성식 씨, 이동식 화장실 청소 자원봉사
- 2월 5일 아산 미술학원 어린이들, 교민에 위문 편지와 종이학 전달
- 2월 6일 교양도서와 금연보조제 교민에 전달
  생일 맞이한 입소 어린이에 케이크, 로봇 등 선물 전달
  확진자 1명 퇴소, 격리
-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 경찰인재개발원 방문 위문, 격려
- 2월 15일 교민 **193명 1차 퇴소**
- 2월 16일 교민 **334명 2차 퇴소**,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 2월 17일 정부합동지원단 **85명 퇴소**
- 2월 18일 양승조 도지사 초사2통 주민과의 간담회
  임시 집무실·현장대책본부 철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길”

양승조 지사는 환송 인사를 통해 힘겨운 시간을 잘 버텨준 교민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임시생활시설 지척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해 함께 생활하고 일해온 지역 책임자로서 기쁘고 감동스럽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이어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삶과 주변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을 것”이라며 “이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힘찬 일상을 살아가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산시민의 따뜻한 포용 정신을 마음에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여러분을 보듬어준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마음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 충남의 따뜻한 품에서 추스른 몸과 마음으로 더욱 활기찬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교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2주간 교민들이 개발원에서 안전하게 머물다 돌아가게 돼서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격리 생활 어린이가 쓴 감사의 손편지

교민들의 격리 생활을 관리해온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양승조 도지사에게 격리 수용됐던 어린이가 정부합동지원단에 써서 선물한 편지를 공개해 뭉클한 감동의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편지에는 “저희를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집에도 가지 못하시고 고생 중이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212호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산시민들 “아산 잊지 말고 찾아 주세요”

우한 귀국 교민들의 수용을 받아들이고 격리 생활을 지척에서 지켜보며 2주간의 시간을 보낸 김재호 초사2통장은 “교민들이 고향에 가서 아산을 잊지 않고 찾아주면 감사하겠다”고 주문한 뒤 “주민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해 냈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갖추지 않았다. 퇴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나온 한 시민은 “교민들이 아산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뿌듯하다”며 “아산이 이들 교민에게 고마운 휴식처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우한 귀국 교민 퇴소

퇴소 행사에 이어 교민들은 정부합동지원단에서 마련한 도시락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뒤 11대의 버스에 탑승해 귀갓길에 올랐다. 양승조 도지사는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창 밖을 내다보며 손을 흔드는 교민들에게 박수를 치며 귀가를 축하했고,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선사하기도 했다. 양승조 도지사 등은 또 경찰개발원 정문 앞으로 이동, 손을 흔들며 버스를 타고 정문을 빠져 나가는 교민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뜻을 전했다.

2차 334명도 시민 환송 속에 즐거운 귀갓길

2월 16일에도 남아있던 334명 전원이 퇴소했다. 이들 334명은 지난 1일 2차 전세기편으로 들어온 교민 333명과 보호자 없이 들어온 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국내에서 자진 입소한 아버지 1명이다. 이들 역시 2월 14일 최종 검체검사를 진행해 2월 15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퇴소에도 양승조 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인근 주민들이 나와 교민들의 귀갓길을 환송했다.

교민들이 퇴소하는 이틀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초사2통 등 인근 주민들과 아산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집으로 향하는 교민에게 인사를 전했다. 아산시민들은 '힘든 시간 견뎌내신 교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에서 또 뵙겠습니다' 등 준비해온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교민들에게 일일이 손을 흔들어주며 환송했다.



● 교민들을 환송하는 아산 시민들



아산합창동호회원들 '애국가' 노래 선물로 환송

특히 1차 퇴소 시에는 아산시 합창 동호회원들과 시민합창단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교민들을 위해 따뜻한 노래 선물을 선사하기도 했다. 30여 명의 합창단원들은 '애국가'를 무반주로 불러주면서 교민들을 환영했다.

이동 시에는 입소를 위해 김포공항에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45인승 버스가 동원됐으며 2개 좌석당 1명씩 착석했다. 교민들은 충남, 충북·대전·호남, 서울, 경기, 대구·영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해 권역별 거점에 내려 각자 거주지로 돌아갔다. 충남권 노선 차량은 천안아산KTX역과 천안역, 천안고속버스터미널을 차례로 이동하며 교민들을 내려줬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교민들과 함께 생활해온 정부합동지원단 85명은 교민들이 퇴소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 건물 내외부 소독과 시설 내부 폐기물 처리·소각 등 환경정비와 방역까지 감독한 뒤 17일에 퇴소했다. 이들에게는 최대 6일간의 대체 휴가가 주어졌다.

우한 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퇴소

1차 퇴소 (2월 15일)	2차 퇴소 (2월 16일)
193명	334명

- 지역주민의 우려를 감안해 자가용이 아닌 임차버스 사용 퇴소
- KTX서울역, KTX동대구역, KTX대전역, 수원역, 천안역 하차

6-2 임시 집무실 및 현장대책본부 철수

도정 사상 임시 집무실 설치는 전시 상황 제외하고 처음

2월 18일, 충남도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설치된 도지사의 임시 현장 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 도지사 임시 숙소 등을 철수하고 도청으로 복귀했다. 지난 1월 31일 현장 집무실 등의 설치 이후 19일 만이다. 충남도지사가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은 도정 역사에서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날 아산 현장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현장집무실 철수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지사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난 19일간 근무하고 생활했던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 임시 숙소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격리 수용 생활에 잘 대처해 주신 교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여 희생을 감수해 주신 초사 2통 마을 주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께 더 없는 존경과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 임시 집무실 철수 기자회견



"초사2통 주민과 아산시민의 포용 정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

양승조 도지사는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지키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충남도정은 앞장서 최선을 다했고, 이런 우리의 역할과 활동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적 위기에 앞장섰던 초사 2통 마을 주민과 아산시민의 포용정신, 상부상조의 정신을 우리 역사는 자랑스럽게 기록할 것이며, 아산 방문 릴레이운동에 동참했던 도민과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우애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길이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임시 집무실 철수 기자회견

양승조 도지사는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강조했다. "도내 코로나19 마지막 접촉자가 18일로 격리 해제됐지만, 국내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16일 처음 발견되는 등 코로나19는 아직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더 챙기고 보듬어야 하는 부분을 더 확실히 살펴 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차단과 예방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고, 우리 정부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셨다"며 "언제가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양승조 도지사_'아산 현장집무실 철수' 기자회견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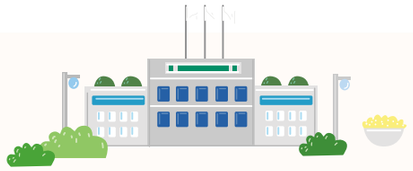
2020년 2월 18일

국가적 위기 앞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도지사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던 우리 교민 527명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장 지원 근무를 하던 방역당국의 공무원과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이 모두 복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격리 수용 생활에 잘 대처해 주신 교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신 경찰인재개발원 관계자분과 군, 의경 그리고 보건당국 관계자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여 희생을 감수해 주신 초사 2통 마을 주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께 더없는 존경과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아산 방문 릴레이운동을 통해 함께 해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 공동체와 우애의 정신으로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시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 충남도지사로서 무어라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앞장섰던 초사 2통 마을 주민과 아산 시민의 포용 정신과 상부상조의 정신, 함께 동참했던 도민과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우애의 정신을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충남도지사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 부로 지난 19일간 근무하고 생활했던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 그리고 임시 숙소를 철수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지사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은 우리 충남도정의 역사에서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충남도정은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고, 또 이러한 우리의 역할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 내 코로나19 마지막 접촉자가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도내 자가 격리자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는 시군, 의료진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해 총 28명의 코로나19 접촉자를 잘 관리하여 이 상황을 확신하게 통제하고, 도민과 언론에 이를 공유해 왔습니다. 저는 아직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챙기고 보듬어야 하는 부분을 보다 확실히 살펴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 등 경제 위축에 대비하고 앞장서는 동시에 청년과 고령층,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의 감염 예방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미래사회에는 감염병과 기후 위기 등 국가적 재난과 새로운 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잊지 않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앞장서서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평상시에 준비하는 도정이 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도민이 더 빠르게 안정되고 더 든든하게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이라는 지방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도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을 준수해 주시고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 등에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저와 우리 도정이 이 곳에 머무는 동안 현장집무실과 대책본부, 그리고 숙소 등 운영으로 인해 혼랍스럽고 번잡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넉넉한 품으로 이해해 주신 초사 2통 주민 여러분과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초사 2통 마을 주민들과 기념 촬영

“여러분들을 뵈러 아산에 더 자주 오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기자회견에 이어 초사 2통 마을 주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동안 초사 2통 주민들의 포용과 희생정신은 국가적 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절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인사 말을 통해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주신 김재호 초사 2통장님, 김재호 새마을지도자님, 이경순 부녀회장님 등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귀가하는 교민들이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아산 시민이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하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는 “공동체 정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위기극복의 선도모델을 아산 시민과 초사2통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드셨다”고 평가하고 “아산에 여러분들 뵈러 더 자주 들르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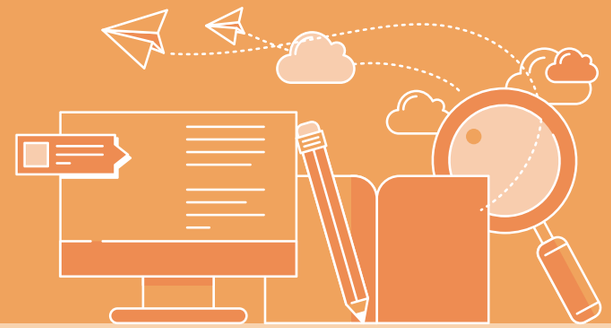
양승조 도지사는 마을 주민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아산시 현장본부, 이동진료소, 철수작업을 하는 충남도 현장대책본부를 차례로 들러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아산 현장을 떠났다.

양승조 도지사 - 아산 현장집무실 주요 업무 일지

2월 1일	현장 집무실 업무 개시,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대응상황 공유 및 대책 논의
2월 2일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재난평가 계획보고회
2월 3일	코로나19 대책 및 정책 현안협의, 제75차 충청남도 실·국·원장 회의, 제1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
2월 4일	충남경제 상황점검 및 현장간담회,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 문재인 대통령에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공식 건의
2월 5일	충남도·아산시·아산경찰서 방역대책 및 임시생활시설 경비 상황 등 대응방안 협의
2월 6일	충남도청 공무원 임용장 수여
2월 7일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손피켓 캠페인 시민과의 대화
2월 8일	천안 푸른산악회 회원과 등산 및 오찬 간담회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 캠페인 참여 요청)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주민 간담회 참석(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건의)
2월 10일	충남도 실·국·원장 회의, 허태정 대전시장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 방안을 논의
2월 1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장간담회 (아산지역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등은 오일장 폐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주차장 사업비 및 저신용자 자금 지원, 아산사랑상품권 할인, 개인 위생용품 지원, 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건의)
2월 12일	취약계층 아동 호흡기 건강키트 전달식
2월 1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2월 14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근무 경찰관 격려
2월 15일	우한 교민 1차 최소 환송행사
2월 16일	우한 교민 2차 퇴소 환송행사
2월 17일	충남도 실·국·원장 회의
2월 18일	현장대책본부 및 현장집무실 철수



양승조 도지사 초사2통 주민과의 간담회



일시
2월 18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초사2통 마을회관

참석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최병옥 아산적십자협의회장, 김석환 적십자 구호복지팀장, 김재호 초사2통장, 김재호 새마을지도자, 이경순 부녀회장, 임경숙 부녀회 총무, 정완채 부녀회 반장, 이면구 노인회장, 이석재 노인회 부회장, 이종복 노인회 감사, 김경희 노인회 총무, 김영애 초사2통 주민, 이계열 초사2통 주민, 진경자 초사2통 주민, 조명묵 초사2통 주민, 김기웅 초사2통 주민, 이종기 초사2통 주민, 윤종호 초사2통 주민, 조명기 초사2통 주민, 송달상 온양5동협의회장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주신 김재호 초사2통장님, 김재호 새마을지도자님, 이경순 부녀회장님 등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님 및 최병옥 아산적십자협의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우리 아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되어 생활하시던 우한교민 527명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분들을 환송해드렸는데요.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아산시민이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하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크신 결단, 성숙한 대응이 이뤄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체 정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위기극복의 선도모델을 아산시민과 초사2통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산 임시생활시설 결정 수용 이후, 저 역시 집무실과 숙소를 여기로 옮겨 생활한 지 오늘로 꼭 19일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우선적 과제였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며 따뜻하게 격려해주셨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때나 그래왔습니다.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 왔고, 그 빛나는 우리의 전통이 아산의 'We are Asan'을 시발점으로 다시 한 번 또 이겨 낼 수 있게 한 마중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여러분이 해낸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백서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이, 우리 충남이 아픔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이뤄낸 오늘의 값진 성과를 재난 극복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난 것이 아니므로 우리도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제가 항상 도민들께도 당부드리고 있듯이, 불특정 다수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일상의 소비활동이 침체되지 않도록 특히, 이곳 아산지역에서 각종 회의나 행사가 계속 개최되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아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 지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아산에 여러분들 뵈러 더 자주 들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Part 1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7. 종합 평가



CHUNGNAM
COVID-19

우한 귀국 교민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격리 수용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대응과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례로 평가된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일인 2020년 1월 31일부터 퇴소일인 2월 16일까지의 17일의 일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긴장과 혼란이 고조되던 시기, 지방정부는 기민한 대응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했다. 임시생활시설 현장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헌신적 역할에 나선 충남도와 아산시의 '코로나19 리더십'도 주목을 받았다. 지방정부의 헌신적인 역할에 힘입어 자치단체와 시민, 지역사회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며 위기에 대응했다.

시민정신도 빛났다. 아산 시민들은 포용과 배려의 정신으로 우한 귀국 교민을 보듬었고 나아가 화합과 협력을 통해 시민 정신의 새로운 좌표를 보여줬다. 지역경제 침체라는 위기에 빠진 아산시를 위해 시민들은 SNS 캠페인을 통해 서로를 응원했고 이는 충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성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우한 귀국 교민 임시 수용의 시작과 완수는 코로나19 대응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았고 아산은 국민에게 특별한 도시로 기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4-3 국가적 위기 대응의 선도모델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조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격리 수용과 2차 감염 방지의 성공적 완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의 국민적 불안감을 일정 정도 해소하면서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우한 교민의 귀국을 하루 앞둔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우한 교민의 긴급 이송과 격리 수용을 포함한 코로나19의 예방과 차단은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일 수 없다”

우한 귀국 교민이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1차 입소한 1월 31일, 양승조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현장의 상황을 확신하게 통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도지사의 ‘국가적 위기’라는 상황 인식은 ‘현장 집무실 설치’라는 초유의 고강도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날 충남도는 임시생활시설로부터 100여m 떨어진 초사2통 마을에 현장대책본부와 도지사 집무실 등을 설치했다. 우한 교민의 입소와 동시에 기민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다.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10일째인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을 전격 방문했다. 우한 귀국 교민을 포용한 아산과 충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방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에 나와 있는 국가이고, 현장에 나와 있는 정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충남의 생각이고 신념”이라며 “대한민국은 충청남도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도지사와 도민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산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

우한 귀국 교민은 2주간의 격리 수용을 무사히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귀가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 기간에 현장에서의 총력 대응을 통해 우한 교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꾀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의지를 결집한 결과였다.

2020년 10월 21일 제75회 경찰의 날 기념식은 우한 귀국 교민이 격리 수용되었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도시가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75회 경찰의 날 기념사 주요 요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 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 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 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주신 아산 시민들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4-3 위기 상황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의 수범사례

충남도의 '코로나19 리더십' 주목

우한 귀국 교민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 수용 과정에서 보여준 충남도의 '코로나19 리더십'은 큰 주목을 받았다.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주민들과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으며 주민들을 설득했고 주민들은 '대승적 수용'으로 화답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후에도 초사 2통 마을에 현장대책본부와 임시 집무실, 임시 관사를 설치해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그러면서 방역 활동 등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민 민원도 꼼꼼히 챙겼다. 주민 요구 사항인 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외출 금지, 의사 인력 상주, 소독시설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 초사동 주민의 민원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신뢰가 모아졌고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현장에서 숙식 해결하며 총력 대응

충남도의 현장 중심의 대응과 지원도 새로운 행정 모델로 평가된다. 충남도지사가 현장에 집무실과 숙소를 옮겨 숙식을 해결하며 도정을 운영한 사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시상황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양승조 도지사는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18일 동안 초사동 마을회관에 도지사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고 숙소도 경찰인재개발원 정문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마련해 부인 남윤자 씨와 함께 생활했다. 식사는 인근 식당을 이용해 모두 해결했다. 도정 업무는 현장집무실에서 모두 처리했고 매주 월요일 개최하는 실·국·원장회의와 지방정부회의 등 도정 주요 회의 등을 현장대책본부에서 개최했다. 인근에는 아산시장의 현장 시장실이 설치됐고 충남도의회 현장대책본부, 아산시 재난대책본부, 아산시보건소 이동진료소 등이 잇따라 설치 운영되며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 교민들을 받아주신 아산과 진천의 주민 여러분, 고맙다"라며 "격리시설 옆에 사무실을 차리신 양승조 충남지사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남도의 '코로나19 리더십' 단계별 상황과 대응

	상황	충남도 대응
발단	중국 우한 교민 고립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전개	정부, 우한 교민 임시 수용 발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위기	아산 주민 격렬 반발	주민과의 지속 대화로 설득, 현장 집무실 설치 및 주민 지원대책 발표
절정	아산 시민, 우한 교민 수용 결정	현장 집무실 설치 및 총력 대응
결말	포용과 배려의 시민정신 발현	우한 교민 무사 귀가 지원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거버넌스 체계 형성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거버넌스 체계 형성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 수용 기간에 형성된 자발적인 거버넌스 체계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물론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이 책임감을 지니고, 누구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충남도 현장대책본부와 도지사 임시 집무실에는

매일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이 방문하여 협력과 지원에 나서는 등 뜨거운 성원이 계속됐다. 우한 귀국 교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쇄도했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위축된 아산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아산지역 방문하기, 음식물 팔아주기 등의 자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4-3 포용과 우애의 시민정신 발현

"중국 우한교민을 품은 아산 정신은 역사에 기록될 것"

아산의 시민정신은 전 국민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1월 29일 우한 교민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격리 수용이 결정되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은 사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루 만에 '수용'과 '환영'으로 입장을 바꿨다. 나아가 우한 귀국 교민의 격리 수용 기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했다. 우한 귀국 교민에 대한 포용과 배려의 시민정신은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손피켓 캠페인에 이어 아산 시민들의 다양한 기부운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더욱 의미 있게 승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3일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한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포용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0년 10월 21일 제75회 경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중국 우한 교민을 품은 아산 정신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 이어져

아산 시민들의 시민정신은 국민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아산 음봉 포스코아파트단지의 주민공동체인 '누리보듬'은 마스크 기부 캠페은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마스크를 우한 교민과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에 전달했다. 아산시 배방읍 소재 감성아이새움 미술학원(원장 김혜경)의 원생들은 고사리손으로 쓴 손편지 100여 통과 종이학 등을 격리 수용 중인 교민들에게 전달해 큰 위로가 되기도 했다. 이동식 주택 제작업체인 '이앤후레쉬(주)'의 대표 엽성식 씨는 경찰인재개발원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고 매일 4차례씩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이후 아산지역 경제가 위축되자 아산시와 아산 시민들은 '함께해요 아산, 힘내세요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고 이는 국민적 성원으로 이어졌다.

아산 시민정신은 '공동체적 자기애'의 표현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11월 25일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Inclusive Korea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전·세종·충남 대토론회'에서 아산의 시민정신은 '공동체적 자기애'라고 지칭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조대엽 위원장은 "우한 교민의 수용을 놓고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곧 주민들 스스로 성찰을 통해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환영한 것은 '공동체적 자기애'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지역이 오히려 중앙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에 헌신성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4-3 전국 각계각층의 성원과 후원

우한 귀국 교민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격리 수용은 전 국민적 성원으로 이어졌다. 우한 귀국 교민이 입소한 첫날부터 퇴소할 때까지 아산과 충남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기부와 후원이 쇄도했다.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17일간 접수된 후원 건수는 143건에 후원 금액은 14억 3,664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성금은 19건에 1억 1,900만 원, 후원 물품은 94건에 13억 676만 원. 위문품은 30건에 1,088만 원이었다. 전국의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기업, 금융기관, 대학, 동호인 모임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떡과 다과, 과일, 음료수 등 음식류 등 기부된 물품은 고독한 격리 생활을 하는 우한 교민과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 아산 시민들에게 배부됐다.

현장대책본부 운영 기간 후원 및 방문 현황

후원

총액
143건 14억 3,664만 원

성금
19건
1억 3,900만 원

물품
94건
13억 676만 원

위문품
30건
1,088만 원

방문

325건 7,711명

충남도가 운영하는 현장대책본부와 임시 도지사 집무실에도 연일 격려와 응원의 방문이 계속됐다. 도지사 집무실의 방문 및 접견 건수는 325회, 방문객 수는 7,711명으로 하루 평균 17회에 405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우한 귀국 교민과 아산 시민에 대한 성원이 모아진 것은 코로나19 발생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승조 도지사는 우한 귀국 교민의 퇴소가 마무리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여 희생을 감수해 주신 초사 2통 마을 주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께 더 없는 존경과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아산 방문 릴레이운동을 통해 함께 해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 공동체와 우애의 정신으로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시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4-3 언론 보도 및 평가

1 우한 교민 포용 '아산 시민정신 빛났다'

"연대와 포용으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극복"

언론들은 우한 귀국 교민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상황을 연일 속보로 보도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아산 시민들이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수용을 반대했다가 하루 만에 대승적 수용에 나선 데 이어 격리 생활 중인 교민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함께 지속적인 온정을 베푼 것에 대해 '아산 시민정신이 빛났다'며 상세한 내용을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언론들은 우한 귀국 교민을 환영하는 내용의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손피켓 캠페인과 시민들의 다양한 기부운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물품 기부 등을 보도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구분 짓기가 아닌, 연대와 포용으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 나가자는 움직임",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는 우리의 전통을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난을 극복하는 우리의 전통이 빛 발해"

대전일보는 2월 2일 〈'우리가 아산이다' 위기 때 빛난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는 우리의 전통을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SNS를 통해 번지는 '우리가 아산이다' 캠페인은 마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너도 나도 모으기에 동참했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환난상휼(患難相恤: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다)의 정신적 유산과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보도했다.

또 중도일보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시민정신의 승리(월요논단, 2월 3일 보도), 연합뉴스는 〈격렬 반발→수용…아산 '우한 교민 포용' 시민 정신 발휘〉(1월 31일 보도), 한국일보는 〈배척만 하기엔...시민들 '우한 교민 포용' 빛났다〉 등의 보도를 통해 아산의 시민 정신이 지닌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2 충남도의 현장 신속대응 등 '코로나19 리더십'

"신뢰를 통한 위기 극복의 행정 사례"

우한 귀국 교민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격리 수용 결정부터 입소를 거쳐 퇴소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 리더십도 화제를 모았다. 양승조 도지사는 주민들의 계란 세례를 맞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주민 설득에 나섰고 마침내 주민들의 반대 하루 만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는 특히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임시 집무실과 숙소,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인근 인근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대전일보는 2월 21일 〈양승조 지사의 '코로나19' 리더십〉 칼럼을 통해 "양 지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줬다. 현장 집무실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고 19일 밤낮을 거의 아산에서 보냈다. (중략) 양 지사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통해 나름의 정치력을 보여줬다. 현장집무실을 설치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양승조 리더십, 코로나 리더십'이라는 말을 나오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또 동양일보는 2월 18일 〈'아이러브 아산' 이끌어낸 양승조 리더십〉을 통해 "양 지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한 교민을 수용하는 데 반발하는 주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우한 교민이 귀가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도청 안팎에선 '신뢰를 통한 위기 극복의 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격리시설 옆에 사무실을 차리신 양승조 충남지사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2 방역 대책 및 대응 활동

❶ 국내 환자 대응

'신천지 사태' 이후 확진환자 집단 발병 지속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지며 국내서도 2020년 1월 19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격상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0년 1월 27일 4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위기경보는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2월 20일 신천지 교회발 대구·경북의 집단감염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2월 29일 신규 확진환자가 최대 813명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화된 방역 활동에 나섰다. 그에 힘입어 4월 13일 하루 신규 확진환자는 25명으로 감소하는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대구, 경북의 확진자 폭증은 진정세로 들어섰다. 하지만 성남, 수원, 부산의 교회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람들과 밀접접촉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확진환자 집단 발병이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충남 6월 30일까지 확진환자 169명 발생

충남도는 2월 21일 계룡시에서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천안 줌바댄스 관련 102명, 서산 산업단지 관련 8명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4월 10일 기준 총 13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2020년 6월 30일(22시 기준)까지 충남도의 코로나 19 확진환자는 169명이 발생하였다. 이중 격리 해제자가 150명, 격리 입원 중 19명으로 집계되었다. 총 검사자는 4만 7,894명에 달하였다.

충남도내 시·군별 확진자, 격리 해제, 격리 입원 현황

2020. 06. 30. 기준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확진자	169	111	3	-	17	9	6	3	-	1	13	1	-	4	-	1
격리해제(퇴원)	150	108	1	-	13	9	2	1	-	-	11	1	-	3	-	1
격리입원	19	3	2	-	4	-	4	2	-	1	2	-	-	1	-	-

충남도내 집단감염 사례별 현황

2020. 06. 30. 기준

총계	피트니스 관련자 (천안·아산)				한화 토탈	타지역 감염	해외 유입	은혜 의강 교회	규암 성결 교회	이태원 관련	삼성 서울 병원	리치 웨이	대건 테크	방문 판매 관련	그 외				격리 해제
	소계	강사	수강생	가족 등	서산	천안 아산 금산	천안 홍성 태안 부여 논산	천안	부여	공주	서산	천안 아산	아산	공주 논산 계룡 부여 홍성	소계	군인	신천지	원인 불명	
169	103	5	52	46	8	8	17	1	9	1	1	3	2	10	6	1	1	4	150

검사 **4만 7,894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기준)

양성 **169명** 음성 **4만 7,260명** 검사 중 **465명**

충남도는 환자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발생규모 파악과 전파 차단,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충남도 즉각 대응팀을 투입해 지역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증상자에 대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해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증세의 경중에 따라 천안, 홍성, 공주, 서산의 전담 병원 읍압병동과 천안의료원의 일반 병실, 생활관리시설에 입원 조치하였다. 음성판정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14일 자가격리 조치 후 자가진단 앱을 활용해 매일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1 첫 확진 환자 발생 대응

충남 첫 확진환자 2월 21일 계룡시에서 발생

충남도의 첫 확진환자는 2020년 2월 21일 계룡시에서 발생하였다. 대구 군부대 소속 군인(20대)이 계룡 군부대 출장 중이던 2월 20일 오전 9시경 발열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하며 계룡시보건소를 방문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군의 요구에 따라 단국대 병원이 아니라 성남시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으로 입원치료 병상을 배정했고, 계룡시보건소는 21일 오전 2시 30분경 보건소 격벽 구급차로 환자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충남도는 오전 2시 15분부터 역학조사반 즉각 대응팀 10명을 소집해 계룡시보건소와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모두 22명이었으며 타 시·도지역의 접촉자는 해당 시·도로 이관하고 충남도내 거주 접촉자는 검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확진 환자가 이용한 시내버스를 소독 방역하고 식당 4곳을 폐쇄 후 내부 방역(소독)하였다. 계룡시는 노인복지관을 휴관하고 경로당, 무료 경로식당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어린이집 36곳도 2주간 휴원에 들어갔다.

2 천안 피트니스센터 집단감염

충남 첫 집단감염 발생으로 초긴장

2020년 2월 21일 계룡시에서 첫 확진자(군인)가 발생한 이후 3일간 확진자가 없던 충남도의 확진자 수는 2월 24일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고 2월 27일 하루 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날 확진자 중 3명의 증상 발생 시점이 비슷하여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공동 노출로 의심되는 장소는 천안의 실내체육시설이 유일하였다. 2월 29일 오후 3시 기준 천안시 총 확진자는 총 43명에 달했고 인근 아산 6명, 계룡 1명 등을 합쳐 충남도 확진자는 50명으로 늘었다.

천안시의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충남도는 비상방역대책단(단장 행정부지사)을 설치하고 충남도청에는 비상방역상황실, 천안에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투트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역관, 통제관, 역학조사관, 조사요원 등 총 80명의 대응인력을 가동하였으며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주요 확진환자 중심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 2월 29일까지 30명의 인력을 역학조사에 투입하였다. 3월 1일 질병관리본부는 천안시의 확진환자 다량 발생에 역학조사반 즉각대응팀 2명을 지원해 감염원인 규명에 나섰다.

충남도·천안시, 고강도 방역활동 전개

정부당국과 충남도의 역학조사 결과, 천안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이루어진 줌바댄스 강사와 수강생을 중심으로 초기 감염이 이루어졌고 이후 수강생 가족의 지인으로까지 전파되면서 집단 발병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줌바댄스는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에서 중간중간 함께

소리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특성이 있어 비말감염이라는 코로나19의 전파 특성과 맞물려 집단 발병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2월 28일부터 보건소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동남구 선별진료소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2개 라인의 운영에 돌입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천안지역을 ▲1권역-동남구(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2권역-서북구(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권역-기차역, 전철역, 지하상가, 종합터미널, 전통시장 ▲4권역-대중교통시설 버스 내부방역 395대(시내버스 3개 회사) ▲5권역-확진자 이동 경로로 나누어 5개반, 5인 1조의 방역소독팀이 4월 29일까지 확진자 이동 경로,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버스) 등에 대해 매일 방역 소독을 하였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주변에 대해 즉각 방역을 완료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속해서 실시하였다.



● 방역요원들이 천안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한 아파트 입구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줌바댄스 강사 통해 4차 전파까지 퍼져나가

천안시는 각 읍·면·동의 예비비를 투입해 구청의 책임하에 소독을 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도 계속해서 실시하였다. 시민들의 불안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현황, 이동 경로 및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행동수칙과 예방수칙 등을 천안시 홈페이지와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또 신천지 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신천지 교회 8개소(교회, 부속기관)에 대해 방역소독 및 폐쇄조치하고 2월 26일부터는 도서관과 박물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을 전면 휴관했고, 행사와 전시, 시티투어, 공연, 교육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 외에도 기업체에는 근로자들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충남도와 천안시의 긴급 대응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전파 경로는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강사 집단에서 전파됐고,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 수강생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수강생에서 기타 가족과 지인으로 옮겨갔다. 추가전파는 확진된 강사 8명 중 5명에서 4차 전파까지 나타났고, 그 외 강사 3명으로 인한 2차 전파는 없었다. 줌바댄스 강습을 통한 전파가 65명(56.0%)이었으며, 가족을 통한 전파가 37명(31.9%)으로 전체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 확진자는 남성이 29명(25.0%), 여성이 87명(75.0%)이었다. 확진자의 거주지는 워크숍과 강습이 이루어졌던 천안이 95명(81.9%)으로 가장 많았다.

총 확진환자 116명 중 수강생이 57명

확진자의 거주지는 줌바댄스 관련 워크숍(2020년 2월 15일)이 열렸던 충남 천안이 95명(8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도 아산과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각각 8명(6.9%), 그 외 지역은 대구가 2명(1.7%), 경기도가 2명(1.7%), 서울이 1명(0.9%)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천안에서 줌바댄스 강습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 2020년 3월 11일까지 총 116명이 줌바댄스와 관련된 확진자로 집계됐다. 확진환자 116명은 전국 준바댄스 워크숍 참석자 8명, 10개 운동 관련 시설의 줌바댄스 수강생 57명, 워크숍 참석자와 수강생의 가족, 지인 등 57명이다.

천안 피트니스센터 집단감염 현황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감염경로				
	남성	여성	1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천안	아산	세종	대구	경기	서울	줌바 댄스 강습	가족	동료	지인	기타
환자수(명)	29	87	5	10	23	44	14	9	95	8	8	2	2	1	65	37	4	3	7

천안 피트니스센터 집단감염은 댄스 강습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의 최초 보고 사례이다. 이전의 시설 및 병원에서의 집단감염과는 다르게 격한 유산소 운동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건강한 일반 인구집단에서도 비말 전파를 통해 다수가 감염될 수 있음이 확인된 사례였다. 이번 사례는 충남도가 향후 실내 운동공간을 통한 코로나19의 집단발병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서산시 한화토탈 집단감염

산업단지 내 직장 집단감염 최초 사례

2020년 3월 9일 서산시 첫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동문동 거주 50대 남성으로 대산공단 한화토탈에 근무자였다, 한화토탈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0일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는 남성 4명과 여성 2명으로 한화토탈 집단감염은 3월 11일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집단발병은 산업단지 내 직장에서 감염된 최초 사례이다.

충남도는 역학조사 통제관 및 행정요건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 즉각 대응팀 10명을 파견,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3월 10일 한화토탈 집단감염 역학조사에는 총 37명(충남도 13명, 서산시보건소 24명)이 투입되었고 3월 11일에는 투입 인원을 총 49명(충남도 17명, 서산시보건소 32명)으로 늘렸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서산 첫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연구소 직원과 통근버스를 함께 이용한 한화토탈 직원 등 19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관 접촉자 102명 검사 등 신속 대응

역학조사팀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최초 증상발현일 1일 전부터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였고,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큰 범위를 선정하여 접촉자로 분류하였다. 3월 12일까지 확인된 한화토탈 확진자와 연관된 접촉자는 총 102명으로 직장동료 66명, 가족 20명, 의료진 4명, 지인 2명, 기타 10명으로 확인되었다. 접촉 대상자는 최대 잠복기 14일 동안 자가격리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검사토록 하였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한화토탈 첫 확진자가 근무하던 연구동과 식당은 폐쇄조치 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기숙사에 대해서도 출입통제를 하면서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한화토탈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사원에 대해서도 전원 검사를 실시하였다. 서산시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서산의료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서산 종합운동장에도 설치해 운영하였다.

서산시 한화토탈 집단감염 현황 및 특성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감염경로	
	남성	여성	2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서산시	A시	B시	동료	가족
환자수(명)	6	5	2	3	0	6	0	8	2	1	7	3

시설 폐쇄, 격리 조치 등으로 추가 전파 차단

전체 확진자 11명의 평균연령은 42.9세, 중앙값은 52세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총 6명(5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대(27.3%), 20대 미만(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6명(54.5%), 여성 5명(45.5%)이었다. 확진자의 거주지는 직장 주소지인 충청남도 서산시가 8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A시와 B시 거주자가 각각 2명(18.2%), 1명(9.1%)이다. 감염경로는 직장동료가 7명(63.6%)으로 가장 많았으며, 확진자의 가족이 3명(27.3%)으로 나타났다.

한화토탈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통근버스 소독 및 마스크 착용 준수, 기숙사 공동이용시설 폐쇄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사내 확진자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통근버스기사 38명 중 16명을 검사하고, 22명에 대해 검사 권고 조치하였다. 또 전 직원 1,539명 중 541명 자율격리 및 검사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회사 내 대규모 추가적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4 부여 성결교회 집단감염

예배 참석자 190명 전수검사

3월 24일 충남 부여군에서도 40대 부부가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도 즉각대응팀과 부여군보건소 인력으로 구성된 충남도 역학조사팀은 GPS 및 카드사용 내역 조회를 통해 이들 부부의 자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4월 5일까지 부여군에서는 총 11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충남도 즉각대응팀과 부여군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의 집단발병이 확인되었다.



● 부여 규암성결교회 예배 참석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학조사팀은 이들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최근에도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을 확인하고 접촉자 파악에 나서 직장 사무실의 동료 직원 50명 중 17명과 고객 2명을 접촉자로 분류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였다. 직원 밀접접촉자 4명은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부가 매주 주말 예배에 참석하는 성결교회의 교인은 총 350여 명으로, 이들 부부가 참석한 3월 22일 주말 예배에 참석한 교인은 190명이었다. 역학조사팀은 교회 CCTV를 통해 접촉자를 분류, 교회 내 유치원 2곳은 4월 5일까지 휴원하도록 하였다.

최초 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3월 22일 예배 참석자에 대한 위험 노출력이 낮아 교인 전체를 위험군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접촉자로 분류된 교인과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교인에게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타나면서 3월 22일 예배 참석자 19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였고 추가 확진환자 2명을 확인하였다. 이후 알려지지 않은 감염자를 밝혀내고자 교회 모든 교인 390명(22일 예배 참석자 190명 포함)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추가 확진환자는 없었다. 또 확진환자 11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 교회와의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1명은 증상발현 일시가 입국 시기와 같아 교회와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었으며, 또 다른 1명은 기독교 교인이었으나 집단 발병한 교회와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교회의 출석 교인임이 확인되었다.

부여 성결교회 집단감염 현황 특성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국내	국외(영국)
환자수(명)	5	6	1	2	3	2	1	2	10	1

사회적 거리 두기 미준수 등이 감염 원인

총 확진환자 11명에 대한 접촉자 수는 총 121명으로 동거가족 13명, 직장 동료 33명, 교회 4명, 지인 13명, 일반접촉 49명이었으며,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보건소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조치가 시행되었다.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는 즉시 방역을 시행하였다.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발생한 부여군의 확진환자 11명 중 교회 관련 확진환자는 총 9명이며, 나머지 2명의 확진환자는 해외유입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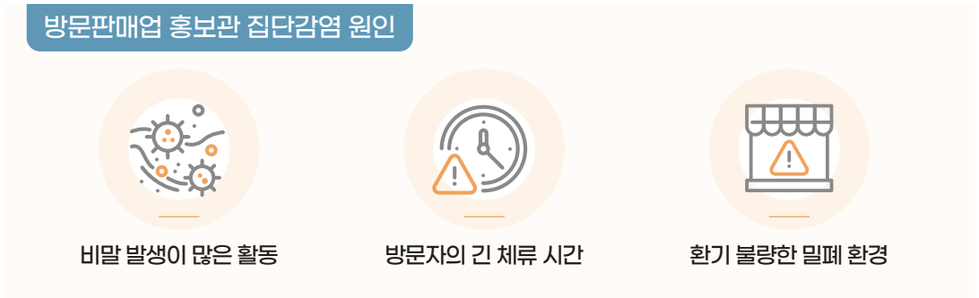
1명,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인 미상 1명이었다. 교회에서의 집단발명은 역학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교인들의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5 방문판매시설 집단감염

방문판매 홍보관 통해 전국 확산

집단감염 발생 중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 서울 방문판매(리치웨이) 및 대전 방문판매(101세홈닥터, 힐링랜드23, 자연건강힐링센터 등)와 관련된 사례였다. 서울 방문판매시설(리치웨이)의 경우 6월 2일 서울 관악구 소재 노인 건강용품판매 다단계 홍보관 리치웨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던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6월 3일 업체 직원 2명, 판매 활동자 3명, 6월 4일 직원 2명, 판매 활동가 1명과 그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에 달했다. 해당 업체는 5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판매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관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강연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홍보를 하기에 집단감염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역학조사 결과 방문판매업체 내의 노래 따라 부르기 등 침방울(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긴 체류 시간, 환기 불량한 밀폐 환경 등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위험시설로 드러났다. 또 종교시설, 직장, 학원, 다중이용시설(식당, 실내 운동시설)을 통해 추가 전파되며 급속하게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6월 22일 기준 방문자 41명, 접촉자 157명 등 총 198명이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2명, 경기 56명, 인천 24명, 강원 3명, 충남 3명 등이었다.



리치웨이 방문자·동거자에 대한 관리 확대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와 관련 충남도의 확진자는 6월 5일 발생하였으며 충남 147번과 148번 확진자였다. 147번 확진자의 가족(남편, 아들)과 지인 등 4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충남도는 확진자 방문지에 대해 즉시 소독을 완료하였다. 충남 148번 확진자는 가족이 리치웨이를 방문하여 감염되었으며, 5월 30일경 충남 148번 확진자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충남도는 5월 21일~6월 3일 리치웨이 방문자(접촉자) 및 동거인 등에 대해 관리 대상 기간을 확대했으며 충남도의 관리대상자 수는 천안 17명, 아산 6명 등 총 23명(확진 2명, 음성 17명, 검사중 3명, 검사예정 1명)이었다.

충남도는 리치웨이 방문자 중 코로나19 집단발생 현장 역학조사 결과 교회를 통한 추가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방문자(접촉자) 신속한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최근 2주 이내(6월 7일 기준) 참석한 교회 모임, 교회명, 주소지 파악 ▲최근 2주 이내(6월 7일 기준) 방문자가 참석한 교회에 대해 시설 관할 지자체가 향후 2주간(6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발령 권고 ▲방문자의 동거인 중 학생 및 고위험직군(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격리조치, 유증상시 검사 시행, 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다.

다단계·방문판매업 등 876곳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에 한정해 지역감염이 일어나던 중 6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의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집단감염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급증하였다. 대전 서구 괴정동 '힐링랜드23', 오렌지타운 내 '도니마켓', 탄방동 둔산전자타운 내 '101세홈닥터' 등이 주요 감염 고리로 꼽혔다. 6월 22일 기준 누적 확진환자는 총 49명으로 늘어났고 지역별로는 대전 34명, 충남 5명, 서울 4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등이었다.

역학조사 결과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 제품체험·정보공유 목적 등 긴 체류 시간 등 의 방문판매업체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장소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체의 집단 발병은 지인 간 소모임, 다중이용시설(미용실, 식당, 사우나 등), 의료기관을 통해 추가 전파되며 여러 시·도에 빠르고 넓게 퍼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2020년 6월 18일 자로 도내 다단계판매업 2곳, 방문판매업 702곳, 후원방문판매업 163곳 등 876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이는 방문판매 관련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집합금지 행정조치 적용 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조치 미준수 시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충남도는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었으며, 판매원·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일정을 연기하도록 하였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충남도는 시·군과 협조해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합동 현장점검도 강화하였다.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는 집합금지 및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❷ 해외 입국자 및 외국인 대응

1 입국자 검역 강화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시행

4월로 접어들며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 추세로 유럽 및 미국 입국자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충남도는 4월 29일부터 잠복기간을 고려 해외 입국자, 격리해제 1일 전 진단검사를 시행하였다. 무증상 입국자 중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 격리(14일,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하고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무증상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14일간 시설격리하도록 하였다.

충남도는 2020년 4월 1일부터 2G폰 사용 또는 저기능 휴대폰 등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해외 입국자들을 위한 공용폰 205대를 시·군에 공급하고, 35대(4월 1일 누계)를 자가보호 앱을 설치한 자가 격리자에게 제공하였다.



2 해외유학생 관리

충남도내 중국 유학생 3,308명 관리 강화

2020년 3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중국 등 해외 유학생의 입국이 시작되면서 충남도는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2020년 3월 1일 기준 충남도내 중국 유학생은 20개 대학, 3,308명으로 이중 314명이 신학기를 맞이하여 입국할 예정이었다. 유학생 동향 조사 결과, 국내 체류자는 703명, 입국자 309명(관리해제 339명, 관리 중 471명)이었고 1,482명은 입국 미정이었다. 충남도는 충남도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개학과 함께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격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였다.

충남도는 중국 유학생 입국 증가에 대비해 충남도내 대학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를 긴급 지원하였다. 2월 14일 충남도는 충남도내 대학들과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논의 후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예비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공항-격리시설 유학생 수송 버스 임차비 등 차량 이송 비용, 격리시설 난방비 및 도시락·생수·비상약품 등 임시보호시설 격리 비용, 방역소독제·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및 방역 물품 비용, 화상 카메라 등을 긴급 지원하였다.

유학생 입국자 전원 차량 이송 및 격리 수용

2월 18일 충남도는 대학교 보건담당 및 시·군 담당자 42명를 대상으로 대학교 중국 유학생의 14일간 매일 모니터링, 유증상자 선별진료 안내 및 검사기간 별도 공간 격리조치 등 '중국유학생 입국자 관리' 보건담당 코로나19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외 유학생 입국자에 관리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충남도는 남서울대 등 13개 대학, 314명의 입국예정자에 대해 공항에서부터 임시격리시설 수용까지 전원을 차량 이송하여 노출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 차단하였다. 11개 대학, 231명은 전원 기숙사에 격리하였다. 2020년 6월 29일 기준 도내 해외 입국 예정인 유학생은 8개 대학, 197명이었다. 이들 역시 콜밴 등을 활용해 임시격리시설까지 차량 이송하고, 코로나19 관리 치침에 의거해 임시격리시설에 수용하고 격리자 관리를 진행하였다. 이밖에 도내 대학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방문력을 조사하고 일일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철저한 유학생 관리와 함께 학내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충남도내 유학생 입국자 현황

2020. 06. 30. 14::00 기준

구 분	유학생	기 입국 (국내체류 포함)	미 입국 (입국예정자 포함)	비 고
계	8,120명	5,889명	2,231명	입국자 2,496명중 관리해제 2,485명(99.6%) 관리 중 11명(0.4%)
중 국	3,283명	1,353명	1,930명	입국자 889명, 관리해제 884명, 관리 중 5명
베트남	2,364명	2,289명	75명	입국자 694명, 관리해제 689명, 관리 중 5명
기 타	2,473명	2,247명	226명	입국자 913명, 관리해제 912명, 관리 중 1명

<자료 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3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관리

1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실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실시

정부는 2020년 1월 24일,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코로나19 검진 기관으로 지정한데 이어 1월 31일부터는 최신 진단법 확진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검사 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를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 보건환경연구원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사법을 구축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 함께 검증·평가를 완료, 국내 시약제조업체에 공개하며 민간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 및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검사법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검사법은 검사 6시간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하고 국내 기업을 통한 생산도 가능했다. 그간 시행하던 코로나 검사법은 검사에 장시간(1~2일)이 소요되고 2단계 검사가 필요했었다. 진단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의사환자 확인 후 보건소, 검역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수탁검사기관에서 진단 검사 후 질병관리본부, 검역소, 보건소에 각각 결과가 통보된다.

진단검사 절차

단계	의사환자 등 확인	검체 채취	진단검사	보고 및 결과통보
수행기관	선별진료소	보건소, 검역소 (임시검사시설)	수탁검사기관	검사기관 (질본, 검역소, 보건소)

2 충남도 비상진단검사 체계 운영

단계별, 상황별 비상진단검사 확대 운영

충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비상진단검사 체계를 운영해왔다. 2020년 2월 7일부터 감염병 검사팀 비상진단체계를 2개 조(2인 1조)로 운영하였다. 이후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맞춰 비상진단검사 체계의 기능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였다.

4월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181개국에서 대유행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접촉자 등의 유전자 검사를 담당할 비상진단검사 체계를 운영하였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총괄관으로 하는 진단조직을 재편성하여 4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전담조직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전단조직은 기존에 수행해 오던 식의약품 및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를 최소한으로 수행하고 구성원 21명이 4개 조, 2교대로 운영되던 진단조직을 3개 조, 3교대로 재편성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단계·상황별 진단체계 운영 현황

1차(2020년 2월 7일)	2차(2월 12일)	3차(2월 24일)	4차(2월 28일)
감염병 검사팀 비상진단체계 운영 (2인 1조, 2개조, 4명)	감염병검사팀 → 보건연구부 확대 대응 (2인 1조, 3개조, 6명)	진단검사체계 추가 확대·강화 운영(세부 기능 확대), 검사반(4개 조 8명), 접수반(3개 조, 6명), 지원반(2개 조, 4명) 등 확대 운영	진단검사체계 확대·강화 운영(신천지 관련 및 청사 오염도 조사), 검사반 (4개 조, 8명), 접수반 (4개 조, 8명), 지원반 (3개 조, 6명) 등 확대 운영

5차(3월 25일)	6차(4월 1일)	(4월 3일)	7차(4월 26일)	8차(6월 1일)
진단검사체계 보완 운영(고위험집단 시설 선제적 진단검사), 3개 조(1일 1조 운영) → 4개 조 (1일 2조 운영)	진단검사체계 효율적 운영(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강화), 4개 조(28명) 1일 2조 운영(식약품분석팀, 북부지원 인력보강)	진단검사체계 효율적 운영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강화)	비상 진단검사체계 운영(고위험집단 시설 검사완료에 따른 변경)	비상 진단검사체계 운영(효율적·장기적 진단체계 유지), 3개 조(1일 1조) 3교대 근무-총 16명(진단조 9명, 2명씩 교대근무)

2020년 6월 1일부터는 국내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확진환자 발생과 가을, 겨울철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16명, 3개 진단조로 재편돼 운영됐다. 감염병 검사팀 2명, 미생물 검사팀 2명, 식약품 검사팀 4명, 북부지원 1명을 조원으로 하는 진단조 3개 조는 2인 1교대로 24시간 비상근무와 연락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해외입국자, 의사환자, 접촉자 등의 코로나19 역학적 진단검사와 해외입국 격리 해제자, 노숙인, 등교학생 등 도 특수시책진단검사, 진단검사 접수 및 결과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비상진단검사 체계

2020. 06. 01. 개편

구분	역할	비고
총괄관 (1명)	보건환경연구원장 (비상진단체계 총괄)	
조정관 (1명)	보건연구부장 (비상진단체계 운영 및 관리)	
진단팀장 (1명)	감염병검사팀장 (진단검사 운영 및 관리)	
진단조 (9명, 3개 조)	코로나 19 진단검사 역학진단 특수시책 진단	2인 1조 교대근무
접수 및 통계 (4명)	검체접수, 통계관리 예산관리 등 행정지원	2인 이상 교대근무

총 2만 8,000여 건 진단검사 실시

충남도는 코로나19의 진단역량 강화를 위해 진단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2020년 3월 4일, 실시간유전자증폭기 등 5종, 7대의 코로나19 진단장비를 구입했고 진단시약 및 분석 및 전 처리 장비 등 8종, 10대의 추가 진단장비도 확보하였다. 2020년 3월 18일에는 신천지 집단감염 대응 5,000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와 소모품을 구매하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고위험 집단시설, 해외유입자 등의 진단을 강화하였다.

충남도는 이러한 진단검사 체계를 운영하며 2020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검사를 지원해 372개소, 1만 3,80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유럽, 미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진단검사 접수 건수는 총 376건이었다. 4월 3일부터 24일까지 고위험 집단시설 간병인 및 종사자에 대한 1만 4,315건의 전수 진단검사를 완료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현황

2020. 06. 30. 21:00 기준

구분		실적	누계 실적
역학진단 (유증상자, 접촉자 등) ※해외입국자 포함(5월 11일부터)	처리 실적	120건	1만 7,415건
	결과	양성 1건 (금산)	양성 80건/미결정 16건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처리 실적	77건	3,138건
		음성	음성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 실적	0	1,483건
	결과	음성	음성
기타 (노숙인 등)	처리 실적	0	36건
	결과	음성	음성
고위험 집단시설	처리 실적	(완료)	1만 4,329건 (음성)
해외입국자	처리 실적	(종료)	3,756건 (양성 5건)
총 실적 (결과)		197건 (양성 1건)	4만 157건 (양성 86건)
양성내역 (86건)		천안 47(해외입국 4건, 격리해제 후 재진단 3 포함), 공주 3, 아산 7(해외 1), 서산 6, 논산 4, 계룡 2, 부여 9, 서천 1(해외입국), 홍성 2, 태안 1 ※타 시·도 3(격리해제 진단 2, 격리해제 후 재진단 1)	

3 역학조사반 운영

집단감염 발생시 신속지원팀 파견 지원

코로나19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지휘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에서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조사하게 된다. 역학조사관 임명 권한은 광역지자체장에게만 있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시·군 자원을 충남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2명에서 최대 10명(2020년 6월 30일 기준)까지 운영하였다. 충남도는 충남도내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 신속지원팀을 파견하여 빠른 시일내에 역학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신속지원팀은 천안 피트니스센터 집단감염, 서산 한화토탈 집단감염, 부여 규암성결교회 집단감염, 리치웨이 등 방문판매시설 집단감염 등에 파견되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를 개정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4 선별 진료소 운영

경계경보 격상 이후 선별진료소 32곳에 확대 설치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사가 의료기관 출입 전에 진료 받는 공간으로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등 지역 전파 우려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사람,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증 잠복기간인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사람의 검사를 담당한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국내 발생 우려가 고조되던 시점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지정, 운영에 들어갔다. 2020년 1월 28일 기준 전국에 288개소가 운영 되었다.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조선일보>

2020년 1월 23일 충남도도 시·군 선별진료소 18개소를 지정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하였다. 2020년 1월 27일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직후인 1월 31일,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선별진료소를 충남도내 32곳에 확대, 설치했다. 선별진료소는 천안 동남·서북구보건소 등 16개 보건소와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16곳의 지정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됐다.

충남도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현황

연번	운영개시일	운영종료일	진단검사 가능여부	검체채취 가능여부	시군구	기관명
369	2020.02.03.		X	○	계룡시	계룡시보건소
370	2020.01.27.		X	○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371	2020.01.30.		X	○	공주시	공주시 보건소
372	2020.02.03.		X	○	금산군	새금산병원
373	2020.01.29.		X	○	금산군	금산군보건소
374	2020.01.20.		X	○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375	2020.01.20.		X	○	논산시	논산시보건소
376	2020.01.29.		X	○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377	2020.01.29.		X	○	당진시	당진시보건소
378	2020.01.28.		X	○	보령시	보령시보건소
379	2020.01.28.		X	○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380	2020-02-01		X	○	부여군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381	2020-01-24		X	○	부여군	부여군보건소
382	2020-03-23		X	○	부여군	성요셉연합의원
383	2020.01.23.		X	○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384	2020.01.27.		X	○	서산시	서산시보건소
385	2020.01.28.		X	○	서천군	서해병원
386	2020.01.28.		X	○	서천군	서천군보건소
387	2020.01.20.		X	○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388	2020.01.29.		X	○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추가	2020.03.03.	2020.03.17.	X	○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389	2020.03.04.		X	○	아산시	현대병원
390	2020.02.13.		X	○	예산군	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391	2020.01.30.		X	○	예산군	예산군보건소
392	2020.01.30.		X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393	2020.02.13.	2020.03.01.	X	X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추가	2020.02.28.	2020.04.26.	X	X	천안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94	2020.01.27.		X	○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395	2020.01.29.		X	○	천안시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396	2020.01.21.		X	○	천안시	천안의료원
추가	2020.03.06.	2020.06.23	X	X	천안시	천안우리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97	2020.06.24.		X	○	천안시	천안우리병원
398	2020.01.19.		X	○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399	2020.01.28.		X	○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400	2020.01.28.		X	○	홍성군	홍성의료원
401	2020.01.28.		X	○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국격	2020.01.06.		○	○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충남도는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의료진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의심자로 판명되면, 선별진료소와 연결된 음압 병실에 즉시 격리 조치하도록 하였다.

선별진료소 통해 의심환자 동선 분리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였다.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여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였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선별 진료소와 협력하여 신고 대상 환자의 역학조사 및 사례 분류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되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 관할 보건소에는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 방문·점검하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2020년 2월 7일 충남도는 선별진료소 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사례 분류→의사환자 확인→검체 채취→진단검사 의뢰'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 진단검사기관 확대에 따라 수탁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Level-D보호복, 3중 수송용기, 수송배지 등 검체 장비 확보를 추진했다.

⑤ 대구시·경기도 의료인력 및 역학조사 인력 파견

2020년 2월 22일 충남도는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지역인 대구에 공중보건의사 15명을 파견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취약지역의 관리를 병행했다.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던 5월, 충남도는 역학조사관 등 인력을 파견 지원하였다. 파견기간은 5월 30일~6월 3일로 파견인력은 공중보건의 4명과 감염병 관리지원단 2명 등 총 6명이었다.

❹ 격리 대상자 관리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결과, 의사환자로 진단되면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접촉자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하며, 마지막 접촉 일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및 능동감시를 받으며, 매일 2회 관할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받는다.

1 자가 격리자 관리 과정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부터 확진환자 정보를 문자로 알리는 한편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환자 동선을 파악해 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쳐는 사람은 자가 격리토록 하였다. 자가 격리가 확정되면 문자로 격리 통지서가 발송되고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며 담당공무원은 자가 격리 안내문과 소독제, 폐기물 전용봉투 등 위생물품을 문 앞에 전달하였다.

충남도 자가격리자 현황

2020. 06. 30. 기준

계	전일까지			당일 발생			당일 해제			현재 격리자수			비고
	계	접촉자	해외	계	접촉자	해외	계	접촉자	해외	계	접촉자	해외	
	1,176명	211명	965명	84명	1명	83명	109명	13명	96명	1,151명	199명	952명	

<자료 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가 격리자는 안내서와 함께 온 자가 격리 앱 설명서를 보고 이를 실행해야 하며 자가 격리 앱을 실행하면 자가 격리 이탈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연락된다. 자가 격리 중에는 자자체에서 구호 물품이 제공되며 이와는 별도로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된다. 또 홀로 지내야 하는 자가 격리자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한 달간 영상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심리상담도 진행되었다.

충남도 시설격리자 입소자 현황

2020. 06. 30. 18:00 기준

시설명 (운영기간)	수용가능 인원	입소자 현황			여유객실	근무인력
		입소	퇴소	현원		
계 (11개소)	173명	507명	437명	70명	115실	31명
천안 흴탑산장 (4.1~)	9명	40명	34명	6명	3실	4명
공주 탄천 유스호스텔 (5.13~)	20명	22명	21명	1명	19실	2명
보령 성주산 휴양림 (2.24~)		93명	84명	9명	17실	10명
보령 근로자종합복지관 (2.24~)	30명	185명	162명	23명	12실	3명
아산 꿈의궁전 (6.8.~)	22명	17명	8명	9명	13실	3명
논산 양촌 자연휴양림 (4.9~)	15명	80명	70명	10명	6실	3명
당진 보건지소 (5.18.~)	5명	3명	2명	1명	4실	-
금산 산림 문화타운 (4.14~)	14명	21명	19명	2명	12실	3명
부여 만수산 휴양림 (4.15~)	15명	17명	13명	4명	11실	2명
청양 고추문화마을 (3.26~)	14명	29명	24명	5명	9실	1명
예산 봉수산자연휴양림 (4.10~)	9명	-	-	-	9실	-

※ 공주 탄천 유스호스텔 6월 30일 운영 종료

2 국가 및 지자체 임시생활시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

우한 귀국 교민 528명 격리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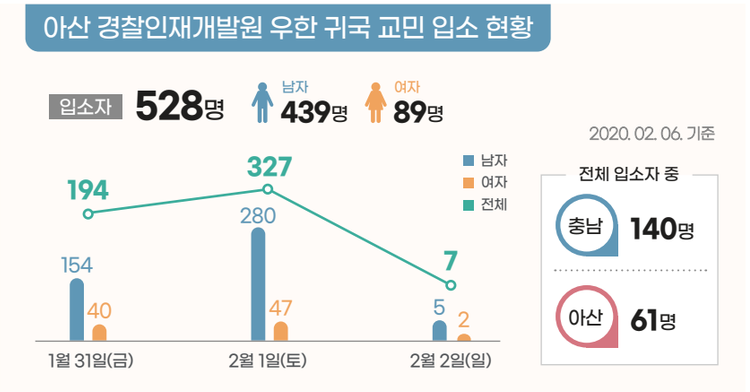
2020년 1월 30일, 국내 코로나 19 확진환자는 4명, 국외에서는 중국에서 확진환자 5,974명이 발생해 이중 132명이 사망하고 그 외 16개국에서 총 6,06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132명이 사망하는 등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고립된 교민을 전세기를 투입 철수시키기로 하였다. 2020년 1월 29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이 귀국 교민과 유학생이 격리 수용될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었다.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5개 생활관 총 629실 중 창고 등 36실을 제외한 591실에 귀국자 수용이 가능하였다. 1인 1실 수용이 원칙이었으므로 828명이 격리 생활하게 되었다. 행정인력 90명(2인 1실, 42실)이 격리 교민을 지원하게 되었다.

충남도는 사전 준비를 통해 1월 30일까지 1·2생활관 82개실에 신규침대 160개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생활관 각 층에 전화기 37대(구내·외부 겸용 각 2대씩)를 설치했다. 생활관은 실내온도 27℃ 이상 유지되도록 난방을 실시하고 60℃ 온수를 24시간 공급키로 하였다. 생활관 주 출입문을 제외한 여타 출입문은 폐쇄하고 반입물품 확인과 출입 통제 조치를 하였다.

개발원 인근 주민 건강보호 조치 시행

충남도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충남도는 1월 30일부터 인근 주민에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내부소독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또 임시생활시설 지침 및 관리체계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보호기간 출입차량 및 개인별 소독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한 귀국 교민의 입소를 대비했다. 광역방제기·열화상카메라 구입비, 거점소독시절 운영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비, 시설에서 사용할 음압구급차, 진단분석장비, 선별진료 물품 구입비 등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은 외부인 출입이나 면회가 금지되고, 시설 내 입소자, 입소자와 시설운영요원 간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운영됐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출입구에는 임시생활시설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을 위한 터널식 소독기 1대와 차량 내부 소독기, 대인 소독기 2대 등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됐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2020년 1월 30일 1차 200여명 입소를 시작으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는 교민 528명과 정부합동지원단 85명이 2주간 격리돼 생활하였으며 2월 6일 확진자 1명이 퇴소되어 격리 조치됐고 2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527명의 교민이 2주 간의 격리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소했다.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대구지역 경증환자 308명 격리 수용

신천지 교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대구 및 경북지역에 확진환자가 급증하며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무증상, 경증 환자 격리 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였다. 2020년 3월 6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이 코로나19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308명을 수용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대구·경북의 코로나 폭증이 진정되면서 3월 30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은 미국발 입국자 검역을 위한 임시검사시설로 전환, 운영되었다. 4월에는 2차 이탈리아 교민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을 위한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돼 4월 6일 이탈리아 교민 185명이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로 이동하여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 확인된 사람은 중증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그 외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에는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퇴소 전 진단검사도 실시하였다.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상록리조트 임시생활시설 운영

해외 무증상 입국자 총 480명 입소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운영되었다. 2020년 3월 22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 온 입국자들이 특별입국 절차에서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로, 무증상자들은 임시생활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임시생활시설로 각각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중증 정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된 무증상 입국자들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240명, 상록리조트에 200명씩 각각 나눠 입소되었다. 무증상 입국자들은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가량 머무르게 되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는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인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원인력 등이 배치됐다.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단기체류 외국인 수용시설로 운영

2020년 4월 9일 공주시 사곡면에 소재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외국인 단기 체류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어 4월 10일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였다. 각 지자체의 시설 부족과 자가 격리자 이탈에 따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에 위치한 정부시설을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운영하였는데 기존 청풍리조트,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 이어 기업은행 연수원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2곳이 새로 추가되었다. 공주시는 정부합동지원반에 직원을 파견해 시설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운영, 시설 입·퇴소 시 수송차량의 방역, 시설 주변 방역 등을 지원하였다.

충남도내 임시생활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시설 구분	시설명	수용 인원	운영 기간
임시생활시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우한 귀국 교민 528명	1월 31일~2월 18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상록리조트	유럽 무증상 입국자 480명	3월 22일~
	공주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단기 체류 외국인	4월 10일~
생활치료센터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대구지역 경증 확진자 308명, 이탈리아 교민 185명	3월 6일~

③ '자가 격리 안전보호 앱' 활용

자신 건강상태 매일 2차례 입력

2020년 3월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328명, 이 중 격리자는 5,255명이었고 코로나19 검사 중인 인원은 13만 1,379명에 달하였다. 확진자의 급증 추세에 따라 대응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였다. 3월 7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서비스에 들어갔다. 정부는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국민에 국한해 별도 승인코드를 부여하고, 이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가 격리자는 앱을 내려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일 2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입력해야 한다. 내용은 곧바로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되며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엔 진동과 푸시 알림이 간다. 전담 공무원에게도 실시간으로 '자가 격리자 이탈' 알림이 전달된다. 이 앱에는 자가 격리 시 준수해야 하는 생활규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도 들어 있다. 자가 격리자의 위치정보 동의를 얻어 이뤄지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지원된다.

④ 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자가 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코로나19의 장기화 가운데 격리 이탈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2020년 4월 13일 안심밴드 도입 등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강화했다. 안심밴드는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 하거나 전화 불응 등 자가 격리 지침 위반 시 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토록 하였는데 자가 격리자 보호 앱과 연계해 휴대폰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안심밴드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고 경찰이 출동해 확인하게 된다.

또 자가 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시 즉시 고발조치하고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해 손해 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토록 하였다.

충남도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조치 현황

03. 28. ~ 06. 30.

국 적	격리장소	조치결과	검사결과
대한민국 31명 베트남 3명 인도네시아 1명 캄보디아 1명 중국 3명 카자흐스탄 1명	천안 13명, 논산 7명 공주 2명, 서산 5명 계룡 2명, 당진 6명 태안 5명	고발 39명 계도 1명	음성 39명

<자료 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⑤ 격리 의료폐기물 관리 특별대책

자가 격리자에 봉투형 전용용기·소독약품 등 제공

정부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 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제공하였다. 발생된 폐기물 배출·처리 매뉴얼도 마련해 시항하였다.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며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 봉투로 2중 밀폐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수거 처리 시 자가 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확진환자 폐기물 소독 후 밀봉 보관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수거 처리는 유역·지방환경청이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처리업체에서는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 처리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 처리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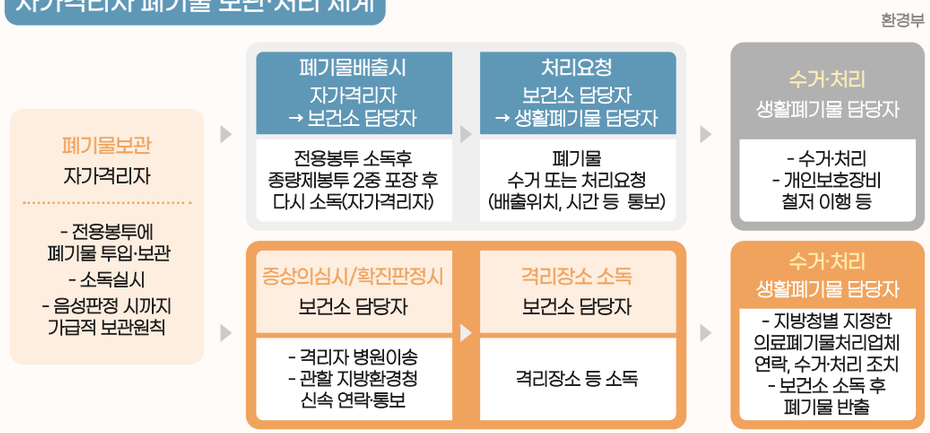
자가격리자 폐기물 배출 지원체계

환경부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환경부



5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이송

16개 구급대의 대원 144명을 전담구급대로 배치

충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유증상 증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2020년 3월 2일 기준 16개 구급대 144명의 대원을 코로나19 전담구급대로 배치하고 119상황실에도 전담 상담요원 9명을 배치, 운영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방지 장비 6종, 1만 4,698점을 구입해 105개 119구급대에 지급했고, 코로나19에 노출된 구급대원을 위해 격리장소 15개소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유증상 환자는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고 경증환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중증환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 부속병원)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충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시 환자 및 검체 이송 전담구급대를 16개 구급대, 144명에서 32개 구급대 288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감염관리실 54개소 활용한 구급대원 2차 감염방지 대책도 추진하였다.

음압 2대·임산부 전용 3대 등 구급차 23대 신규 배치

장비 확충에도 나섰다, 충남도는 2020년 3월,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월까지 음압구급차 2대, 임산부 전용 구급차 3대, 일반 구급차 18대, 총 23대의 신규 구입을 결정했다. 음압구급차는 15인승 쏠라티 차량에 환자실을 밀폐형 구조로 제작하고, 음압시스템을 적용해 외부로 감염확산을 완벽히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예산소방서와 부여소방서에 각각 1대씩을 배치해 운영했다.

이송과정에서는 유기적인 병원 정보 및 병상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병원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감염환자와 일반응급환자를 철저히 분리, 이송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충남소방본부 전담구급대와 일반구급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의심환자 2,687회, 확진환자 113회 등 총 2,800회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으며 검체이송 건수는 245회, 상담 건수는 175회이었다.

충남소방본부 의심 및 확진환자 이송 현황

2020. 06. 30. 기준

구 분	총 활동건수	환자 이송건수				검체이송 건수	상담건수	비고
		의심환자		확진환자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일 계	25회	21회	2회	-	-	2회	-	전담구급대 16 일반구급대 89
누 계	3,220회	2,505회	182회	113회	-	245회	175회	

❻ 진료 병상운영 및 관리

1 전담병원 운영

집단감염 발생으로 음압병상 부족 상황 발생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존에 확보해둔 음압병상만으로는 환자들을 제때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20년 2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경북지역 사례와 같이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20년 2월 28일 충남 천안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으로 28일 하루에만 27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왔으며 기존에 확보해 둔 음압병상만으로는 환자들을 제때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천안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2월 2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천안의료원은 가용병실 81개 병실(음압 6, 일반 75), 의사 28명과 간호사 170명의 의료인력, 구급차 77대(보건소 19, 소방 및 민간 61)를 갖추고 있었다.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등 4개 전담병원 운영

2020년 3월 1일 (10시 기준) 충남의 누계 확진환자는 천안 67명, 아산 7명, 계룡 1명으로 총 77명을 기록하였고 충남도내 운영 중인 음압병상 27개로는 확진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충남도는 2월 29일부터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해 오던 천안의료원 일반병실에 충남지역 확진자 26명을 입원 조치하고 대구지역 환자 16명도 수용하였다.

충남도는 이어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천안의료원을 포함한 모두 4개 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대규모 확산 시 생활치료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홍성의료원은 3월 3일 이후 발생하는 환자를, 서산의료원은 3월 10일 이 발생하는 환자를, 공주의료원은 3월 11일 이후 확진을 받은 환자를 각각 일반병실에 수용하고 확진환자가 증가해 병실이 추가 필요할 경우 병실당 입원환자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홍성의료원 39병실(104병상), 서산의료원 28병실(94병상), 공주의료원 65병실(134병상) 등 총 187병실, 439병상이 확보되었다. 충남도내 4개 전담병원에서는 충남도민 137명, 타 시·도 주민 188명 등 총 325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현황

2020. 06. 30. 기준

지역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병상(음압) 수		113(6)	114(6)	129(5)	99(1)
입원환자 수(명)	충남도민	86	14	13	24
	타 시·도민	45	68	38	37

2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증환자 격리 수용할 생활치료센터 운영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 중증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병원에서는 중증환자를 우선 입원시켜 치료하고 경증환자를 위해서는 따로 격리시설을 만들어 치료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이기에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이 가능하였다.

생활치료센터는 국가 지정 외에 지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련 규정에 맞는 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소 대상은 ▲입원한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담당 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중증 정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였다.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되었으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이 배정되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특수상황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등)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중앙청소년수련원 등 지정 운영

충남 도내에서는 2020년 3월 3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충남1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었고 2020년 3월 6일에는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이 코로나19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308명을 수용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는 순천향대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 등 총 4명의 전문의가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충남도는 의료지원반 3개 분야 48명(3교대 운영 의료진 42명(대학병원 18, 보건소 24), 심리지원 3명, 행정·물품 지원 3명)을 지원하고 인건비, 의료장비(이동형 엑스레이기 등) 및 의약품, 방역물품 구입 예산 10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대구·경북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진정되면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은 3월 30일 미국발 귀국자 임시생활시설로, 4월에는 유럽발 귀국자 임시생활시설로 각각 운영되었다.

6월 들어 대전 서구 방문판매업체 관련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던 대전·충청지역은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로 생활치료센터의 확대 운영이 필요했다. 정부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중부권 국제1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이 6월 29일부터 충청권 공동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었다.

③ 타 시·도 환자 치료 지원

의료·방역 인력 총 112명 파견 지원

충남도는 신천지 교회 발 집단감염으로 대규모 환자 발생이 이어지던 대구·경북지역 및 물류센터 발 집단감염으로 환자가 급증한 경기도 등 타 시·도가 병상 부족으로 환자 치료 방역에 어려움을 겪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나섰다. 충남도 전담병원인 천안, 홍성, 서산, 공주의료원의 음압 병상에 타 시·도 총 188명의 환자를 수용했다. 병원별 타 시·도 입원치료 환자 수는 천안의료원 45명, 공주의료원 68명, 서산의료원 38명, 홍성의료원 37명이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2020년 3월 6일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경증환자 306명이 국가 지정 충남·대구 1호 생활치료센터인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입소 치료를 받았다.

충남도는 타 시·도에 의료 인력과 방역 지원 인력도 파견하였다. 2020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대구에 공중보건의사 15명을 파견하였고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경기도에 공중보건의 4명과 감염병 관리지원단 2명 등 6명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생활치료센터에도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79명의 인력을 지원하였다. 총 파견 지원인력은 112명이었다.

충남도 타 지역 방역인력 지원현황

2020. 06. 30. 기준

파견 지역	파견 기간	파견인원(명)	실적
대구광역시	2.22~3.25	31명	코로나19 대응 업무
경기도	5.30~6.3	2명	경기도 내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
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등	3.6~6.30	79명	임시생활시설 내 격리자 관리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관리 등

❼ 예방 및 방역 활동 (일반 방역 및 다중시설 방역)

①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확진자 발생 상황 따라 3단계 거리 두기 시행

코로나19 국내 환자 발생부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설정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 및 목표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발생 수준, 유행의 급격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 등을 아래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의료역량, 인구구성 등 위험도, 고위험시설 분포 정도 등 환자가 집중 발생한 지역 특성, 강도 강화 시 사회적 비용 등도 함께 검토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개요

<자료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일일 확진자수 50명 미만	▶ 모임, 행사 허용 ▶ 스포츠행사 관중 허용수 제한 ▶ 다중이용시설 원칙적 허용 등교 및 원격수업
2단계	일일 확진자수 50-100명 미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등교 및 원격수업 하되 등교 인원 축소
3단계	일일 확진자수 1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자수 2배 증가) 발생한 경우	▶ 10인 이상 모임 금지 ▶ 스포츠 행사 중지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원격수업 또는 휴업

*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2주간의 확진자 수 의미 * 더블링 타임 : 확진자 수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

충남도에서도 확진자 발생, 집단감염 사태 등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명명된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다. 확진환자가 급증했던 천안·아산에서 1.5단계, 13개 시·군에서 1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

아프면 집에 머물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야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차단 활동이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 습관과 사회적 구조개선이다.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개인방역 핵심은 발열, 인후통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4 일간 집에 머물기, 사람 간 두 팔 간격(2m 이상)의 건강거리를 유지하기,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실시 등이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불필요한 지인 가족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자제하며 목욕탕 찜질장의 취식을 자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대중교통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1.5단계 거리 두기는 지역적 유행 단계에 시행되며 지역 유행이 시작된 위험지역은 생활방역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한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구발 집단감염으로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시행

2020년 2~3월 대구 신천지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확진자가 폭증하였다. 3월 23일 정부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민이 일상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은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 것이 요청되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는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며 직장인의 경우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등 행동지침이 제시되었다. 사업자의 경우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환경을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등의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생활 방역 전환 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통해 밀집된 환경을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을 실천하며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전파해 사기업도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관련 위험 시설·업종 전면적인 점검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으로 천안·아산에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던 충남도는 정부 지침을 공유하고 철저한 이행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지침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 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③ 충남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업소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증상 확인 의무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이 나온 3월 23일, 충남도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의 처분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적용 대상

- ☑ **PC방**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 ☑ **노래연습장**
  일반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포함)
- ☑ **요양원**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
-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 및 교습소
- ☑ **목욕장업**
  공동탕업, 한증막업, 찜질시설 서비스업, 기타 목욕장업

충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의 경우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조치하고 각 업소의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의 확인이 의무화됐다.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대장 작성)시켜야 한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목욕장업 제외)은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을 유지, 최소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등의 이행과 함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을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요양원의 경우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입소자의 의심 증상을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을 지정하도록 하며 외부인은 출입통제(외부인 방문 등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하고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입소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매일 2회 이상 확인 및 기록하도록 했다. 발열·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두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는 업무에서 배제(출근금지)하되, 입소자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종사자(요양보호사 등)가 입소자를 대면하거나 시설 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4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4월 6일~19일 교회·체육시설·유흥업소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이 연장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점검, 처벌하며 고위험집단(요양병원·정신병원·교회 등)의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발생 시 초기부터 찾아내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충남도 '음식점 식사지침' 실천 권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4월 7일 충남도가 외식 관련 도민 공감대 형성과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는 '음식점 식사지침'을 마련 발표하고, 일상 속 실천을 권장하였다. 식사지침에는 ▲개인위생 준수 ▲손님·종사자 마스크 쓰기 생활화 ▲마주보지 않고 일정거리 두고 식사하기 ▲음식 덜어먹기 ▲손님에게 포장음식 권장하기 ▲매일 영업장 소독 등 6가지 수칙을 담았다. 충남도와 시·군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해 식사지침 실천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영업주 및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속 독려하였다.

충남도와 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축제, 문화·관광시설 등의 관리도 강화하였다. 2020년 4월까지 각종 행사 88개가 전면 취소되었고 문화 관광시설 총 209개소 중 188개소(90%)가 휴관 조치되었다. 또 4월 2일 기준 휴양림 전체 34개소 중 26개소가 문을 닫았다. 4월 6일부터는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야외산림휴양시설을 개방하여 세종의 금강자연휴양림과 안면도 자연휴양림이 다시 문을 열었다.

문화, 관광시설 휴관 현황

2020. 04. 01. 기준

구분	계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학관	도서관	영화관	관 광 안내소
시설수	209	57	9	15	12	63	25	28
휴관	188	57	9	15	12	63	15	17

4 4·15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 거리 두기

충남 자가격리자 투표율 가장 높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준수 속에 질서 있게 치러졌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며(착용률 98%), 유권자 대기용 발판을 설치로 1-2m 거리를 두어 줄을 서 투표에 참여했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자가격리자 1만 3,789명 가운데 80.9%인 1만 1,151명이 투표하였는데 지역별 투표율은 충남이 90.3%로 가장 높았다.

자가격리자들은 17시 20분에 자가격리 앱으로 출발신고를 이행하고, 휴대폰 소지, 마스크 착용, 신분증 지참하여 도보 또는 자차로 해당 투표소로 이동. 별도 대기 장소에서 18시까지 대기 후 투표를 하였다. 투표 종료 즉시 자가격리지로 복귀 후 도착신고 이행을 완료했으며 전 과정은 전담 모니터링요원이 관리하였다.

5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다중이용시설 예방·관리 대응지침 발표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고 위기 단계가 '경계→심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담은 대응 지침을 내놓았다. 집단시설은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이며 다중이용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이다.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즉시 시·군·구청 내 소관부서와 관내 보건소 및 인근 선별진료소로 즉시 신고해 대응토록 하였다.

충남도 전통시장·상점가 등 방역소독 4,193회 실시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시·군,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지속적인 방역에 힘을 모았다. 2020년 2월 18일 충남도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방역활동을 추진하였다. 인구밀집장소 방역소독은 4,193회(전통시장 98회, 상점가 112회, 대학주변 20회, 취약지 3,963회), 물품지원은 16만 9,926개(마스크 14만 7,180개, 손소독제 1만 5,445개, 체온계 609개, 살균제 등 6,692개)가 이뤄졌으며,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개발한 코로나19 대응 7개 분야 Q&A 및 마스크 사용법 등을 홍보하고 공유하였다.

3월 들어 콜센터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충남도는 3월 12일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의 예방조치를 긴급점검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상담사 1인 1실 사용, 사무공간 대각선 자리 배치 등을 통해 근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방역물품 구비,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월 16일에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근무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내방상담을 제한하였다.

충남도내 개신교회 3,148개소 일요예배 합동점검

충남도는 3월 29일에는 충남도내 개신교회 3,148개소에 대해 일요예배 충남도-시·군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하였고 도지사는 당진의 한 교회를 방문 기독교계 협조를 요청하였다. 충남도내 개신교회 3,14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일요예배 합동 전수점검은 부활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등의 상황에 따라 4월 5, 12, 19일에도 각각 실시되었다. 4월 19일 기준 총 3,148개 교회 중 1,979개소(62.9%)가 여전히 집합예배를 진행하고 있었고 1,169개소(37.1%)만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거나 집합예배를 중단한 상태였다.

충남도는 4월부터 충남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현장별로 유증상자 확인 이행 여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감염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예방 수칙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였다. 이어 6월 4일부터는 IT, 육가공업, 전자제품조립업 등 제조업 밀집·취약사업장 생활방역을 상시 점검하였으며 점검 대상 주요사업장은 시·군별로 자율 결정하되 종업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충남도는 6월 29일까지 사업장 총 987개소(10인 이상 899개소, 근로자 4만 5,939명/10인 미만 88개소, 근로자 536명)를 점검, 506개소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를 행정지도하였다.

충남도 사업장 점검 실적 현황

2020. 06. 30.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금일	사업장	39	15	-	-	10	3	-	-	2	2	-	2	-	4	1	-
	근로자	1,823	1,401	-	-	100	34	-	-	122	27	-	9	-	92	38	-
	행정지도	11	-	-	-	4	3	6	-	-	-	-	-	-	4	-	-
누계	사업장	1,026	244	26	118	135	31	142	22	78	33	23	43	39	48	22	22
	근로자	46,475	16,877	1,155	5,125	1,350	3,827	5,698	593	5,104	639	469	1,486	2,701	2,340	724	210
	행정지도	517	34	26	19	110	12	138	10	6	20	23	8	39	45	7	20

4월 18일에는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합동점검을 가졌다. 점검반 11명(행정안전부 1, 문체부 3, 충남도 3, 시·군 4)이 종교시설 2, PC방 1, 체육시설 1 총 4개소의 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교회 집단감염이 빈발하자 2020년 3월 16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도내 3119개 교회에 집단예배 자제를 호소하는 서한문은 발송하였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합동점검 실적

2020. 05. 01. 기준

구분			대상 시설수	운영중단 (폐쇄포함)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명령)								
					점검실적			행정지도(현장시정조치)			행정처분(명령)		
					계	전일까지 (~4.30.)	당일 (5.1.)	계	전일까지 (~4.30.)	당일 (5.1.)	계	전일까지 (~4.30.)	당일 (5.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22.~4.19.)			14,559	4,751 (32.6%)	85,997 (590.7%)	-	-	4,128 (28.4%)	-	-	4 (0.03%)	-	-
사회적거리두기	누 계		14,251	3,108 (21.8%)	19,763 (138.7%)	18,410	1,353	272 (1.9%)	263	9	-	-	-
	중대본지정	종교시설	4,065	1,541 (37.9%)	7,487 (184.2%)	7,202	285	112 (2.8%)	112	-	-	-	-
		체육시설	2,044	424 (20.7%)	1,286 (62.9%)	1,231	55	21 (1%)	21	-	-	-	-
		유흥시설	1,768	213 (12%)	3,879 (219.4%)	3,505	374	-	-	-	-	-	-
		학원시설	3,845	214 (5.6%)	1,489 (38.7%)	1,348	141	12 (0.3%)	12	-	-	-	-
	道지대본지정	PC방	975	372 (38.2%)	1,064 (109.1%)	975	89	59 (6.1%)	54	5	-	-	-
		노래방	1,329	344 (25.9%)	2,439 (183.5%)	2,224	215	68 (5.1%)	64	4	-	-	-
		요양원	225	-	2,119 (941.8%)	1,925	194	-	-	-	-	-	-

집단감염 위험시설 448개소 운영제한 행정명령

충남도는 2020년 5월 6일부터 24일까지 충남도내 소재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이 명령은 추후 별도 명령 시까지로 연장되었다. 대상은 요양병원 302개소, 노인주간보호센터 57개소, 요양병원 72개소, 정신병원 17개소 등 총 448개소 시설이며 기관별 준수사항(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입소자 일 2회 건강체크,

의심증상자 검사 및 업무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미이행 시 영업 및 이용 금지 조치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 전면 금지,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에 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 6일부터 충남도는 일반 노래방 1,203개소, 코인노래방 123개소,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123개소(체력단련장업 50, 무도학원업 6, 체육도장업 22, 자유업종 44, 건강식품판매업 1) 등 고위험시설 1,449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운영제한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하였다.

충남도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이행상황 점검

2020. 06. 30. 기준

구분	운영현황		점검실적		행정지도(현장시정)	
	시설 수	운영시설(%)	누계	6.30(화)	누계	6.30(화)
합 계	1,449	1,106 (76.3%)	6,315	67	18	-
노래연습장	1,326	987 (74.4%)	6,013	58	2	-
고위험실내체육시설	123	119 (96.7%)	302	9	16	2

유흥시설 1,236개소 집합금지 명령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5월 11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 접촉 금지, 충남 도내 1,236개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대상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6개 클럽이나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확진환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충남도에 주소 또는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들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유흥시설 점검도 강화하였다. 충남도는 3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1,749개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 행정지도 하고 위반사항 등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며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 1,259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운영 자제를 권고하였다.

충남도 집단감염 위험 유흥시설 현장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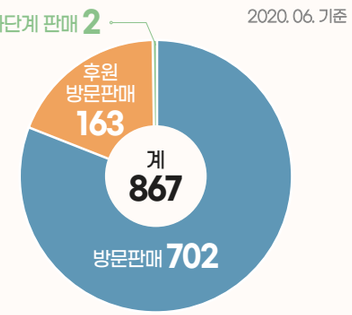
03. 23. ~ 06. 30.
(단위: 개소)

구분	점검 대상	점검실적			행정지도(현지시정)			행정처분(명령)		
		계	금일 실적	전일 누계	계	금일 실적	전일 누계	계	금일 실적	전일 누계
계	1,749	29,900	72	29,828	1,087	0	1,087	1,214	0	1,214
유흥주점	1,210	24,817	139	24,758	1,069	0	1,069	1,214	0	1,214
단란주점	509	4,161	11	4,150	7	0	7	0	0	0
콜라텍	30	887	2	885	11	0	11	0	0	0
감성주점	0	35	0	35	0	0	0	0	0	0

다단계 판매업·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명령

다단계 판매업, 방문판매업에서의 코로나18 집단감염이 빈발하면서 충남도는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후원 방문판매업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고 대상 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을 할 경우는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 이하)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충남도는 7월 7일 충남도내 방문 판매업체에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다. 6월 18일부터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집합금지 기간은 7월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정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방문 판매업체 702곳, 다단계 업체 2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163곳 등 모두 867개 업체이다. 집합금지 기간엔 업체 홍보관에서 진행하는 상품 설명회·판매·교육 등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사업주·판매자 등도 업체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체유시설, 스탠딩공연장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 되었다. 이 조치는 6월 23일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었다.

시설 유형별 고위험 시설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출장뷔페, 예식장뷔페, 식당 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 제외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Group Exercise-줌바, 태보, 스피닝)

공연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관객석 전부 혹은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집단행사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충남도는 2020년 6월 26일 정오를 기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적용대상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과 영화관,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갖춘 목욕탕업 등 6개 업종 288곳이며 1,0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이다. 명부 작성 의무기간은 6월 26일 정오부터 해제 시까지이며 충남도는 시행일부터 3주 동안의 계도기간 이후 이를 위반한 시설과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하였다.

⑥ 대중교통시설 방역

대중교통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배부

충남도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에 마스크를 지급하고 버스, 택시 승차대에 대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소독 방역으로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승차대 이용자 동선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업계 종사자에 대한 예방 교육과 위생 점검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2020년 2월 11일 운수종사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시외버스에 마스크 8,590개와 손소독제 900개를 배치했다. 3월 2일에는 추가로 시외버스에 1,500개, 택시업계에 6,500개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대중교통 거점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15개 시·군의 16개 시외버스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시외버스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발열 상태를 체크해 고열자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6월 1일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5월 30일 충남도는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심각' 해제 등 별도명령 시까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 승차거부 관련 개선명령도 내려졌다. 2020년 5월 27일부터 대중교통(버스, 택시, 전세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였다. 시외버스 의 경우는 5월 29일부터 적용됐다.

충남도는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도 시행키로 하였다. 6월 1일 18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탑승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미착용 적발 시 고발(벌금 300만 원), 확진환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⑦ 공공부문 방역

부서별 적정비율 정해 재택근무 시행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감염으로 인해 행정공백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공무원 복무관리 규칙·지방 공무원 복무관리 규칙을 통해 코로나 19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2020년 3월 23일 정부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공직사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밀집된 환경을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충남도도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은 재택근무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장섰다.

확진환자·의심환자 발생 시 자가격리 후 '공가' 처리

확진환자 및 의심 격리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병가' 처리, 격리가 해제된 날 까지 '공가' 처리하도록 했다,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있는 경우 확진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가족 중에 코로나19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국가·지역 등을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경우에는 복귀 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며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보통 공무원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 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 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 돌봄 휴가 또는 연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여행,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사무실 밀집도 낮추기 위해 의무적 교대근무 시행

유연근무제의 적극 활용도 권장되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이용하고 점심시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 운영하도록 하였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원격근무 유형(재택 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근무)과 대상 인원 등을 정하도록 했다.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 19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하며 근무지와 거주지의 소재지역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면·전화 보고 및 영상·서면회의 적극 활용

정부가 주최하는 집단행사 개최 시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회의 및 보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전화 보고, 영상·서면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대면회의는 회의의 긴급성, 코로나19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수를 최소화하고 모든 참석자가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회의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예방수칙을 부착하거나 안내하며 회의 참여자가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국내 출장은 출장지역 및 출장의 긴급성, 코로나19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를 최소화하며 국외 출장 심사 시 출장의 필요성·긴급성과 출장지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전파 국가(WHO 홈페이지 참조) 등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 지역으로의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여행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국내·외 출장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행동 수칙 사전 교육하게 하였다.

충남도청사 방역 및 안전 강화대책 추진

충남도는 2월 24일부터 청사 출입 관리 강화, 청소 소독·방역 확대, 도청 내 밀집·협소 공간 행사 자제, 근무 관리 강화 등 도청사 방역 및 코로나19 대응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해 도청을 방문하는 방문객 및 민원인의 사무실 등 출입을 제한하였고 발열자 관리를 위한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우선 본관 지하 1층과 남문에 배치해 공무원 및 모든 민원인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청 출입자는 공무원과 방문자 예외 없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도청 내 밀집·협소 공간에서의 행사도 제한하였다. 3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한 방향 앉기' 운동을 전개했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도 잠정 연기하였다. 2·3·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는 각각 6·9·12월 첫 번째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기존 일정대로 실시키로 하고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재공지하기로 하였다.

충남도는 공직사회부터 코로나19 예방 방역에 모범을 보이는 한편 6월 28일까지 공공, 민간 총 41개 분야 5,9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⑧ 예방수칙 준수 캠페인

양승조 도지사 '아기상어 손씻기 챌린지' 도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1339 콜센터, 카톡 상담, 일일 브리핑(1일 2회),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대국민 FAQ (자주 묻는 질문들·frequently asked questions), 행안부 SNS 등을 통해 대국민 감염예방수칙 등을 적극 홍보해 왔다.

충남도는 2020년 1월 31일 도 코로나 19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10개 실무반, 24시간 비상체계로 가동하면서 코로나19 예방 홍보반을 적극 운영했다. 홍보반은 다양한 채널(KBS 등 방송 3사, 지역케이블방송사, 전광판, TV인터뷰, 보도, 캠페인,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예방수칙 홍보와 함께 경로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산부, 노인대학 등 인구집단별 교육 홍보를 강화했다.

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는 시정 홍보판, 마을방송, 긴급재난문자·TV·전광판이 적극 활용되었다. 충남도는 도내 모든 관공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협회, 금융기관, 연수원, 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행동지침 이행과 포스터, 배너, 현수막의 게시를 요청하였다. 충남도내 모든 광고물 게시대, 버스·택시 승강장, 터미널, 역사, 중심 상업지역, 시장, 주요 중심거리 등 공공장소 및 다중집합장소 내 포스터, 배너, 현수막을 게시하고 소셜 네트워크 등 온라인 매체도 적극 활용하였다. 안전문자,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동선, 대응 상황, 격리해제 인원 등을 공개하는 한편 환자 발생 현황,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도 대응 시책, 개인 방역·위생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관련 제반 정보를 카드 뉴스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역민에게 전달했다.

충남도 코로나 19 예방 홍보 실적

2020. 06. 30. 기준

구분	합계	TV	라디오	신문	SNS	재난문자	전광판	대중교통	포스터	현수막	배너	리플릿	기타
합계	324,710	24	1	291	746	242	701	1,590	71,127	6,195	5,694	224,007	14,092
도	3,192	1	1	56	95	16	55	405	977	132	162	400	892
시군	321,518	23	-	235	651	226	646	1,185	70,150	6,063	5,532	223,607	13,200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어린이들과 함께 '아기상어 손씻기 챌린지'에 도전해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양승조 도지사는 2020년 5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양승조TV'와 페이스북에 '아기상어 챌린지' 영상을 공개했다. 아기상어 챌린지는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 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한 영상으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기상어 캐릭터를 활용해 손 씻기 버전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 어린이들과 함께 '아기상어 손씻기 챌린지에 도전한 유튜브 영상
<사진=양승조 지사 유튜브>

⑧ 방역물품 관리

1 공적 마스크 관리 및 마스크 공급

마스크 매점매석·사재기 현장 점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물량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충남도는 2020년 2월 1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각 시·군에서도 2월 3일부터 일일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기획재정부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의 최고가격 지정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건의했다.

충남도 공적 마스크 5부제 세부 운영계획

판매 계획	인력 지원
우체국 하나로마트는 오전 9시 30분에 번호표 교부하여 영업시간 내 판매, 약국은 번호표 사전 교부 없이 제품 도착 시 판매	우체국은 3일간(3월 11일~13일) 읍·면·동 직원 1인씩 지원 요청, 약국은 지원 인력 파악 요청 시 검토

충남도는 충남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도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다. 충남도는 사전에 필요한 방역물품 소요량을 긴급히 파악해 이를 토대로 예비비 3억 4000만 원(시·군 50% 부담)을 지원했다. 3월 대학 개강을 앞두고 충남도내 14개 대학에도 마스크와 방역소독제, 손소독제 등 방역 및 방역물품 비용을 지원했다.마스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3월 9일 마스크 공적 배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오전 9시 30분에 번호표를 교부해 영업시간 내 판매하고 약국은 번호표 사전 교부 없이 제품 도착 시 판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맞춰 '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

2020년 3월 9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 가운데 충남도는 시·군 홈페이지 내 '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처별 공적 마스크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향상시켜 주었다. '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 시스템은 3월 29일까지 전 시·군으로 운영이 확대되었다. 3월 16일 충남도는 공적마스크 구입 요령을 12개국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주민 안전망(밴드)에 게시 후 센터 및 자조모임을 통해 홍보·전파하도록 하였다.

충남도는 마스크 공급에도 나섰다.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않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6개 시·군 11개 도서에 마스크 1,836장과 손 소독제 149개를 배부하였다. 또 공적판매용 마스크 구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에 수제 마스크를 제공하였다.

충남도내 공적판매 마스크 공급·판매 현황

2020. 04. 02. 21:00 기준

판매처	전체 기관수	당일판매 기관수	입고량	판매량	당일 재고량	재고보유 기관수	재고비율
합계	1,333	1,295	264,607	221,568	43,039	749	16.3%
약국	947	911	235,199	192,754	42,445	555	18.0%
농협	229	227	17,152	15,828	1,324	118	7.7%
우체국	157	157	12,256	12,986	-730	76	-6.0%

식약처는 4월 20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방법을 개선하였다. 동거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했던 것을 대리구매 요건을 완화해 동거인, 혹은 비동거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구매할 수 있게 하였고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외국인의 범위를 건강보험을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하였다.

마스크 1인 구매량 3매에서 10매로 확대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하였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공적판매처 출고비율은 생산량 60% 이상이었지만 50% 이하로 줄이고 이 범위에서 정부와 협의한 수량을 출고하도록 하였다. 수술용 마스크 출고비율은 종전 60% 이상을 유지하였다. 보건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허용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됐다. 다만 수술용·비말차단용은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하여 수출 제한을 유지하였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판매처 의무 출고는 6월 30일까지 유지하되, 공적재고 소진, 민간유통량 확대 시장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고시 최대 유효 가능 기한을 7월 1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마스크 1인 구매량을 1주일에 3매에서 10매까지 확대했다.

② 긴급 방역물품 지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억 여원 긴급 지원 건의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산되면서 충남도에는 비상방역 물품 지원 요청이 잇따랐다. 충남도는 감영병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 지원에 나섰다.

2020년 1월 31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여객취급역 물품, 방역지원 요청에 따라 역사 내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과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물품과 역사 소독(방역)을 지원하였다. 또 대중교통 이용 도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에 대한 감염병 예방 지침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하는 한편 5개 업체 차량 915대와 운전자 1,260명에 1,236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크, 손 소독제를 지원하였다.



● 충남 계룡역 대합실에서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사진=경향신문>

2020년 1월 31일 충남도는 정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억 8,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2월 3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2월 4일 방역물품, 소독장비 임차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보건정책과에 5,000만 원이 교부되었다.

2월 5일에는 보건소 이동형 X-ray 장비 구매 등으로 16억 원, 대중교통 방역물품 구매비 1,236만 원이 긴급 지원되어 시외버스(마스크 2만 5,200개, 손소독제 915개), 시내·농어촌버스(3만 3,237개, 손소독제 1,600개), 택시(마스크 5만 7,190개, 손소독제 2,316개)의 방역물품이 지원되었다. 2월 14일 방역물품 구입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 5,000만 원도 추가 확보하였다. 2월 28일에는 대학별 코로나19 방역비 등 예비비를 확보하였는데 총 16개 대학에 12억 7,0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이었다.

2020년 3월 11일 가동에 들어간 충남도 비상방역대책반은 방역 약품 살충제 8종 1,955통, 방역물품 보호복 등 9종, 4만 6,150개를 관리 운영하며 충남도 즉각대응팀 출동 시 활용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내 의료원에 지원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방역소독기 등 긴급 지원

3월 21일에는 2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31개소에 3,500만 원을 들여 적십자사 또는 공동모금회 지정 기부 방식을 통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3월 27일 충남도내 복지관(다중이용시설) 53개소에 코로나19 방역지원 후원금 2,650만 원을 투입해 방역소독기를 지원했다. 3월 28일 충남도는 충남도내 임신부 1만 3,591명에게 마스크 4만 1,000매와 항균 마스크패드 1만 3,591세트 지원했다. 마스크는 임신부 1인당 3매씩, 항균 마스크패드는 1인당 1세트(10매)씩 배부됐다.

고위험시설 출입관리 강화 위해 전자출입명부 전면 도입

충남도는 3월 지역아동센터 130개소에 체온계를 지원한데 이어 4월에도 105개소에 체온계를 지원해 휴원 중인 4개소를 제외한 충남도내 전 아동센터에 대한 체온계 지원을 완료했다. 마스크 부족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마스크 보급 사업이 지연되자, 충남도는 공적 물량을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령자(80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암, 희귀난치 등)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3만 4,000매를 공급했다. 또 생활방역체계 전환 준비를 위해 도서관, 공무원교육원 등 다중이용기관 등과 보건·의료기관에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활용해 피부적외선 체온계 300개를 배부하였다.

충남도는 6월 10일 고위험시설 출입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의 전면 도입을 결정하고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에 순차적으로 설치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수기 출입자 명부의 허위작성 등 허술한 방역망 개선을 위해 정보기술 활용하여 QR코드 기반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3 재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정책

❶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1 충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93만 6,622가구에 5,880억 원 지급

충남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충남도에서는 97만 3,071가구 중 93만 6,622가구(96.3%)에 대하여 5,880억 원을 지급하였다.

2020년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 5일부터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족 10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1인 가족 40만 원이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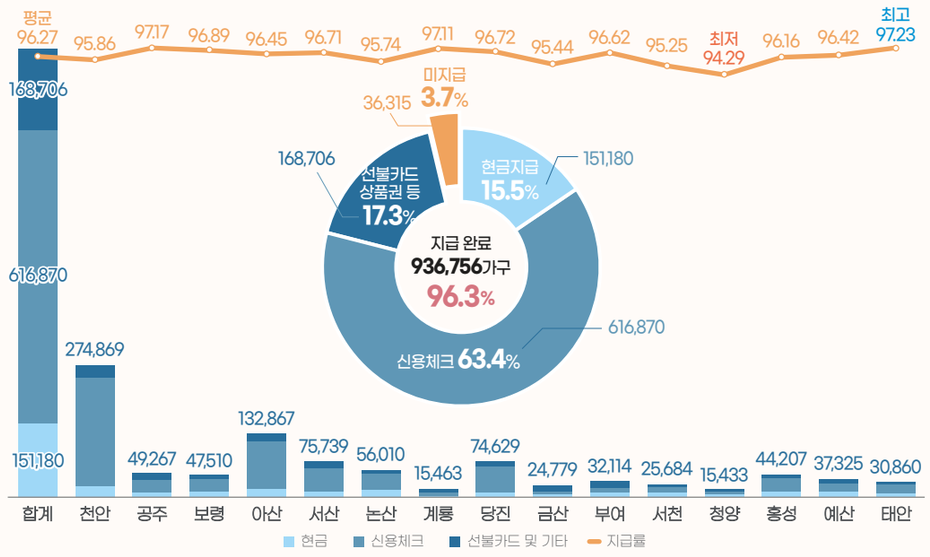
충남도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2020. 06. 29. 15:00 기준

지급수단 및 방법	대상가구 (a)	지급완료 (b)	집행액 (억 원)	대상가구 대비 지급률 (b/a×100)
합 계	973,071	936,756 (96.3%)	5,881	96.3%
▶ (현금지급 / 5.4~8.4)기초수급자 등 - 별도 신청 없이 계좌입금	151,308	151,180 (15.5%)	703	99.9%
▶ (신용체크 / 5.11~6.5)일반 도민 - 카드사 홈페이지,연계은행	821,763	616,870 (63.4%)	5,178	95.6%
▶ (선불·상품권 / 5.18~8.18)일반 도민 - 읍 면 동 신청접수		168,706 (17.3%)		

충남 시·군별 지급률

2020. 06. 30. 15: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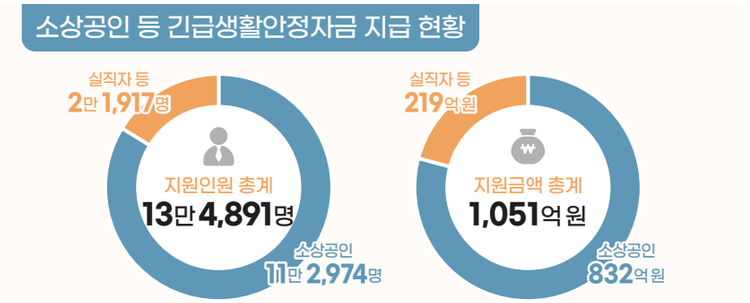


❷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재원은 충남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여 마련하였다. 충남도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간 각 시·군을 통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신청을 받아 13만 4,891명에게 총 1,051억 원을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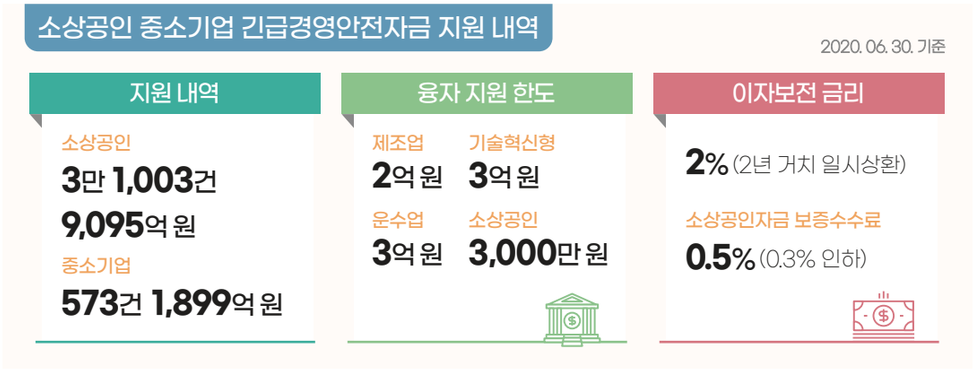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남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충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이상의 실직근로자(2020년 2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였다.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과 학생, 타 정부 지원 수혜자,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업황 양호 업종, 월 10일 미만 근로자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매출 20% 이상 감소를 입증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입증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씩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6.1%), 숙박 및 음식점업(23%),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2.7%), 건설업(9.2%), 운수업(7.3%) 순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실직자 등 지원대상별 분포는 무급휴업·휴직자 8,074명(36.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491명(34.2%), 실직자 6,352명(29.0%)으로 나타났다.

2 긴급경영안정자금

충남도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였다. 융자, 이자보전 금리 지원, 보증수수료 지원 등으로 이뤄진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은 모두 1조 5,494억 원으로 소상공인 1조 2,570억 원, 중소기업 2,924억 원이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자금(보증) 3만 7,553건에 1조 1,171억 원이 신청 접수돼 3만1,003건 9,095억 원이 지원됐으며 발급률은 99.5%였다. 중소기업 자금(융자)은 621건 2,093억 원이 신청 접수돼 573건 1,899억 원이 지원됐으며 추천율은 98.1%이었다.

3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지원

충남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 1,500억 원 중 180억 원은 충남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도비 100억 원, 시·군·비 80억 원)으로 시내·시외버스 재정 지원, 법인·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투입되었다. 2020년 3월 31일부터 운송수입금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버스업체, 법인·개인택시 운전자 7,101명을 대상으로 지원됐는데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20억 원을, 4월 3일에는 아산과 논산 3개 시내버스 업체에 14억 8,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3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4월 28일 1차로 14만 4,000가구에 가구당 45만 원씩 우선 지급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2020년 2월 19일 충남도는 2019년 시행했던 농민수당제를 수정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은 도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2020년 16만 5,000가구(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에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총 소요 예산은 990억 원으로 충남도와 시·군이 각각 40%와 60%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다.

충남도는 농어민수당을 당초 5월 25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속에 도내 농어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4월 27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하기로 하였다. 농어민 수당은 2020년 4월 28일 1차로 14만 4,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5만 원씩 우선 지급되었다. 시·군별 대상 농가는 서산시가 1만 3,972농가로 가장 많고, 당진 1만 3,203농가, 부여 1만 2,500농가, 논산 1만 2,446농가, 예산 1만 1,939농가 등의 순이었다. 시·군 중 부여군은 모바일 지역화폐를 통해 4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시·군도 7월까지 1차 지급을 모두 마치도록 하였다. 농어민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종이류, 모바일, 카드형 등 시·군 자율)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000가구는 2차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및 예산액

지원대상	지급금액	소요액
16만 5,000가구	**연 80만 원**	**1,320억 원**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현금 또는 지역화폐	도 40%, 시·군 60%

전국 최고액인 가구당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

2020년 6월 4일 충남도는 농어민 수당을 전격 인상했다. 60만 원에서 20만 원이 오른 연 80만 원으로 전국 최고액이었다. 충남도는 도농 소득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내 전체 농가의 64.1%가 소규모 농가(1ha 미만)이어서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농어촌 환경이 열악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농어민수당 예산은 연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증가했다. 도와 시·군은 60만원 지급분의 경우 40대 60으로 분담하고 인상분 재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후 잔액 270억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❹ 수출 위기극복협의회 운영 등 수출 지원

장기적으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추진

충남의 수출액 가운데,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5.9%(중국 29.4%, 홍콩 16.5%)다. 중국 수출액은 총 235억 달러로 도내 수출액의 29.4%를 차지하며 수술 기업 수는 2,467개로 천안·아산지역에 집중 분포(1,586개사, 64.3%)돼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수출액은 12억 3,000만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액의 28.9%를 차지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기업 피해는 불을 보듯 분명하였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로 가동을 중단(쌍용차, 2월 4일~12일 가동 중단, 현대기아차 2월 24일부터 일부라인 가동 중단) 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이미 코로나19의 여파가 미치고 있었다.

충남도는 2020년 2월 4일 충남도는 온양5동사무소에서 충남 경제상황 점검 및 현장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출통상·소상공인·일자리 등 분야별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2월 14일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수출위기 극복 협의회'를 열어 수출현장의 피해사례 분석, 중국 추진예정 수출 지원사업 재검토, 중화권 이외의 신규시장 발굴,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지원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위기대처 능력을 높여 가기로 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강화

3월 26일 충남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출 고도화 사업은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으로 입국 제한·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기업의 직접적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지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충남도는 총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식품·화장품·소비재 분야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제품의 소피(동남아), 아마존(미국) 등 해외유명 온라인 마켓의 '충남 K-푸드', 'K-뷰티관' 입점 등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또 해외전시회나 무역사절단 참가가 어려워진 대신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하하였다.

이밖에 수출입보험료 지원(지원한도 200만 원→300만 원),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기존 10개 업체→ 25개 업체),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기존 25업체→ 40개 업체), 온라인 무역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기존 20개 업체→ 40개 업체) 등의 수출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하였다. 충남도는 2020년 3월 4일에는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출장이 어려운 도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0년 충남도 수출 지원사업

사 업 명		지원규모(개사)	추진(대행)기관
24개 사업		2,145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지원 (13개사업)	소 계	686	
	해외시장개척단(5회)	42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40	KOTRA지원단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단체, 10회)	58	중진공,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문화산업진흥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개별)	50	경제진흥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5회)	32	경제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
	해외지사화	25	경제진흥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20	경제진흥원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260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현지 수출상담회 (베트남 비즈니스파트너십)	27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상사 활용 수출대행 지원	2	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00	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 지원	20	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10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수출인프라 지원 (4개사업)	소 계	10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80	경제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15	한국무역협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5	경제진흥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	(2개대학)
수출기업 소통 및 홍보 강화 (7개사업)	소 계	1,354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100	경제진흥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34	경제진흥원
	무역의 날 기념식	60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CEO포럼	100	道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운영	-	道
	찾아가는 수출지원 종합상담실	60	道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	道

5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재정 지원

보통교부세 상반기 중에 집중 교부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에 나섰다. 2020년 5월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 신속 집행에 나선 데 이어 2020년 5월 2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충남도는 1분기 신속 집행을 위해 인건비·급량비 등의 집행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의료원 의료인력 재정 지원사업 등에 성립 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1분기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를 상반기 중에 집중 교부하고 지역개발기금·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충남도의 상반기 집행 목표 4조 888억 원

충남도의 상반기 집행 목표는 4조 888억 원으로, 정부 집행 목표치 65%보다 5% 높은 70%이며 앞서 설정한 집행 목표액 3조 8,020억 원보다 2,868억 원 증가한 규모였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예산에 대해 조기 발주, 긴급 입찰, 선금 집행, 일상 감사·계약 심사·적격 심사 기간 단축을 적용하고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월별 교부 제외의 한시적 운영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감면 등의 세제 지원도 이루어졌다. 또 경영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하면서 전통시장 사용료도 서천·금산 30%, 부여·태안 50%, 청양 70%가 각각 감면되었다.

어업종사자 등을 위한 보령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유통(74개소) 및 가공시설(1개소) 임차인 사용료도 인하(재산 평정가격 요율인하 5%→1%)되어, 연간 사용료로 환산하면 유통시설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가공시설은 3,9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되었다.

2020년도 도로 점용료도 25% 감액 징수하고 이미 수납된 점용료는 반환 조치됐다. 또 공영주차장 20개소(천안 11개소, 공주 9개소)는 무료 개방하고 위·수탁 14개소(보령 7개소, 서산 7개소)는 위·수탁료를 감면해 주었다.



4 민간의 협력과 지원

❶ 자원봉사

1 의료·방역활동 자원봉사

충남도·천안시의사회 선별진료소 봉사활동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은 위기 극복의 큰 힘이 되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해 묵묵히 힘을 보태는 종사자들의 활동은 의료현장부터 취약계층 돌봄 현장까지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코로나19의 최일선인 선별진료소 등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가 빛났다. 충남도의사회와 천안시의사회는 2020년 3월 4일부터 천안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1일 2명씩 총 20명의 의사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의심환자 구분, 검체 채취 등 의료봉사를 펼치며 선별진료소 운영을 전담하는 공중보건의들의 노고를 덜어주었다. 천안시의사회는 자원봉사 참여 민간의사를 30명까지 늘렸다.

충남도 자율방재단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방역현장에서는 충남도 지역 자율방재단이 활약이 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2008년 처음 구성된 충남도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과



● 충남도 지역자율방재단 방역 봉사활동

대응, 복구 활동에 실질적인 민간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도내 6,633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과 함께 감염병 예방 거리캠페인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물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4만 개를 구입하여 자치단체에 기부했다.

민간기업의 봉사도 빼놓을 수 없다. 천안시 사회적기업인 김정민 생활환경은 2020년 2월 29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천안중앙시장, 천안역전시장, 성정시장 3개소의 전통시장 총 6만 2398㎡ 규모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김정민 생활환경은 우한 교민 격리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방역을 전담했던 업체이다.

2 화훼농가 돕기 꽃 소비 촉진 운동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중국 등 해외 수출길이 막힌 데다 졸업·입학식 등 각종 행사의 취소로 꽃 소비까지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업인을 돕기 위해 꽃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 2월 12일부터 전개된 '화훼 농가 꽃 사주기 운동'에는 충남도 본청 등 총 366명(본청 215명, 농업기술원 7명, 의회 9명,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135명)이 참여해 프리지아 745묶음(223만 5,000원 상당)을 구매했다.



● 충남도 꽃 소비 촉진운동 전개

5월 11일에는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원 테이블 원 플라워(one table one flower)' 운동의 일환으로 화훼농가가 생산한 꽃을 구입해 도청 내 각 부서에 전달하였다. 배분한 꽃은 국화·장미 등 도내에서 생산된 품종으로, 한국화훼협회 충남도지회 태안군분회를 통해 구매했다. 충남도는 구입한 꽃을 본청과 의회사무처·감사위원회 등 부서별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꽃병과 함께 전달했다. 충남도의 화훼농가 돕기 꽃 소비 촉진 운동은 각 시·군과 농업기술원, 도립대 등 각 기관 단체의 적극적 참여 속에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등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3 농촌일손돕기

15개 시·군 207개소에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장기화 속에 입·출국이 제한되어 외국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국내 인력 수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는 영농철 농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15개 시·군의 읍·면·동 207개소에서 농촌일손돕기 운영창구 및 농촌인력중개 센터(지역농협 137개소)를 운영하였다. 일손돕기 창구를 통해 희망 농가를 파악해 시군과 농협, 유관기관 등과 연결해주는 등 기관 협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지원하였다. 충남도의 식량 원예과 등 각 과와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 각 시·군이 농가 일손 돕기에 참여해 지역 농가의 못자리 설치, 밭 관수 호스 설치, 과수농가 사과 적화·배 꽃가루 수분, 봄나물·쪽파·버섯 등 농산물 수확, 잡초 제거 등을 도왔다.

4 면 마스크 제작 배포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해 취약계층에 배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취약계층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필터교체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 배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홍성군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2020년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충남도서관 3층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소속 봉사자 20명과 함께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제작하는 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이 만든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는 세탁이 가능하고 마스크 안에는 별도의 필터 주머니를 설치, 필터를 교체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충남도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 대상자와 가정위탁 아동 및 세대주 등 3,200여 명에게 배부되었다. 충남도자원봉사센터는 마스크의 수급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자원봉사들과 함께 꾸준히 마스크를 제작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다. 충남도와 도 자원봉사센터는 시·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스크 5,000매를 추가 제작하여 전 시·군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

면 마스크 제작은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천안봉사관에서도 진행되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월 25일 면 마스크를 제작 중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천안봉사관을 방문,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면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을 했다.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는 면 마스크 총 7,000개 제작을 목표로, 3월 14일부터 하루 500개씩 생산하였다. 면 마스크 제작 사업은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등 8개 적십자사 시·군 지구협의회에서도 진행되었다.

⑤ 도시락 배달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해 '안녕한 한 끼 드림' 사업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복지관이나 센터, 무료 급식소,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각급 학교의 등교가 중단되면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20년 5월 14일 충남도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료 급식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유학생, 아동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안녕한 한 끼 드림' 사업을 진행했다. '안녕한 한 끼 드림'은 농협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충남도·시·군 자원봉사센터가 5월 28일까지 총 3만 7,268개(31곳)의 도시락을 도내 결식아동 가정,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난 취약계층과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대학들에 직접 전달되었다.

② 기부 및 후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의료용 마스크 2만 480장 기증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감염병을 극복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각계로부터 방역물품, 후원금 기부가 줄을 이었다. 대한



● 천안시의사회 후원금 3,780만 원 기부

적십자사 충남지사는 3월 26일 도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의료용 마스크 2만 480장을 기증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신부 1만 3,591명에게 마스크(1억 5,000만 원 상당)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4만 1,000장, 항균 패드 1만 3,591세트(1인당 마스크 3매, 패드 1세트(10장))가 4월 이후, 시·군별로 순차 배분되었다.

천안시복지재단의 이정원 이사는 2020년 2월 28일 보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2020년 2월 28일 천안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천안시의사회는 2020년 3월 4일 대구지역에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자 17명과 천안지역 확진자 24명, 기타지역 확진자 4명을 돌보고 있는 천안의료원에 1,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3월 10일 2,000만 원 등 총 3,78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천안시의사회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시작한 모금 운동으로 마련되었다.

각계각층 코로나19 예방 지원금 기탁 줄이어

홍성의료원은 3월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에도 나섰다. 입원환자 및 격리병동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담요, 위생용품, 수건 및 소독 티슈 등의 물품을 구입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 생활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또 4월 28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618만 원을 충남도에 전달하였다.

JB주식회사는 3월 2일 충남도에 5,000만 원, 천안시와 아산시에 각 1,0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했으며 천안시 후계낙농인회는 4월 28일 천안시에

우유와 생수 등 4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자 등에게 전달되었다.



● 농협중앙회 아산사랑상품권 3,000만 기탁

코로나19 긴급 방역을 돕기 위한 각 기관, 단체들의 후원도 줄을 이었다. 2020년 2월 4일 공주 마곡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2월 6일에는 농협중앙회가 아산사랑상품권 3,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코로나19 예방 지원금 500만 원을, 아산시치과의사회에서는 200만 원을 각각 후원했다. 2월 7일 애경산업이 황사방역마스크 1만 장과 치약·샴푸·세탁세제 등 3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했다.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생활 아동에 건강키트 전달

2월 11일에는 부여적십자회는 마스크 170장과 핫팩 100개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원금 1,000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충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는 각각 100만 원을 기부했다. 충남의약단체협의회(충남의사회·충남치과의사회·충남한의사회·충남약사회·충남간호사회)는 지원금 1,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옥고 100개를 후원했고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또 KB국민은행, 굿네이버스 대전·충남본부의 지원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생활 아동(42개소 400명)에게 호흡기 마스크, 손세정제, 구강 청결제, 핸드타월 등으로 구성된 건강키트가 전달되었다.

2월 17일에는 위텍코퍼레이션(주)이 마스크 1만 개를 의료기관에 지정 기부하고 마스크 3만 개는 시중가의 반값으로 신속 납품하기로 하였다. 3월 12일 충남교향악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3월 13일에는 충남문화관광해설사회가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 KB국민은행 아동용 건강키트 후원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내역

모금 내역

총 건수	현금	현물
2,270건	2,144건	126건
총 금액	24억 원	3억 원
27억 원		

지원 내역 ※ 중앙회 지원금 5억 원 포함

총계	방역 및 위생관리	취약계층 생계 지원	의료진·자원봉사자·확진자 등 지원
32억 원	23억 원	7억 원	2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총 모금액 2,270건에 27억 원

2020년 6월 3일까지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된 총 모금액은 2,270건에 27억 원에 달하였다. 이 중 현금은 2,144건에 24억 원, 현물은 126건에 3억 원이었다. 충남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지원금 5억 원을 포함해 총 32억 원을 충남도내 방역 및 위생관리,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으로 활용했다. 세부 지원현황은 방역 및 위생관리 23억 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7억 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확진자 지원 2억 원이었다.

제3장 장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충남도의 정책 건의

COVID-19



Part 1 장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1 포스트-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

2 포스트-코로나9 대응 자문위원회

Part 2 충남도의 정책 건의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그 이후라는 경계선을 두고 급격하면서도 극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류의 삶은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체계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는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도정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위기의 미래를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시대로 변화시키고자 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으고 있다.

1 장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❶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

포스트-코로나 19 대응시스템 구축해 전방위 대응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경제, IT 및 AI 기술 등을 활용한 4차산업혁명이 촉진되고 사회적으로는 온라인 학습 확대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개인별 IT 환경 여건에 따른 사회단절이 심화되며 재택근무·자율출퇴근 확대로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유튜브, SNS,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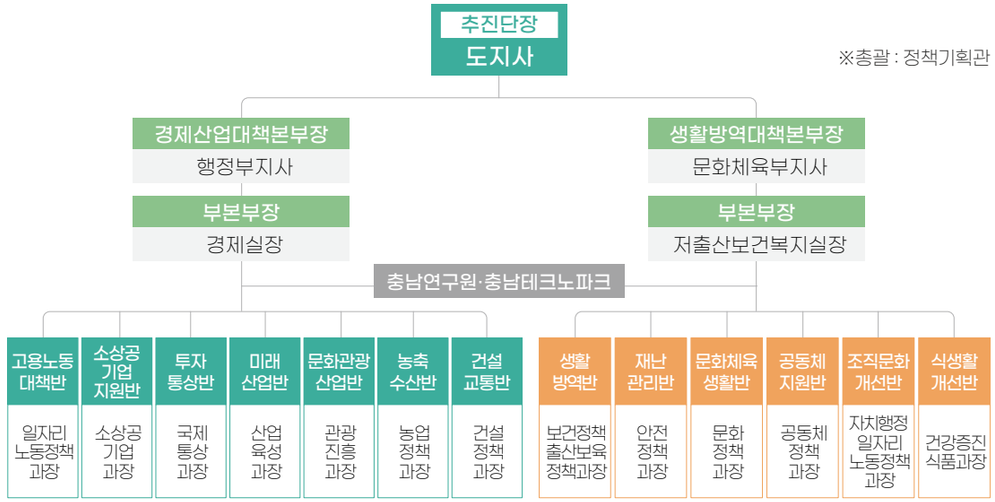
● 양승조 도지사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

충남도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도정발전과 경쟁력 확보, 도민 삶의 질 향상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경제·사회·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20년 4월 16일 양승조 도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우선 충남도청의 전 부서가 참여해 전 방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당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포스트-코로나 19 대응추진단 구성

이를 위해 충남도는 충남연구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 정책자문기구,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을 구성, 중점 가동하기로 하였다. 추진단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2개 본부(경제산업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 생활방역대책본부/본부장 문화체육부지사) 아래 13개 대책반(경제산업대책본부 7개 반, 생활방역대책본부 6개 반)을 두었다.

포스트-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추진단 조직도



대책반은 생활방역 및 생활 속 감염병 예방 대응역량 강화, 방역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생활안정 대책, 실업 및 일자리 대책, 금융위기 대응방안,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시스템 구축,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 시스템 구축 방안 등 대응과제 발굴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시점(5월초)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시·군에서도 자율적으로 POST-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운영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추진단 구성과 역할

구 분		반 장	역 할
경제산업 대책본부 (간사: 경제정책과장)	고용노동대책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및 생계 지원, 교육 훈련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실업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팬데믹 관련 AI, 바이오 등 산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발굴 추진
	소상공 기업지원반	소상공기업과장	도산위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 지원,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및 고정비 지원(임차료, 종사자 임금), 중소기업(하청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 추진
	투자통상반	국제통상과장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국내외 기업 유치, 중소기업 수출 지원(판로 다각화 등)
	미래산업반	산업육성과장	팬데믹 성장산업(신규 산업) 육성,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AI, 건강식품, 생활환경, 의약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식서비스산업 및 온라인 유통중심 벤처기업 육성, 보건·방역·인수 공통 감염병 대응 미래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반	관광진흥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관광자원 및 여행상품 발굴 운영, 관광산업별 피해와 영향조사를 통한 사업별 대응전략 마련, 자연경관 중심의 소규모 관광상품 개발
	농축수산반	농업정책과장	농수축산업 유통체계 개선, 농수축산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정비, 유통과 판매 방식 다양화(온라인 직거래, SNS 등)
	건설교통반	건설정책과장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발굴·추진, SOC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고 및 미래를 대비한 SOC사업 계획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저밀도 주거환경 모델 개발
생활방역 대책본부	생활방역반	출산보육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및 식생활 문화 등 인식개선 활동, 공기청정기, 의료폐기물 등 생활안전 장비 및 시설 구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 강구
	재난관리반	안전정책과장	생활현장에서의 방역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생활 속 거리 두기 캠페인 전개, 이행실태 점검 등)
	문화체육생활반	문화정책과장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 구축, 종교·예술·체육 등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안전망 구축
	공동체지원반	공동체정책과장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자, 지역공동체 갈등 조정 및 소통체계 재정립)
	조직문화개선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원격근무, 디지털결재, 전자상거래 등 근무 환경 개선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 물품 구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식생활개선반	건강증진식품과장	식생활 문화개선 대책 수립 및 캠페인 전개 (개인 식판 사용, 한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등 생활 속 정착)

②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경제산업·문화 관광·방역 등 각계전문가 33명으로 자문위 구성

2020년 5월 20일 충남도의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 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촉식 및 첫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5월 초부터 가동을 시작한 도의 '포스트-코로나19 대응추진단'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자문위는 무역 및 노동 관련 기관장, 의학·공학·관광 관련 교수, 중소기업 및 시민·사회 단체장 등 33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통해 대응추진단 활동 자문과 함께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방역 등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 '코로나 이후의 산업과 경제',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19와 정치·사회의 변화'를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제안사항이 제시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추진단은 자문위원별 제안사항에 대한 소관 반별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사진=충남일보>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제안사항

경제산업대책본부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 중국 등 수출 지원계획 및 유턴 기업(리쇼어링)의 유치방안 모색
- 대기업과 충남도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 대기업 등의 투자방향과 연계하여 충남도의 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및 일거리 확대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추진 필요
- 충남의 신산업 인재육성·확보 계획 수립 필요
  - 천안·아산 내 AI, 4차산업혁명, 제조업혁신 관련 클러스터 조성,
  - 산업현장 경력자에 대한 AI 관련 분야 전환 교육 필요
- 충남형 그린뉴딜(에너지 정책) 정책 방향 설정
  - 화석연료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저감시설, 수소에 대한 투자 등 고려
  - 동서발전과 협업 ▲태양광 설비 설치 ▲분뇨 활용 등 소규모 분산형 전력생산
-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 회복력 관련 대표적인 정책지표 설정·관리
-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대 계획, 추진을 통한 충남도 이니셔티브 확보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제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방안 모색
- 직업훈련 및 전반적인 고용서비스의 개편 필요

생활방역대책본부

-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역감시망 구축 필요
- 관광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현금, 공모사업 등) 모색
- 충남지역 내 의료방역 대비·대응체계 철저히 구축
  - 방역물품 비축, 광역전담 생활치료시설 관리, 인력 확충 및 재정 지원, 임시의료시설 전환 방안 마련 및 모의훈련 등
- 국내 여행 활성화 방안 및 관련 대책 마련
  - (단기) 도 내 관광시설, 숙박업 등 이용료 50% 지원, 관광택시 도입 등
  - (장기) 충남형 관광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충남도 관광품질인증제 착근화 준비
-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해 공동체 내 사회적 합의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민간단체와 충남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활성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 필요
-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방안 마련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
- 대응추진단 내 문화 관련 조직의 일원화 필요
  - 경제산업대책본부 문화관광산업반과 생활방역대책본부 문화체육생활반을 하나로 통합
- 차세대 융·복합 스포츠 서비스산업 생태계 구축

경제산업대책본부 회의

충남도는 ‘지역경제 상황대응 TF’를 ‘경제위기대응 대책본부’로 격상시켜 운영하기로 하였다. 2020년 4월 1일 1차 회의가 개최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반별(분야별) 상황대응을 점검하고 지역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경제위기대응 대책본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추진반 경제산업대책본부로 재편돼 운영되었고 5월 26일까지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4월 1일 1차 회의

대량실업 대응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집중 논의

경제위기대응 대책본부 부본부장(행정부지사) 주재로 13개 반,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돼 지역경제 상황점검 및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각 대책반 별로 타 시·도 우수시책 등을 적극 반영하고 각 부분별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과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시된 각 부서의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경제산업대책본부 1차 회의

부서별로는 도내 5대 핵심산업 현황조사와 실질 지원(산업육성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대규모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을 통한 대량실업 대응방안 마련(일자리노동정책과), 도내 대기업(삼성, 현대 등) 관련 협력업체 상생협력사업 발굴 추진(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체계 마련(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추진(소상공기업과), 지역상권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 조속 추진(소상공기업과), 코로나19 피해접수 센터 운영 추진(소상공기업과), 국내 및 외투기업 유치(투자입지과), 기업 필요 원부자재 파악 실질 지원(국제통상과), 4차산업 기본계획 내실 있게 추진(미래성장과), 작은 식당 활용 음식배달 사업 시·군 참여(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사회적경제과), 실업 대책과 고용안정 대책 등 청년들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청년정책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관광진흥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수산물 팔아주기 전 시·군 확대 운영(농축산수산반)이 제시되었다.

4월 22일 2차 회의

'2단계 경제살리기 운동 및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결정

13개 반,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제안, 건의 시책 수렴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전개' 등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최선을 다하되 향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행정, 소비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기업 등 민·관 참여 및 다양한 경제 주체간 협력을 통해 2단계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단계 경제 살리기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남도와 시·군정 홍보 매체와 LED 광고판을 활용하고 도내 주요거점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2단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매주 금요일을 '소비촉진의 날'로 지정해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축수산물 팔아주기, 전통시장 장보기, 중소기업 및 사회적 업 등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하였다. 단기적으로 대량 실업 대응, 내수 진작 등 경제 살리기를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고 경제적 약자의 대량실업 대응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뉴노멀, 충남 신경제발전 전략(충남의 경제적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경제·복지 분야의 신성상산업 발굴시스템 구축 등 선순환 전략 마련 대응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5월 22일 3차 회의

자동차산업 R&D사업과 그린뉴딜 SOC사업 발굴 등 논의

3차 회의는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 경제실장, 각 대책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각 실·국에는 재난지원금의 지역소비 진작에도 경제 악화가 여전한 만큼 자문단 운영과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즉시 시행사업과 중장기적 사업, 종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경제산업대책본부 4차 회의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특색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일자리노동정책과), 산림벌채와 숲 가꾸기 등 각 부서 사업의 일자리 사업화 추진(전 실·국)이 제시되었다. 또 경영안정자금 현황 분석 지원율 제고 및 불요불급한 경우 다른 용도 전환(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판매 활성화 동참(전 실·국),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차질 없이 준비(국제통상과), 코트라 및 수출입은행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유턴 희망기업 적극 유치(투자입지과), 도내 유턴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규제 점검과 규제 완화(환경안전관리과),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R&D사업 발굴 지원(미래산업반), R&D 등 정부 정책사업 정보 기업 공유(소상공기업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소규모 가정간편식 식품산업 육성 추진과 생산시설 현대화 및 배달시스템 구축(농촌활력과), K-방역과 관련해 충남도 가능 사업 발굴 추진(농림축산국), 그린뉴딜 관련 새로운 SOC사업 발굴 추진(기후환경정책과)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6월 4일 4차 회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김용찬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4차 회의는 경제실장, 정책보좌관, 각 대책반장 유관기관(5명), 관련 전문가(3명)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국 추진사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 실·국별로 지역경제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세부 추진사항은 '다 같이 더 행복한, 착한 경제 활성화 운동 추진'을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경제정책과),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일자리사업 발굴 조속 시행과 '언택트 산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속 발굴 추진(고용노동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소상공기업지원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대폭 확대(소상공기업지원반), 도내 기업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현황 파악 후 추가 입점 지원(국제통상과), 휴먼마이크로바이오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내 추진(미래산업반), 역사문화원 등 전문가와 협력해 백제문화 체계적 연구 및 관련 사업의 2021년 국비사업 반영 추진(관광산업반), 소규모 가정간편식 시범사업(2개소) 내실 있는 추진(농축수산반) 등이다.

경제산업대책본부 회의 - 외부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내용	소관부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정부 일자리정책 사각지대 공략해 정책 시행(청년과 여성, 5명 미만 사업자 고용지원대책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 맵을 만들어 홍보	고용노동반
안용주 선문대학교 교수	스몰 숙박시설 개발,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백제문화 재현, 국내 관광으로 유턴하는 내국인 충남 유치	관광산업반
	대중교통 활성화 등 선진 교통모델 개발	건설교통반
	무슬림 인구 대상 신할랄 간편식품 개발	농축수산반
	중소기업과 도내 34개 대학과 함께 충남형 기업박람회 준비	고용노동반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기업 수요파악 리쇼어링 기업 유치	투자통상반
	열감지 센서시장 분야 충남형 중견기업 육성	미래산업반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특화쇼핑몰 운영	소상공기업 지원반
석진홍 충남일자리 진흥원 팀장	고용보험 가입자 파악,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고용노동반

생활방역대책본부 회의

5월 18일 **1차 회의**

지역 축제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개최방안 제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추진단 생활방역대책본부 1차 회의는 본부장인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의 주재로 충남도 공무원 11명과 자문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반별 이행 계획과 무자격 체류 외국인 감염검사 등 행정명령 검토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각 반별 이행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지애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지침의 재검토(면회 방안 등)를 통해 외부적 고립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선욱 충남문화재단 문화산업팀장은 지역 축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한 새로운 문화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 마련과 지역예술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문화 변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박성순 충남자원봉사센터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상처 치유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은 사업안전보건법상 강행 규정인 노동안전보건교육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근로자보다 사업자가 방역 활동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 감염검사 등 행정명령 개선방안 논의

또 무자격 체류 외국인 감염검사 등 행정명령 검토 및 검사향상 방안에 대해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 등록업체에 무자격 이주 노동자도 같이 있어 무자격 이주 노동자 검사를 위해서는 등록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충남도에만 행정명령을 내리면 풍선효과처럼 경기도 등 타 시·도로 무자격 이주 노동자가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이 동시에 행정명령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각 자문위원의 자문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온라인 무관중 공연 등으로 문화행사 추진방향 전환, 이웃 간 단절과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소외·갈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치유회복 및 예방활동 프로그램 추진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5월 29일 **2차 회의**

학생의 마스크 올바른 착용방법 교육 강화 필요

2차 회의는 자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등교 관련 방역대책과 축제와 문화행사 등 지역행사 방역대책이 보고된 뒤 각 사안별 논의가 진행됐다. 학교 등교 관련 방역대책과 관련해 전일순 충남의사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조기격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이성수 순천향의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올바른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용주 선문대 교수는 열화상 카메라가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지역행사 방역대책과 관련해 안용주 선문대 교수는 지침이 너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까지 구체화시키는 것은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축제 개최시 출·입구 통제, 전자출입명부, 개방형 임시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일순 충남의사회 부회장은 야외 행사는 밀집도가 높더라도 운영형태를 고려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지원 충남문화재단 부장은 공연은 '거리두기 좌석제' 이행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리두기 좌석에서 가족 관람객은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 12일 3차 회의

해수욕장 구획 설정 및 사전예약제 운영 방안 제시

외부자문단 10명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하절기 휴양시설 방역대책 보고(해수욕장,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이어 고위험 집단시설 방역관리 개선방안(면회 재개 등)과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검토 등이 논의 되었다.

전완수 태안 만리포관광협회장은 외국인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아 미군 평택부대 등에 대해 충남도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밝혔고 조상래 스플라스 리솜 총지배인은 물놀이장 입장시 개인수건을 지참토록 지침하고 있는데 가져 오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어서 공용 수건을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정완 순천향병원 과장은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 중 감염위험이 높은 사우나 시설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임지애 감염병지원단 부단장은 확진자 발생 대비 이용자가 사용한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권역별로 나눠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해수욕장(충남 8개소)에 일정구획을 설정하고, 7월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미군부대 공문 발송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생분야 업종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제안

고위험 집단시설 방역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곽정옥 장수노인요양원 원장은 면회 관련 매뉴얼 지침의 제정에 공감하며 충남도에서 빠른 시일 내 제정해 배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배용정 금산 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은 면회지침 마련시 환자 임종시의 면회방안 마련과 요양병원마다 건물구조(단독건물, 집합건물 등)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검토에 대해 김장수 외식업당진시지부장은 밀접접촉이 많은 위생분야 업종은 출입구에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표은용 외식업당진시지부장은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보다는 홍보와 계도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24일 4차 회의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 선정 및 운영방안 논의

외부 자문단 4명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4차 회의에서는 충남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 선정과 하절기 무더위 쉼터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석구 충남대 교수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도장 등을 통해 출입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임지애 김염병지원단 부단장은 무더위 쉼터 내 노래, 식사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방역대책본부장은 무더위 쉼터 방역관리자 지정과 워터파크 업체에서 건의한 '안심시설 인증' 검토, 해수욕장 인근 숙박·휴양시설 등에 방역수칙 권고 등의 추진사항을 각 실과에 주문했다.

2 충남도의 정책 건의

중앙재해 대책본부에 총 56차례 정책 건의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범정부 지원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가동하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국민 안전을 위해 협력해 왔다. 2020년 1월 31일부터 정부 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상황을 공유하며 전일 논의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였고 이는 다시 지자체-유관기관으로 전달되어 코로나19 방역 극복을 위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었고 정부와 각 지자체의 일일 영상회의 등 감염병 대응 협력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충남도는 양승조 도지사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충남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건의사항을 보고 하였다. 충남도의 중대본 회의 주요 정책 건의와 제안은 ▲해외입국자 시설 격리 ▲역학조사관 양성 ▲국회의원 선거 관련 거소투표 요건 개선 ▲무자격 해외체류 외국인 적극 진단검사 ▲역학조사·대상범위 확대 등 총 56차례(6월말 기준)가 이루어졌고 법 개정, 제도 개선 등으로 즉각 반영되었다.

충남도 중대본 영상회의의 주요 제안 및 건의사항 내용

2020. 06. 기준

건의 일자	구분	제안 및 건의 사항	주요내용	
			기존제도 또는 문제점	제안 및 건의내용
2.21.	법 개정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권자 확대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권자 :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지정권자 확대 :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 시장·군수 포함
2.23.	제도 개선	실효적인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방안 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운 영토록하고 있으나 고령환자가 많고 대체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실행 곤란	시·도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단계적으로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
		집단환자 발생 시 국가시설 등 활용 조치	집단환자 발생시 격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시설 등은 제공 기피	국가시설 및 외부와의 격리가 용이한 연수원 시설 등의 활용 방안 강구
2.26.	제도 개선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보고체계 개선 요청	확진환자 발생 시·도에서 역학조사 및 결과보고. 이에 따라 확진환자 발생 시·도에서 방문 사·도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결과 보고하므로 오랜 시간 소요	확진환자 발생시 도에 이동경로를 통보하여 방문 시·도에서 역학조사와 결과보고 등 조치하도록 개선
	법 개정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확진환자 발생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여부 판단권한은 규정상 중앙정부에 있어 감염병 정보의 미공개 또는 사후공개로 지역사회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부정확한 정보 확대로 혼란 가중	도내 확진환자 발생에 관한 정보(발생시기, 이동 경로, 접촉자 등), 타 시·도 확진환자의 도내 방문에 관한 정보 등 공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3.2.	제도 개선	정부 차원의 학원, 교습소 휴원명령 근거 마련	휴원명령 근거가 없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방지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적 운영지침 등 마련
3.3.	제도 개선	객관적인 역학조사 시점 설정 필요	역학조사는 발병일 기준 24시간 전 시점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발병일은 주관적 기준으로 증상의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학조사 시점 (예:확진일 며칠 전)을 설정
3.8.	제도 개선	마스크 배부방식에 대한 보완 개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3.5.) 이후구매 3대 원칙에 따라 중복구매 방지 등 긍정효과 있지만 접근성 측면 사각지대 존재	공적 판매처(약국, 우체국, 농협마트 등)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위해 일정비율을 이·통장단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완
3.10.	제도 개선	역학조사 대상 범위 확대 (무증상자)	현재 역학조사는 유증상자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어 접촉자 분류 및 감염원 파악이 지연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무증상자도 지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는 검사(무료)와 역학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제도 개선	역학조사관 양성	역학조사 자격이 없는 공중보건의는 보조 역할에 한정	의과대학 학과과정에 '역학조사'를 공통과목으로 채택하고 보건·간호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 대상 역학조사 '기본교육' 이수제 검토
3.12.	제도 개선	코로나19 치료위해 파견된 소방인력 지원기준 마련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나 파견 소방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은 없음	구급대원 등 파견 소방인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과 동일하게 지원
3.20.	제도 개선	4·15 총선 관련 거소투표 요건 개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만 거소투표 가능 결정.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 퇴소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제외	밀접접촉자 중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거소투표가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하고 거소투표 신고기간 연장
3.22.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주말 역학조사 지원	주말엔 통신사의 휴무로 인해 GPS 자료 확보 곤란	주말에도 통신사 비상 근무 필요

건의 일자	구분	제안 및 건의 사항	주요내용	
			기존제도 또는 문제점	제안 및 건의내용
3.22.	제도 개선	거소 불명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거소 불명 단기 체류 외국인(90일 이하)에 대한 능동감시 관리는 낮은 강제성으로 인해 당사자가 일방적 연락 차단 시 모니터링 불가능	거소 불명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시설격리 의무화(14일) 실시
3.30.	제도 개선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시 건강증명서 제시 의무화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관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국내 코로나 검사 후 입국
4.1.	제도 개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제한 완화 (방역분야 포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120% 범위, 2인 가구 이상은 65% 이내로 규정. 방역사업의 경우 지자체 고유사무로규정되어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제외 사업에 해당	기존 참여 기준과 별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실직한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 범위 확대. 제외사업의 한시적 완화 건의
4.3.	제도 개선	종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촉자 범위 확대	비말(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2m 거리 범위내의 사람들만을 접촉자로 분류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범위를 동일 시간대 이용자 모두에게로 확대하여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침 개정
4.6.	법 개정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학과 신설 지원	충남 4개 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 781명 대비 129명(16.5%, 2020년 1월 말 기준)이 결원. 이와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 추진 중이나 현행의료법상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졸업자만 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이 어려운 실정임.	의료법 개정 및 간호학과 신설에 관심과 지원
4.7.	제도 개선	격리 해제자(퇴원환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자가 재확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완치 판정 받아 격리 해제된 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지침 마련. 퇴원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및 해제 전 진단검사 의무화
4.8.	제도 개선	영농철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군부대 인력 지원		한시적으로 봄철 기간(4~6월)에 관할 지역 군부대 인력 지원 허용
4.13.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지원대책 필요	정부의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은 미흡 전망	TV홈쇼핑사와 협의하여 지역별 농수산물 특별전 편성 및 홈쇼핑 납품업체 수수료율 인하 등 지원과 소득공제율 80% 대상 업종에 포함
4.14.	제도 개선	감염병 전담병원 전담병원 손실보상 적기 지원	충남도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4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 환자만 입원, 치료 중이어서 수입이 급감하여 임금체불 위기 직면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 보상기준 조기 제시와 정상 가동에 이르기까지 발생비용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
4.16.	제도 개선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내 전수검사 실시	현재 정부 방침에 따른 의무적 진단검사 대상은 유럽발(내국인)과 미국발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이며 나머지 국가는 유증상시에만 진단검사 실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공항 내에서 전수 검사 실시
4.19.	제도 개선	신병훈련소 입소자 관리 강화	충남도내 소재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중 2명의 확진자와 1명의 재양성자 발생	모든 훈련소에 대해 입소 전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후 입소 조치하는 방안과 훈련 초기 일정기간(2주간)은 육체 훈련이 아닌 정신교육 위주의 훈련 등을 실시하여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안 제안
4.20.	제도 개선	지방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방향 변경	정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별로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하여 코로나19 환자만 입원·치료 중이며 현재 약 91.2%가 공실인 상황. 이에 따라 일반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의료원에서는 수입 급감하여 인건비 충당도 불가능한 상황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각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등 의료원의 정상화 방안 마련
4.27.	우수 시책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식생활 문화 개선	가족간 감염된 34건과 역학조사 시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된 5건 등 39건은 식사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전체 141건 중 28%)	국물 음식 함께 먹지 않기, 개별 식판 사용 등 식사문화 개선 필요. 충남도에서는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범국민 공익광고 등 홍보 건의
5.10.	제도 개선	무자격 체류 외국인 검사 동참 적극 홍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은 방역, 의료서비스 등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존재해 감염확산 우려. 충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농업, 축산업, 어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동참 홍보 필요
5.20.	제도 개선	무자격 체류 외국인 진단검사 지원	국내 무자격 체류외국인은 전국 38만 명으로 감염병 관리에 취약. 충남도에서는 자진신고를 전제로 무료 진단검사제도를 추진 중이나 신분노출 등 우려로 검사 실적은 미약함.	정부 차원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 고용주 및 일자리 알선 사무소 등에 대해 체류 외국인 신상제출 및 소재신고 권고 (필요시 행정명령) 등 건의
5.29.	법 개정	2020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연기 관련 조직 및 협의체 존치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년 연기 결정으로 조직위와 국방부지원단 등이 해체될 경우 엑스포 준비에 심각한 차질	행정안전부의 별도 정원 승인과 국방부 엑스포지원단 및 육군지원단 유지
5.31.	법 개정	직장 내 감염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교육내용에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역도 미흡한 실정	안전보건 교육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내용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및 사업장 방역 강화
6.3.	우수 시책	지자체에 카드사용 내역 등 요청 권한 부여	감염병 예방법에는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질본 등을 통해서만 카드 사용내역을 받을수 있어 이동경로 파악 및 접촉자 확인이 늦어져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	지자체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요청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 개정
6.10.	제도 개선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와 가족 간 안전한 면회 재개 방안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면회 금지가 지속(약 4개월)되어 입소자와 가족들의 스트레스 심각	충남도에서는 생활방역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사전예약제, 동선 분리, 공간 분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대면 면회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신속히 면회지침을 마련하여 면회재개 허용
	제도 개선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방안 개선	현재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진단검사비의 50%를 지원 중이나, 입원 후 진단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검사비 지원)으로 하고 있어 입원 전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요양병원도 요양원과 같이 입원 전에라도 기존 입원병원 등에서 진단검사 실시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6.14.	제도 개선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정책방안 마련	자발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나 QR코드 사용을 꺼려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무원이 모든 유흥업소 등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이용 여부를 관리감독하기에도 물리적으로 한계	유흥업소 등 전자출입명부 대상시설 이용 시 점검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에게 피드백 문자 발송 기능 도입 등 시스템 보완 마련을 건의. 방역지침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고, 보상제 도입 제안

현장 인터뷰

COVID-19



Interview 1 **정영림** 충남도 감염병대응팀장

Interview 2 **서산시 감염병관리과**

Interview 3 **임지애** 충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Interview 4 **임유나** 천안의료원 감염관리실 간호사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는 수많은 헌신과 노고가 있다. 이들에게는 야근은 예사이고 주말, 휴일도 없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극복해야만 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매일 매일 힘겨운 사투가 계속된다'라는 한 의료진의 말은 코로나19와의 '소리없는 전쟁'을 실감하게 한다.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의 현장에서 오늘도 땀 흘리는 이들이 있기에 위기는 곧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19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충남도 내의 공직자 및 의료진과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현 단계 상황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현장 인터뷰

정 영 림

충남도 감염병대응팀장

전 시·군 역학조사관 배치 등 선도적 대응

역학조사관에 대한 도민 신뢰와 협조 이어지길



INTERVIEW

Q1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감염병대응팀장으로서 종합평가를 한다면?

A1 충남도는 비록 광역시처럼 의료인프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2개 대학병원과 4개 지방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되어 확진자 병상배정에 큰 문제는 없었다.

충남도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3T(Test-Trace-Treat)를 중점적으로 이행했다. 첫째, 검사·확진(Test) 분야로는 요양병원 등 중점관리시설 검사 의무화 및 밀폐·밀집시설 종사자 무작위 검사, 증상 무관 희망자 무료 검사 등 신속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기 차단했다.

둘째, 역학·추적(Trace) 분야로는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 제1의 관건인 접촉자 신속격리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 역학조사관을 당초 3명에서 32명으로 확대 임명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과의 민·관 거버넌스 대응체계를 활용해 신속한 확진자 동선 분석(GPS, 신용카드 등)과 신속한 접촉자 격리를 추진했다.

셋째, 격리·치료(Treat) 분야로는 단기적으로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확진자 입원 병상을 운영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단위 치료역량 제고를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2024년 순천향병원 36병상)과 국가격리병상 추가 확충(2021년 아산충무병원 13병상) 등 진료체계를 강화했다.

Q2 충남도의 경우 병상이 충분한 편이었는가?

A2 충남도 내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병상을 확보해 운영했으며, 이는 확진자 발생 양상에 따라 4개 지방의료원을 단계적으로 병상을 소개하는 등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했으나 병상 소개 소요 기간과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의료원 적자운영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인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활치료센터에서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 입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병상 부족 상황은 없었다.

Q3 환자관리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A3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및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입원 기관을 달리했다. 우선,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및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으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등증인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인 4개 지방의료원으로 입원하도록 했고,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인 2개 대학병원으로 입원하도록 하는 등 병상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Q4 역학조사 시 가장 어려운 점은?

A4 확진자의 경우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충격으로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촉자 격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의도적으로 숨기는 확진자의 경우 CCTV, GPS, 신용카드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모든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신속격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직장 동료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될 경우 사업장 운영을 위한 최소인력이 접촉자 분류되는 것을 강하게 반발하여 역학조사에 어려움

이 있었으며, 이런 경우 지자체 내 인허가 부서의 협조가 필요했다.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를 위해 모든 접촉자 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 1실 격리가 필요했으나 시설 내 병실이 부족하여 접촉자 신속격리가 어려웠다.
일부 시·군의 경우 보건복지부 동선 공개 지침에 어긋나게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정보 및 이동 동선을 과하게 공개해, 확진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라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 방문 시 역학조사관에 대한 적대감으로 접촉자 분류가 어려웠다.

Q5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A5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감염병대응팀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다 보니 기존 사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는 차후 감사에 지적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사업비 정산과 예산집행, 예산편성, 의회 및 언론대응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고 향후 이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이 재발하면 오직 코로나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 대응 초기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도지사가 직접 참석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수많은 제도개선 사항을 도지사가 직접 건의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됨에 따라 역학조사 진행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다만, 코로나 대응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건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었다.

Q6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례는?

A6 코로나19 확진자 병상배정 과정에서 인접 시·도와의 협력이 아주 중요했으며, 충남도의 중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전, 충북에서 전원 입원을 위한 병상배정에 협조해 주었으며, 대전, 세종, 충북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우 충남도에서는 기꺼이 타 시·도에 비해 우선적으로 수용해 주었다. 이는 충청권역 내에서 병상을 공동활용하는 사례였다.

Q7 충남도의 선도적 대응 사례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가?

A7 충남도에서는 2020년 상반기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부터 접촉자 전수검사를 강조하였으며, 104명이 발생한 천안 피트니스센터 집단감염의 경우에도 무증상감염자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 시초였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9월 5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에는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했으며, 도내 15개 시·군 중 8개 시·군만 의무대상이었지만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 모두 역학조사관을 임명하였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 역학조사관 실무교육과 역학조사 지원인력 현장 역학조사 가이드북을 제작 교육하는 등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했다.

Q8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A8 중앙파견 의료인력 인건비가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인건비와 격차가 심해 의료기관 내 현장 의료인력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 의료인력의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투입되는 의료인력 수당 기준이 중앙파견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현장 의료인력보다 현저히 낮아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공무원 위험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Q9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9 확진자 개인정보와 이동 동선을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도한 관심은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도민들의 방패와 칼이 되기 위해 하루도 쉼 없이 수고하는 역학조사관을 믿어주시길 당부드린다.
그동안 신천지, 천안 피트니스센터, 8.15 도심 집회, 사랑제일교회, 방문판매, 요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 김치공장, 대학교, 콜센터, 군부대, 교회와 기도원, 일가족 모임, 김장모임, 외국인 집단감염 등 수많은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고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확진자도 많았다. 그 모든 역학조사 과정에는 도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역학조사관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현장 인터뷰

서산시
감염병관리과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최소화 역점
신용카드 정보조회 시간 단축되길



Q1 감염병 관리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회는?

A1 2020년 2월 18일 계룡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천안의 집단발생 등으로 지하 벙커로 이동하여 낮과 밤, 겨울인지 봄인지를 모르고 지낸 세월과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 질병관리본부(당시)에서도 해결책이 없어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내며 '3달이면 끝나겠지, 반년이면 끝나겠지'라며 지난 시간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어느 순간 15개 시·군이 환자 발생에 허둥대지 않고 너무도 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군 감염병 대응 직원들과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4대 의료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나가겠다. - 김용미 과장 -

한 달을 하루같이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오늘도 검사자 모두 음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깨가 날아갈 듯이 가볍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환자나 접촉자와 면담 후 신속하고 빠른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했을 때는 그간의 어려움이 모두 보상되는 것 같다. 내일도 확진자가 없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 박은미 팀장 -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비상사태에 동참하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감염병 관리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의 안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학조사 시 협조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감정적인 폭언을 하는 이들도 있어 법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해줄 테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지현 주무관 -

야근도 잦고, 주말 휴일도 없이 일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민원인 응대를 처음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막고자 검체채취를 하며 현장을 뛰어다니며 무엇인가 기여되는 것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 김현아 주무관 -

확진자가 발생하면 내 업무도 밀어두고 역학조사, 환자이송, 검체 이송 등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과 상반되게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 박수희 주무관 -

Q2 감염병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A2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빠른 인지로 방역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지역의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 김용미 과장 -

감염병 발생의 빠른 인지를 통해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밀접접촉자를 빠르게 분류하여 자가격리 조치하고 예방적 검사를 통해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박은미 팀장 -

초기 확산을 방지하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빠르게 동선을 파악하여 선제적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여 접촉자 분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김지현 주무관 -

Q3 감염환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

A3 타 시·도 등 집단환자 발생이 된 단체, 시설 등이 사례를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접목해 보고 현장 점검을 통해 선제적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여 무증상감염자를 발견하고 있다. - 김용미 과장 -

감염병에 부합하는 증상을 가진 자와 그 접촉자까지 폭넓게 검사하여 감염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있다. - 박은미 팀장 -

Q4 확진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A4 양성 확진 즉시 환자에게 확진 사실과 차후 진행 과정을 설명하여 불안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며, 가족 감염의 경우, 한 병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병실 배정과 병원 후송까지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진행하여 빠른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확진자가 가족과 주변 사람의 걱정이 많아 심리상담을 통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박은미 팀장 -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말이나 한밤, 새벽을 불문하고 보건소에 나와 조기대응을 하고 있다. 선별 근무 시간 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한 유증상자의 경우 출장 검체를 진행하고 있다. - 서산시 주무관 김현아 -

Q5 역학조사 시 어려운 점과 개선할 점은?

A5 확진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통상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하면 조회까지 3일 정도 소요된다. - 박은미 팀장 -

CCTV 확인이 어려울 때 카드전표나 방명록 확인을 하게 되는데 방명록의 경우에는 누락된 경우가 다수이고 카드전표는 중간에 카드번호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까지 최소 2~3일이 걸리는데, 신속한 확진자 동선 파악과 접촉자 파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김지현 주무관 -

역학조사 시 협조하지 않는 확진자는 진실을 왜곡하고, 직원과의 통화를 피하거나 욕설을 하는데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한지혜 주무관 -

확진자의 거짓 진술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하는데 GPS, 신용카드 조사와 병행하여 동선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배태희 주무관 -

방명록을 누락 없이 철저하게 기록해야 하며, 카드 정보조회 요청 회신이 하루 내에 되어야 한다. - 이해성 주무관 -

Q6 자가격리자 이탈이 종종 있는데 개선할 점은?

A6 자가격리 앱 설치가 간단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앱 설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김지현 주무관 -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 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하며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이 특정 부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배를 통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 한지혜 주무관 -

앱을 통해서 자가격리 이탈을 확인하고 있지만, 시스템 오류도 잦고 고령 어르신은 앱 설치도 불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다. 불시에 모니터링 요원의 화상통화를 통한 점검이나 주변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면 자가격리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김현아 주무관 -

자가격리지 이탈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다. 자가격리 장소 이탈 시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김나래 주무관 -

Q7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7 지금의 현실은 총과 칼로 싸우지는 않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심각한 바이러스와의 전쟁 상황이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믿고 함께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힘내 주길 부탁한다. - 김용미 과장 -

국가에서 홍보하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모임 금지 등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한다. - 박은미 팀장 -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으면 숨기거나 검사를 미루지 말고 바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면 한다. - 김나래 주무관 -



현장 인터뷰

임 지 애

충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우한 교민 포용 등 선도사례에 자부심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향상 필요



Q1 충남도의 방역체계에 대한 종합평가는?

A1 매일매일 이어지는 중앙과 시·도, 시·군 단위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양승조 충남도지사 주재로 진행되는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감염 예방 및 발생 조기 인지, 전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헌신을 다해오고 있다. 이러한 헌신으로 세계적 대유행의 상황에서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다.

Q2 충남도의 방역체계에서 우수한 점과 선도사례는?

A2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여 약 500여 명의 우한 교민이 입소하게 되었다. 도민들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충남도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에 양승조 도지사의 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도민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위기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또 실내 체육활동인 줌바댄스를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밀집과 밀접이 감염의 주요 요인임을 파악하여 체육시설 내 거리 두기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밀집, 밀폐, 밀접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감염 위험을 개선·보완하면서 예방·관리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집단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권역별 역할조사관을 배치하고 이후 15개 시·군 모두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Q3 충남도의 개선할 점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A3 방역 일선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군 보건소 담당자들의 업무 하중이 매우 높다. 올해에는 백신 예방접종도 있는 만큼 시·군 보건인력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가 장기화되는 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확진 환자 발생 시 작성하게 되는 기초역학조사서 및 심층 역학조사서는 모바일 등의 IT 기술 연계로 개발이 되면 좋을 거 같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의 입력은 효율적으로 입력,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Q4 충남도의 향후 방역체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A4 코로나19의 특성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의 위험이 높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및 위험관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2월부터는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집단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예방접종 계획을 문제없이 잘 수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일선 보건소에서부터 강화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업무가 보건소의 주요 업무로 되어야 하여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 및 인력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과 인력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Q5 충남도의 역학조사 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할 점은?

A5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심층적인 역학조사와 타 시·도 정보가 충분히 공유, 논의되어 감염경로 파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역학조사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문제 발생, 책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역할이 보호되어야 한다.

현장 인터뷰

임 유 나

천안의료원 감염관리실
간호사

첫 확진환자 건강하게 퇴원했을 때 감격

공공의료원 시설 개선, 인력 충원 절실





Q1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은?

A1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은 민간병원의 특성상 병상을 내어주기 쉽지 않다. 반면 공공성을 중요 가치로 삼는 공공의료원은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병상 전체를 소개하고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뒤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까지 케어하며 생활치료센터와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잇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NTERVIEW

Q2 향후 공공의료원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A2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원 간호사는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명감이 없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간호사 인력 부족에 따른 추가 인력의 확충과 치우 개선 등이 절실하다.
공공의료원 대다수가 규모가 작고 열악하여 급성기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격리실, 공조 등 시설의 개선과 설비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원 전산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동화 시스템과 전산 출력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 강화가 필요하다.

Q3 일선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A3 2020년 1월 말 설날 연휴를 기점으로 매일 회의와 논의의 연속이었고 400여 명이나 되는 임직원과 200명이 넘는 일반 환자를 인력이 2명 뿐인 감염관리실에서 대응,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감염관리의 연속이었고 24시간도 모자라 사무실 바닥에서 얇은 매트를 깔아 쪽잠을 자며 대응하기 일쑤였다. 시간은 끝없이 모자랐고 내 한 몸을 찢어 나누어도 모자라는 하루하루였다.
밤,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오는 확진환자의 연락에 행여 부재로 인하여 빠른 간호와 이송이 어려울까 싶어 쪽잠을 잘 때도 항상 전화기를 양손 깍지에 꼭 쥐고 잠들었고, 쪽잠에 못 일어날까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가며 대응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과 식욕 저하로 몸과 마음은 힘들었지만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력으로 버티고 아파도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일부 확진환자의 무리한 요구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식단에서부터 병실 배정문제와 퇴원 거부 사례 등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너무 많았다. 공공의료원의 의료진이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따듯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Q4 건강관리 등 자신만의 대처 및 해소방법은?

A4 점차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각한 순간부터 종전에는 바쁜 탓에 못 챙기던 끼니도 억지로 먹으려 노력하였고, 평소에 안 먹던 영양제도 챙겨 먹었다다. 피로가 과포화되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짧은 명상이나 깊게 숨을 들이 쉬어주고 내쉬어주기를 통해 다소 어지러웠던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이완시켜주려고 노력했다. 가끔 시간을 내어 걱정하실 부모님에게 연락드리고 대화하면서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힐링이 된 것 같다.

Q5 그동안 보람이 있었던 사례는?

A5 첫 퇴원환자가 나오게 되셨을 때의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힘든 치료 상황을 견디고 건강을 회복해주셔 너무나 감사했고 환자분이 병실의 문을 박차고 건물 밖으로 발걸음을 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부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3살배기 자녀는 음성이었지만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부부의 동의하에 자녀와 함께 격리실에 입원하였다가 가족 모두가 격리 해제되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한 일, 무섭고 두려웠지만 항상 친절하고 따듯하게 대해주어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눈물 흘린 환자분, 의사소통도 안 되는 언어로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감사의 글을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신 외국인분 등 따듯한 말 한마디, 감사의 편지 한 통이 저에게는 영양제였고 비타민이었던 것 같다.

Q6 고생하는 동료 의료진에게 하고 싶은 말은?

A6 '순망치한'의 뜻처럼 코로나19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서 의료진들끼리도 코로나19를 통해 서로 의지하며 돕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한해였다.

공공의료원의 코로나19 대응은 감염관리실로부터 시작되고 감염관리실에서 끝나고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에 감염관리실이 있으며 감염관리실은 공공의료원 내의 질병관리청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시기에 그 누구보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법을 연구했고 가장 먼저 두렵고 불안한 마음 위에 방호복을 입고 일선에 뛰어들기도 하였으며, 코로나19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와 관리를 한 것도 감염관리실 의료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관리실의 밤낮 없는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실 의료진을 위한 처우개선도 미약하고 감염관리실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거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상 앞에서든 뒤에서든 안 보이는 곳에서까지도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감염관리실 의료진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다.



Q7 충남도와 충남도민에게 바라는 점은?

A7 항상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애써주시는 충남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방침에 동참해주시고 따라주시는 충남도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 행적적 지원과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복지 및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충남도민 여러분이 지금처럼 기침 예절, 손 위생,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에 동참해주셔서 나부터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한 명의 낙오자도 패배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웃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남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힘든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길 희망한다.

부록

COVID-19



Part 1 충남도내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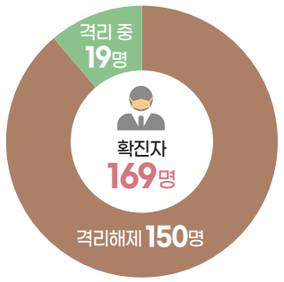
Part 2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1 충남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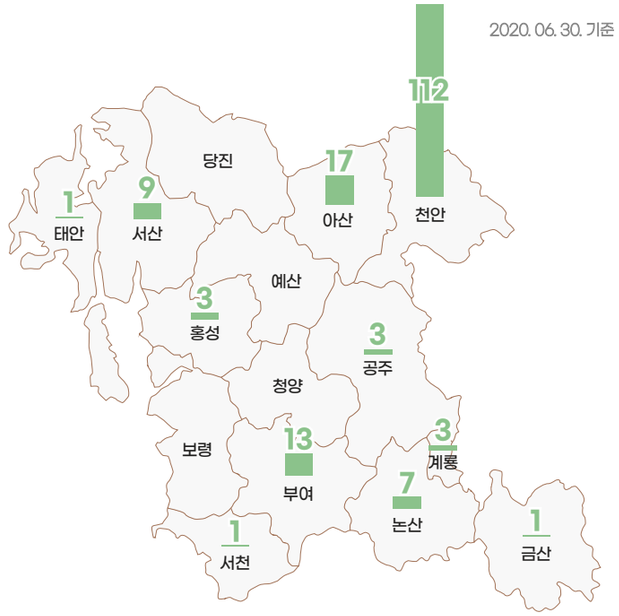
충남도 확진자 현황

2020. 06. 30. 기준

발생 현황



확진자 입원 현황(21명) : 도 19 + 검역 2



충남도 시·군별 확진 및 입·퇴원 현황

2020. 06. 30. 기준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확진자	169	111	3	-	17	9	6	3	-	1	13	1	-	4	-	1
격리 해제 (퇴원)	150	108	1	-	13	9	2	1	-	-	11	1	-	3	-	1
격리 중 (입원)	19	3	2	-	4	-	4	2	-	1	2	-	-	1	-	-

충남도 월별·일별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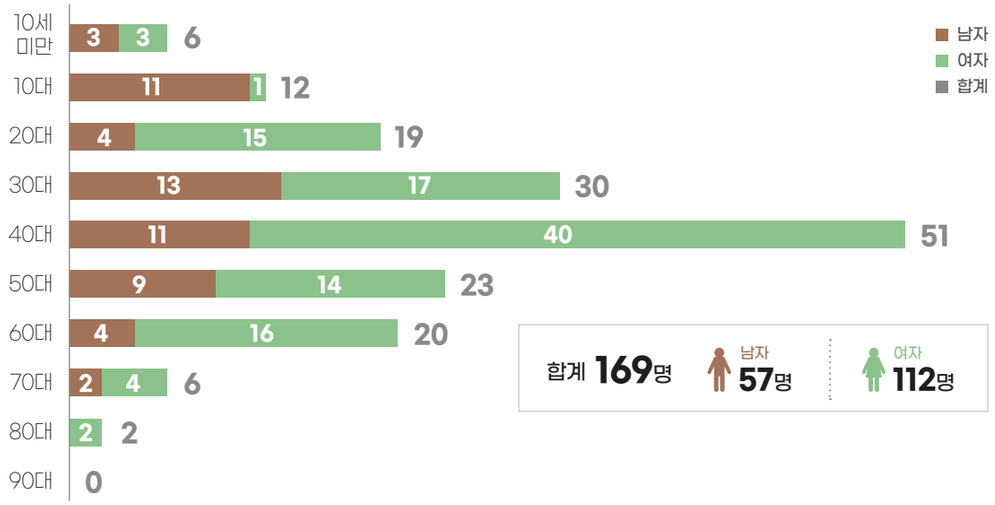
2020. 06.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2월	63																					1				3	5	10	27	17		
3월	68	14	3	2	3	5	4	4	4	2	8	2	1					3		1		1			3	1		2	1		1	3
4월	12	1	1	1		1	1	1				1						2									1		1			
5월	3													1							1						1					
6월	23				1	1			2					1	1	1	1	2		2	1	2	1		1	3		1			2	
계	169																															

충남도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

2020. 06. 30. 기준



충남도 감염경로별 확진자 현황

2020. 06. 30. 기준

구분	계	피트니스 관련	한화 토탈 관련	타지역 감염 관련	해외 유입 관련	은혜의 강교회 관련	부여 구암 성결 교회 관련	군인	신천지	이태원 관련	삼성 서울 병원	리치 웨이 관련	대건 테크 관련	방문 판매 관련	원인 불명
누계	169	103	8	8	17	1	9	1	1	1	1	3	2	10	4
천안	111	96	0	4	7	1	0	0	0	0	0	1	0	0	2
공주	3	0	0	0	0	0	0	0	0	1	0	0	0	2	0
보령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산	17	7	0	3	2	0	0	0	0	0	0	2	2	0	1
서산	9	0	8	0	0	0	0	0	0	0	1	0	0	0	0
논산	6	0	0	0	1	0	0	0	1	0	0	0	0	4	0
계룡	3	0	0	0	0	0	0	1	0	0	0	0	0	2	0
당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산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부여	13	0	0	0	2	0	9	0	0	0	0	0	0	1	1
서천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청양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홍성	4	0	0	0	3	0	0	0	0	0	0	0	0	1	0
예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태안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2

코로나19 대응 예산지원 현황

2020. 06. 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실과명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계		86건	752,144	609,751	142,393
소 계		55건	697,590	609,751	87,839
일반회계	출산보육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성립전)	511,231	511,231	0
	출산보육정책과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	75	75	0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마스크 지원)	68	68	0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체온계 지원)	219	219	0
	출산보육정책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특별 돌봄지원)	21,709	21,709	0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20	620	0
	사회복지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15,498	15,498	0
	사회복지과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성립전)	164	146	18
	사회복지과	긴급복지 지원	9,319	8,284	1,035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1,000	1,000	0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0,958	40,958	0
	보건정책과	도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지원	100	100	0
	보건정책과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600	600	0
	보건정책과	방역물품 및 장비 등 구입	355	355	0
	보건정책과	시군 방역장비 지원	495	495	0
	보건정책과	방역물품(장비) 시군지원	290	290	0
	보건정책과	역학조사 수행인력 인건비	52	52	0
	보건정책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600	1,600	0
	보건정책과	충남의료원 운영비	500	500	0
	보건정책과	기간제(간호사) 근로보수(성립전)	12	12	0
	보건정책과	이동검사소 운영 및 홍보물품 제작(성립전)	28	28	0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의 의료지원 수당(성립전)	30	30	0
	보건정책과	도 역학조사관 수행인력운영비 수당(성립전)	30	30	0
	보건정책과	전담병원(의료원)X-ray촬영기 구입(성립전)	480	480	0
	보건정책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76	76	0
	보건정책과	방역물품(진단시약) 구입(성립전)	180	180	0
	보건정책과	시군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100	100	0
	보건정책과	감염병 방역약품 구입	48	0	48
	보건정책과	코로나 19 격리치료비	278	139	139
	보건정책과	코로나 19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지원	129	90	39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60	0	60
	보건정책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성립전)	48	48	0
	보건정책과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	57	57	0
	보건정책과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	150	150	0
	보건정책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	800	800	0
	일자리노동정책과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16,000	0	16,000
	일자리노동정책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0,500	0	10,500
	소상공기업과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코로나19 대응)	50,000	0	50,000
	소상공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성립전)	2,120	2,120	0
	운영지원과	청사 방역소독 및 출입통제 물품 등 구입(성립전)	110	110	0
	문화정책과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396	396	0

구분	실과명	사업명	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충남도서관	충남도서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성립전)	10	10	0
	도로철도항공과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지원(성립전)	42	42	0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4,500	0	4,500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2,000	0	2,000
	교통정책과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1,500	0	1,500
	교통정책과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2,000	0	2,000
	교통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대중교통 방역물품 지원	140	140	0
	공무원교육원	임시생활시설(코로나19 관련) 인터넷 회선 사용 요금	6	6	0
	공무원교육원	임시생활시설(코로나19 관련) 네트워크 공사	17	17	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구입	190	190	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장비 구입	159	159	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지원 검사 시약 등 구입(성립전)	100	100	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대응부서 오염균 차단시설(성립전)	20	20	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분석 장비 구입	150	150	0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서열 분석장비 등 구입(성립전)	271	271	0
소 계		23건	6,689	0	6,689
예비비	보건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긴급물품 지원에 따른 예비비	50	0	50
	소방행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감염방지물품 구입	200	0	200
	보건환경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속 확인진단을 위한 분석장비 구입	300	0	300
	교통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대중교통 방역물품 지원	17	0	17
	보건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방역장비 구입 지원	825	0	825
	국제통상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관련 우리도 중국 교류지역 방역물품 지원	130	0	130
	소상공기업과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관련 전통시장 및 상 점가 방역물품 지원	170	0	170
	문화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장비 구입	9	0	9
	교육법무담당관	중국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도내대학 코로나19 방역비 등 지원	635	0	635
	교통정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내 버스터미널 내 열화상카메라 지원	96	0	96
	도로철도항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내 철도역 내 열화상카메라 지원	180	0	180
	사회복지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70	0	70
	사회복지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309	0	309
	운영지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	54	0	54
	정보화담당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	20	0	20
	보건정책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관련, 의료인력 재정지원(4개 의료원)	1,105	0	1,105
	교통정책과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대중교통 방역물품 지원	599	0	599
	출산보육정책과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34	0	34
	교통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 지원	54	0	54
	사회복지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2차)	103	0	103
	문화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도내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399	0	399
	산림자원과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관련 산림분야 대응 사업 지원	280	0	280
	교통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운송업계 긴급고용지원금	1,050	0	1,050
소 계		1건	1,000	0	1,000
재해구호기금	자연재난과	감염병 격리자 등의 생활지원비	1,000	0	1,000
소 계		6건	42,365	0	42,365
재난관리기금	자연재난과	코로나19 대응(공공운영비)	120	0	120
	자연재난과	코로나 진단 등	180	0	180
	운영지원과	도 청사 열화상카메라 임대 설치 및 마스크 지원	40	0	40
	자연재난과	음암구급차 등 구입	480	0	480
	출산보육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매칭)	41,138	0	41,138
	건강증진식품과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차단용 칸막이)	407	0	407
소 계		1건	4,500	0	4,500
지역개발기금	보건정책과	4개 의료원 용자지원	4,500	0	4,500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위기극복 대응 및 선도사례 2019.12. - 2020.6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충청남도
(32255) 충청남도 홍성로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120
www.chungnam.go.kr

집필·디자인·제작 ㈜스토리미디어 충청센터 070-4300-3692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충청남도